

Vol.45



온누리에서 온

# 편지





선 교 지 의 소 식 과  
기 도 제 목 을 담 은 러 브 레 터

# ON편지

## 목 차 • Vol. 45

---

### 04 선교지 이야기

레바논에는 아직 믿는 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 08 국내

월 아디나 김주경·윤사라 권은영 최서우·박은아 김미정 구리빙스턴·김마리아

화 사라 에스더 이경원 고진우·혜현 조은 이준 김우·김은 방갈렙·홍수아 제피온·김세라  
조수아·이사라

수 김남수·이덕신 바나바·한나 캐일럽·크리스틴 윤충성·김은유 김만철·서훈주 박근솔

목 조중환·임미경 윤대근·신미아 송바울·양세비아 김경찬·이지혜 김순중·소하은 존·그레이스  
허길·유진리 조경근·브린다 이보라 임선아

금 이생명·이샘물 김스데반·조희 채필립·조이폴 주마음·주사랑 김솔람미

토 박영환·윤유희 이훈·오지영

### 30 동아시아

월 이노아·오바다 바나바·루디아 J·K 선교사 S 선교사 김삼열·김은혜 송바울·최에스더  
심요셉·김한나

화 고엘리사·허에스더 바울·그레이스 G 선교사 Y 선교사 바나바·조세핀 수혜·통가

수 H 선교사 디도·뵈뵈 C·E 선교사 데이비드 정웅규·임난주 한결·사랑

목 노효중·김희정 김바울·손애희 이형석·서우숙

금 이준수·박용희 허귀재 김인경 이도현·오은주 유소망·안은혜

토 임장백·손하임 박성근·김인옥 이재석·백지현 나문채·주미경 김명훈·주현경 이철원  
야마구치·이혜경

### 54 남아시아

월 끼에우·프영 박은진 선반석·김샘물 J 선교사 전아굴라·박브리스가 김영미 S·M 선교사  
바울·조이

화 정은유·최열매 이상우·박선희 한창욱·김미혜 존 데이비드 이아고보·루디아 C·M 선교사  
A 선교사 김사야·최마리아

수 B·K 선교사 유예녹·서에스더 정갈렙·박수아 H·J 선교사 Paul·Y 선교사 박성실·양기쁨  
박민음·함은혜 아굴라·브리스길라

목 김남수·정옥희 한예녹·유니스 부름·받아 김소망·신사랑 시므온·안나 정닛시·조로이  
권피터·오지아 Joseph·추행란

금 U·Y 선교사 자이널 김 다윗·한나 이성희 제자·임재 소리엘·소리샘 Joseph·H 선교사 이기쁨·문한나

토 J 선교사·마리아 Joseph Lee·Shiny Choi 비파·수금 이우람·김조은 김씨니 S·B 선교사  
리차드·샬리 김빌립·이사라

## 80 중동

월 파디·파디아 김바나바·김드보라 H·S 선교사 브리스길라 돌켈지우·김줄리

화 채사라 이사람 김은혜 장여호수아·홍은혜 김선하 조햄릿·강에스터 조하늘·박별 그레이스 오라함 한솔로·레아

수 최권능·윤예지 배다윗·김화목 채움 Grace Lee 손충성·송이레 김순중·천사랑 이영광·이찬양 복음·하나

목 아굴라·브리스가 G·H 선교사 알리·라니아 최밀알·이평강 새노래 이요한·안드보라 여호수아·에스겔

금 한젠슨·한조니 아브라함 정·사라 정 이빛·이샘 신아벨·이셀라 서요셉·황로즈 레반트 난민사역팀 박새소망

토 황디모데·송예나 유종철·신명옥 한길·임사랑 에스라·에젤 S·J 선교사 아리엘·수산나 바나바·송사라 아브라함·그레이스 반석·하나 말라드

## 112 아프리카

월 피터·조안 가브리엘·소피아

화 이에녹·Aysata Lee 흥요한·에스더

수 김현우·우주희 김빌립·임보보

목 트레조 김 그레이스 조

금 에벤·에셀 케이 노아·세아

토 정직하·정결하 김루이스·강한나 보아스·나오미 정피터·손사라 박일구·신인순 김갈렘·차한나 이보라 아이작·사만다 윤브루하누·이블렌 갈렘 신·쥬슈아 흥 김사무엘·에스터 이영재·최영미 박사라 이성령·김단비

## 138 유라시아 · 미주 · 오세아니아

월 K·M 선교사 김알렉산드르 주숨결·주누림

화 이다윗·헵시바 윤희섭·신마리아 김조수아·장사라 김신영 장드보라 조수산나 차요셉·방라헬 스타니스라브·엘레나

수 토마스·세라 조요한·박사랑

목 김은하 루디아 다비드·전경미 이바울·송유순 바리·김수선 한흥태·한필연

금 박사무엘·예녹 홍에스터 선순희 최광규·주선자

토 박성주·노영이 박성민·정희진

## 164 사람들 이야기

모든 걸 예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 166 질병중에 있는 선교사

## 167 선교기관 기도제목

## 168 ON편지 안내 및 활용법

# 레바논에는 아직 믿는 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



‘... 그의 모습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뛰어납니다.’ (아가서 4:15)

솔로몬이 그리스도의 얼굴로 비유했던 땅 레바논. 우리에게 레바논은 중동의 낯선 나라지만 알고 보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은 곳이자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이다. 지중해성 기후로 연중 대부분 맑은 날씨를 자랑하며, 북에서 남으로 쪽 뾰은 산맥이 있고 해안에는 평야가 발달해 있어 레바논은 예로부터 해양 교역의 중심지로 번영을 누렸던 곳이다. 하지만 이런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쉽게 주변 강국의 먹잇감이 되어 잦은 침략과 지배를 당하곤 했는데, 터키와 프랑스의 지배를 거쳐 결국 1944년 1월 최종적으로 독립함으로써 레바논 역시 우리나라처럼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며 근대적 주권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레바논은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대다수의 중동국가들과 달리 기독교를 주요종교로 인정하는 다종교 국가이다. 현재 레바논의 종교별 인구는 이슬람교(51%), 기독교(45%), 드루즈교(5%)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이슬람교는 수니파와 시아파가 각각 50:50의 비율로 양분하고 있으며, 기독교는 절반 이상이 마론파에 해당한다. 마론파 기독교는 5세기 시리아에서 활동했던 기독교 수도자 성 마론의 이름을 딴 교파로서 현재 로마 가톨릭에 속해 있는데, 시리아와 레바논의 기독교인들이 주로 이 교파에 해당한다. 『예언자』로 유명한 소설가 칼릴 지브란(Kahlil Gibran, 1883~1931)이 바로 이 마론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기독교적인 주제로 많은 작품을 썼던 레바논계 미국인이었다. 중동에는 이렇게 이슬람과 기독교가 공존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지닌 나라가 드물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는 한때 중동의 파리로 불리기도 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레바논은 중동의 대표적인 실패국가로 분류된다.

## 종교 간 갈등에서 비롯된 레바논의 비극

최근 우리가 레바논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2020년 8월의 베이루트 폭발 참사일 것이다. 베이루트 항구에 6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던 2750톤 분량의 질산암모늄의 화학반응으로 일어난 대폭발은 소형 전술핵의 폭발을 연상시킬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했다. 이 사고로 220명의 사망자와 7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30만 이상의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었다. 그런데 이 베이루트 참사는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여러 문제들이 임계점을 만나 일어난 사건이라고 봐야 한다. 그 문제들의 근원은 바로 종교 간 갈등이다.

이스라엘 건국에 따른 팔레스타인 분쟁과 1960~70년대에 걸친 수차례의 아랍-이스라엘 전쟁으로 팔레스타인 난민이 레바논으로 대거 유입됐는데, 이로 인해 아랍-무슬림계 주민의 인구가 많아지고 기독교와 이슬람의 팽팽한 세력균형이 깨지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 1975년에는 결국 양 진영 사이에 내전이 발생했고, 이 내전은 기독교계를 지원하는 서방과 무슬림계를 지원하는 범아랍세력의 국제전의 양상으로 복잡하게 진행되었는데, 1990년 타이프 협정으로 내전은 종식되었다. 이 협정의 핵심은 마론파 기독교, 시아파 무슬림, 수니파 무슬림 이 3자가 국가권력을 분점하는 것이었는데, 이 조치가 다시 새로운 문제의 불씨가 되고 말았다. 종파 간 균형 유지를 위해 어떤 정파도 단독으로 의회 다수당이 될 수 없게 했고, 각 정파의 의견이 모두 정치에 반영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종파별로 권력이 분배되자 정단 합의를 타협의 정치는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중앙정부의 기능은 더욱 약화되었다. 행정 시스템 또한 종파별 지역 기반에 따라 구축하면서 전기, 수도, 학교나 병원 등 생활에 밀접한 인프라가 국민 모두에게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 총칼로 싸우는 전쟁은 권력과 정치적 지분을 놓고 벌이는 경쟁으로 변화되었고, 진정한 의미의 정치와 행정은 실종되고 만 것이다.



베이루트 참사에 대해 분노하며 정부의 책임을 묻는 베이루트 시민들의 시위 (출처 : <https://gulfnews.com/>)

## 선교지이야기

결국 참다못한 국민들은 정부에 저항하기 위해 종교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오게 되었는데 대규모 시위의 시작은 정부의 행정기능이 마비되면서 1500만 톤의 쓰레기와 악취로 뒤덮이게 만든 ‘쓰레기사태’였다. 2015년부터 이 문제로 반정부시위를 지속해 왔으나 아직도 해결책을 찾지 못해 쓰레기들이 바닷가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부터 시작된 심각한 경제위기는 2021년 현재 국가부도가 거론될 정도로 악화되었다. 인구의 과반이 빈곤 상태이며, 청년실업률은 70%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 레바논 정부는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국경을 재개방하고 관광객을 받는 결정을 하였다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5000명으로 급증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말았다.



레바논 기독교인들의 예배 모습 (출처 : GAP Movement, <https://www.btjprayer.net>)

### 다시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기 시작한 레바논 선교

이러한 상황에 레바논의 기독교인 수도 점차 줄고 있다. 국민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점차 해외로 이주하고 있으며 난민 유입 등 무슬림들의 수는 증가하고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기독교 지역에서 무슬림 출신의 국회의원이 당선되기도 했다. 더불어 현재의 불안정한 정세 변화로 인해 많은 해외 선교사들까지 자국으로 돌아가고 레바논 현지 교회에 대한 지원들도 점차 중단되면서 현지 교회들은 운영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아있는 현지 선교사들의 사역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 레바논 선교의 주된 사역은 난민을 돕는 인도주의적 사역이었다. 그러나 레바논 국민들도 궁핍한 지경에 이르자 난민 구호사역에 반발이 심해지면서 코로나와 함께 많은 학교와 센터 운영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레바논 선교를 그분의 뜻대로 이끌고 계신다. 이제 레바논에서의 선교 사역은 다시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에 집중하도록 변화되었다. 레바논에 있는 남아있는 기독교 NGO단체와 선교사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 등 레바논인들을 위한 긴급한 의료 구호 사역과 함께 더욱 온라인을 통한 복음 교육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지의 많은 선교사들은 복음의 본질 회복과 한 영혼을 얻는 기쁨 속에 사역하고 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회심과 성화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선교사들은 다른 무엇보다 복음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한다. 레바논의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중동에서 유일하게 나라 전역에 걸쳐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불을 끄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교지 이야기>를 위해 레바논의 상황과 마음을 정성껏 나누어 주신 최OO, 공OO 선교사님께 감사드리며 선교사님의 귀한 고백으로 끝맺고자 한다.

“지금의 어려움이 단순한 환란과 고난이 아닌 죄악으로 변해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혼자 감당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의 날개 아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레바논 땅과 레바논 사람들, 그리고 시리아 난민들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안전한 날개 그늘 아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와해되어 있는 내각이 하루 빨리 구성되고 레바논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정직하고 성실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종교와 종파에 따라 분리되고 나누어져 있는 레바논에 복음으로 모두들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레바논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소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 |      |   |
|------|---|
| 기도제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와해된 레바논의 내각이 속히 구성되고, 정직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li> <li>· 레바논 국민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혼란이 잘 수습될 수 있도록</li> <li>· 종교와 종파에 따라 분열된 레바논이 복음으로 하나될 수 있도록</li> <li>· 레바논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이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여 더욱 힘을 내도록</li> </ul> |
|------|---|
-





온누리에서 ON편지

—  
**국내**

국내

아디나

처음 만난 라히루 형제가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시간이 좀 지났지만 지난 설 수련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안산팀은 안정적으로 계획되었고, 진행도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광주팀은 가는 당일까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만날 형제들은 대부분 설날 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하느냐는 질문을 저에게 했지만,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상황에 흔들릴 때마다 주께서 ‘가라’는 확증들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첫 마음을 기억하게 하셨기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출발한 지 두어 시간 지났을 때 다순 형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하는 중이지만 오후에는 반차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다순 형제의 숙소에서 함께 방을 쓰는 라히루라는 형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교제 속에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나누었습니다. 라히루에게 다음번에는 기쁜 소식인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에는 딜룸 형제도 함께했습니다. 복음을 나누기 위해 혹시나 하고 빌려 간 빔프로젝터로 영화 「나니아연대기」를 보았는데 형제들 숙소가 극장이 되었습니다. 그날 라히루 형제는 영화를 보는 내내 영상 통화로 한국인들과 함께 있다며 지인들과 대화하는 듯했습니다. 한국인은 늘 강자로서 군림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함께 밥 먹고 영화 보며 덩구는 모습에서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이렇게 열린 마음의 문을 통해 복음이 들어가게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 다순과 딜룸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경을 꾸준히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기쁨을 느끼도록
-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화성 방문 날짜가 미뤄지고 있는데 12명의 스리랑카 형제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도록
- 안산 디네쉬 형제 안에 거룩한 삶의 습관이 생기도록
- 성할러로 된 오디오 구약성경 자체 녹음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국내

김주경 · 윤사라

상황을 바라보며 염려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출국을 앞둔 어느 날 ‘주님 우리가 이렇게 모자라고 준비되지 못한 것 같은데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기도가 절규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새벽기도회 말씀을 듣는데, 놀랍게도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이유가 완전하고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절망투성이인 존재이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인생! 주님이 기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인생! 다시 한번 그 믿음의 모험을 떠납니다.

짐을 보내고 필요한 것들을 챙기며, 상상할 수 없는 날씨와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처음으로 프놈펜 왕립대학에서 온라인 크마에(캄보디아어) 수업이 개설되어 4월 초부터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출국 준비와 함께 매일 언어 수업을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지방으로 가는 저희로서는 상상도 못한 프놈펜 왕립대학의 언어 과정을 듣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세밀하고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따라와 준다고 생각하고 크게 염려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다니던 학교를 정리해야 한다고 하자 중학교에 입학한 큰아이가 캄보디아에 가지 않고 할머니 댁에 있겠다는 엄포를 놓았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5곳이나 되는 초등학교를 옮겨 다녀야 했고, 이제 좀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며 정이 들었는데 또다시 떠나야 하는 게 쉽지 않나 봅니다. 저희도 그런데 아이에게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낯선 환경이 두렵기도 하겠지요! 아이의 마음이 전해져서 미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깊이 다가와 만나주시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주시시오.

기도제목

- 매 순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계속되는 이동을 경험하고 있는 자녀들이 안정감을 갖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 출국 준비와 함께 현지 대학의 온라인 언어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언어 학습에 지혜를 주시고 출국 준비가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 최근 현장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고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지역 간 이동 제한이 풀려서 지방에 있는 사역지까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 국내

권은영

### 영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도록

- 건강 회복(이명, 이석, 코피 원인 치유)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창조해주신 참'나'(true self)로 살도록
- OGP에서 섬기는 선생님들(동북아, 러시아, 스리랑카)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교에 참여하시도록
- 수감 중인 서 선생님 부부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풀려날 수 있도록

## 국내

최서우  
박은아

### 여러 사역과 공부 병행할 때 지혜와 체력 주시도록

- 주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최서우 선교사 왼쪽 무릎의 고사가 회복되도록
- 온라인 사역(콘텐츠 제작, 미디어 강의)이 잘 세워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유튜브 채널이 잘 만들어져 다음 세대 미디어 선교사들이 양성되도록
-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 국내

김미정

### 무슬림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연합사역을 위해 성령님께서 역사 해주시도록

- 열방의 무슬림들을 위한 온라인 일대일 제자양육 사역의 연합과 추진을 위해
- 각 언어별(아랍어, 페르시아어, 영어, 다리어 등등) 구글 클래스의 양육 교재를 통해 온라인 원격 양육을 하는 시스템([www.121bible.com](http://www.121bible.com))을 개발 중인데 SWIM, 선교사님들, 중동권 현지 교회 목회자들과 리더들이 잘 협력하도록
- 데이터 베이스와 코딩 및 페이스북을 통한 복음 콘텐츠 제작 및 배포 사역에 지혜를 주시고 동역자들과의 만남을 주님께서 인도해주시길
- 육체의 강건함 주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 국내

구리빙스톤  
김마리아

### 모든 동역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도록

#### 김포 온누리M센터 기도제목

-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움직이는 김포 온누리M센터가 되도록
- 사역자들과 센터운영위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 미안마 예배실(706호) 세팅이 하나님의 손길로 채워져 감사드리며, 남은 부분까지 잘 채워지도록
- 캄보디아 · 미안마 · 러시아 · 다문화 차세대(꿈땅 · 파워웨이브)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 캄보디아 기도제목

- 캄보디아 지체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 소그룹 리더들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 매주 토요일 저녁 '성경 파노라마'를 진행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 형제,자매들이 잘 깨닫도록

#### 러시아어권 및 기타 기도제목

- 러시아어 예배가 김포 지역에 있는 러시아어권 영혼들에게 널리 알려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두 올 수 있도록
- 매주 금요일 저녁 기도모임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모임이 되도록
- 좀머 종족의 어머니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도록

#### 가정 기도제목

-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는 가정이 되도록
- 다섯 명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고 믿음의 친구들, 마음이 따뜻하고 정직한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 자녀들의 은사와 달란트가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 국내 사라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에서 귀환한 후 첫 주일을 지내고 바로 찾아온 설날 연휴 3일 동안은 형제들을 심방했습니다. 3명씩 조를 짜서 당진, 화성, 안산의 형제들 공장과 캄보디아 식당 그리고 안산역, 중앙역 등에서 반가운 만남을 가지며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끝나 함께 모여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얼굴을 맞대고 형제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가능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저녁마다 줌으로 사복음서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그날의 본문을 2~3장씩 읽고 소그룹으로 나눔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부활절까지 이 경주를 잘 마쳤습니다.

심방하며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이 기쁨 가운데 서로를 배려하고 챙기는 모습을 보니 눈물겨웠습니다. 문득 너무도 선한 이 백성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자신의 사욕을 버리며 국익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므로 ‘어느 지도자는 온전할까’라는 생각과 함께 오직 우리의 참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옳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캄보디아에 있는 리더들이 귀환한 M센터 형제들의 전체 모임과 리더 형제들의 지방 심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임이 예정된 가운데 지역 감염이 발생하여 다시 휴교령이 내려지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확산이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며 주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 기도제목

- 예배나 성경읽기 모임 때 인터넷이나 기술적인 문제로 방해받지 않도록 잘 준비하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지키시도록
- 비대면 시대에 형제들에게 창의적으로 복음을 전할 방법을 찾는 지혜를 주시도록
- 통역과 드림으로 섬기는 썸포아 형제가 회사에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6월 비자 연장이 잘 되도록
- 한국에 있는 동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삶의 주인이 온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도록

국내

에스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지난 사순절에 차세대 친구들은 매일 성경쓰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함께 읽고 도움을 주셔야 하는 이 활동이 직장생활로 피곤한 부모님들이 함께해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얀마 친구 낭문마이 메리자복은 성경쓰기를 너무 많이 해서 아동센터에서 하는 한글 공부는 힘들어 못하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바로 찾아가 아이들에게 다시 설명하고 매일 예수님을 기억하며 읽고 쓰자고 약속을 했는데 오면서 생각해보니 성경쓰기를 즐거워하고 열심히 읽는 아이들이 오히려 대견할 뿐입니다.

3월 첫째 주일에 김포 M센터에 청소년 예배 파워웨이브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얀마 친구 5명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 기도하고 고민하는데 새벽 예배를 통해 인도인 비크럼 전도사님과 중학교 과학 선생님인 김연훈 팀장님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두 분이 기쁘게 받아주셔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친구들이 원하는 수학 등의 공부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전체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월부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시작되는 돌봄교실의 아이들이 9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아이들을 혼자 감당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에서 한글 선생님 한 분을 보내주시겠다는 연락이 와서 너무 기쁩니다. 월요일부터 돌봄을 해야 하기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뵈는 것도 힘들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기도제목

- 다섯 명의 아이들 낭진마에, 낭진마웅, 산누, 로리안, 제임스, 이종수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도록
- 초등학교에 들어간 5명의 아이들 루이, 뿌이, 나나 하나제, 제임스, 헨리가 학교에서 적응을 잘 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도록
- 어머니가 성령 충만하시고 다리가 아프지 않고 힘이 넘치도록

## 국내

이경원

### 인도네시아 예배에 나오는 한 생명을 귀하게 섬기도록

- 시그워드가 캄보디아인인 두 친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 인도네시아로 돌아간 아디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가족에게 전할 수 있도록
- 안디와 아이 부부, 자녀 향이가 인도네시아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 아버지와 이모의 구원을 위해, 어머니 뇌경색이 재발되지 않고 이모의 간경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 스타트리 협동조합의 사업들을 잘 세팅할 수 있도록

## 국내

고진우  
혜현

### 주님과 깊은 친밀감으로 늘 동행할 수 있도록

- 동북야교회 CCM 교육의 시스템이 안전하게 구축되고 동역자가 세워지며 아름다운 연합사역으로 선교 동북아의 비전을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 말씀 묵상과 깊이 있는 교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비전을 소망하며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과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 국내

조은

### 사역 인도해주시고, 회복의 시간 또한 열어주시길

- 안식 없는 사역으로 몸이 많이 지치고 힘든데 회복의 길이 열리도록
- 동북야 사역자 가정을 대상으로 회복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진행하고 있는데 현지인의 필요에 맞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 국내

이준

### 현재를 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 건강과 지혜 주셔서 온누리 훈련원에서 선교사 훈련을 잘 감당하도록
- 언니와 여동생 가정의 구원을 위해

<p><b>국내</b></p> <p>김우 김은</p>	<p>드림교회와 JATC의 연합을 통해 선교 동북아의 길이 바르게 준비되도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교 교재 개발에 함께하는 10여 명의 선교사님에게 지혜 주시고 상반기 내에 잘 준비되어 선교에 귀히 사용되도록</li> <li>· 매일의 삶에 기쁨이 넘쳐 함께하는 분들에게 선한 영향이 나타나도록</li> <li>· 선교사 부부가 영육 간에 강건하여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쓰임을 받도록</li> <li>· C 국에서 Q.T와 일대일을 확장하고 있는 교회들과 단체에 부흥이 일어나도록</li> </ul>
<p><b>국내</b></p> <p>방갈렘 홍수아</p>	<p>선교훈련 사역 가운데 성결함과 성실함으로 맡겨진 사역 감당하도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교사 지원생과 선교사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통로 되도록</li> <li>· 갈렘 선교사가 훈련 사역과 목회학 석사 학업에 균형을 잘 이루도록</li> <li>· 갈렘 선교사 아버지의 어깨 탈골로 인한 인대 파열이 속히 회복되고 안정 되도록</li> </ul>
<p><b>국내</b></p> <p>제찌은 김세라</p>	<p>본부 사역(TIM 기획동원)을 잘 감당하도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로 인해 일어난 크고 급격한 변화 가운데 세상과 세대의 변화를 영적 분별력으로 대응하며 주도해 나가는 가정이 되도록</li> <li>· 우리 가정을 통해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어루만지는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예배, 상담, 사회복지)</li> <li>· 매일 등교하는 자녀들(6, 3학년)을 보호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잘 자라나도록(둘째:성조숙증 치료(작년 말~), 피부/비염 알레르기)</li> </ul>
<p><b>국내</b></p> <p>조수아 이사라</p>	<p>본부 사역(MK/기획동원팀)을 잘 섬기도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대일 동반자 Charles와 원격 줌으로 말씀 공부하는 동북아 한족 Z선생이 주님을 알아가며 성장하도록</li> <li>· 통전적인 복음(복음과 사회변혁)을 향한 발걸음에 열매를 주시도록</li> <li>· 첫째가 졸업 후(5월초) 직장생활을 잘 하도록</li> <li>· 둘째가 여름 인턴생활에 잘 적응하며 소명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li> </ul>

## 국내

## 김남수 · 이덕신

기도에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도록

사랑하는 동역자님, 지난 2월 파푸아뉴기니의 초대 수상이었던 마이클 쏘마레 추장이 서거했습니다. 온 나라가 두 주 동안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온 국민이 슬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지도자의 죽음은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나라를 주께서 보호해주시고 다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비거주로 PNG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마다 한두 달 정도는 방문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코로나19로 갈 수 없었습니다. 속히 상황이 호전되어 올해 꼭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사역들에 꽤나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파푸아뉴기니의 인터넷 사정으로 현지 사역자들을 만나는 데 가슴을 졸이곤 합니다. 최근에 인터넷으로 세 부족 6명의 주 사역자들과 잠깐이지만 얼굴도 보고,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인터넷 문제로 결국 기도제목은 전화로 나누어야 했습니다. 한동안 개인적인 일들로 인해 사역을 중단하고 있던 나라 부족의 알리 형제가 나와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번역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참 감사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즐겁게 일하며 울고, 웃었던 시간이 그립습니다. 이들의 컴퓨터 번역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가족들을 돌보면서 사역을 하느라고 힘든 상황이 많이 있지만 이들이 신실하게 번역을 해나가고, 각 부족의 지도자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각 부족의 동역자들이 열심히 성경 번역 중인데, 와이마 부족의 이꾸뿌는 여호수아의 수정작업을 마치고 「사사기」를 시작했고, 우꼬도 「신명기」의 후반부를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나라 부족의 아우아는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를 마치고 「디모데후서」를 하고 있습니다. 알리도 한동안 중단했던 「사도행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라 부족의 성경번역위원회장인 지미가 병원에 몇 달째 입원 중이라는 소

식을 들었습니다. 번역팀을 열심히 돕는 귀한 형제인데 주께서 치료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바디 부족도 모레아와 마오니가 「마태복음」, 「요한복음」의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 마을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주께서 사람을 일으키시고 상황을 변화시키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라 부족의 성경 점검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의 자문 점검을 마치고, 「골로새서」를 시작했습니다. 파푸아뉴기니 세 부족의 번역 일을 하면서 병행하는 일 중 하나는 다른 선교사님이 번역한 내용을 자문 점검하는 일인데, 파푸아뉴기니의 메라메라 부족의 「요한복음」을 자문 점검하는 일을 비대면으로 온라인 상에서 진행하였습니다.

GBT 본부의 사역은 본부 식구들이 함께 매일 아침 경건회를 시작하는 것부터 기도회, 해외사역팀의 회의, 멤버들과의 개인 만남, 나아가서 국제 회의까지 거의 모두 비대면으로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비대면 교육을 받기도 하고, 영적 충전을 위해서 말씀도 듣고 공부하는 것에도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골 4:2)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점점 더 혼란스럽고 변화가 빠른 이 세상 가운데서도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언제 길이 열려 사역지를 방문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세워 놓은 계획의 진행이나 결과를 알지 못해도,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해주시고 함께해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날마다 순간마다 주께서 응답해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 코로나19 상황을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이겨내는 동역자, 교회들 되도록
- 각 부족의 교회들과 개인이 말씀 안에서 강건하도록
- 6명의 주 번역자들과의 온라인 소통이 방해받지 않기를
- 어머니(인지장애)를 돌보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새 힘과 지혜 주시도록
- 연로한 가족과 사역 중인 자녀들의 가정을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도록

## 국내

### 바나바

### 한나

## 다문화 한 자녀와 한 다락방이 일대일 결연되어 영적 부모와 멘토가 되도록

- 하랑 어울림 합창단 연습(정기공연 합창, 댄스 연습, 주일 찬양팀 찬양 연습)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긍심을 살리는 계기가 되고, 아이들이 공연을 통하여 본인들도 복음을 전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 주일 소동아리 모임(기타, 피아노, PPT)을 통하여 참여하는 학생들이 본인의 소질을 계발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 주일 오후 가정 심방을 통해 아이들의 가정환경을 파악하여 정신적,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 평일과 주일 한국어교실에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고 한국어교실 소개를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데 많은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들이 한국어교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양육하여 세례 받을 수 있도록
- 주일 오후 한국어교실 안에서 <열방예배>를 드리려고 기획 중인데 선생님들과 성인,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며 잘 준비해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예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 하랑센터 차량 노후화로 고장이 잦아 아이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새로운 차량(스타렉스)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 저희 부부가 사역과 삶에 본이 되고, 자녀들이 학업에 열심을 내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국내

캐일럽  
크리스틴

말씀을 사모하며 깊은 기도로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 지나온 사역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깊은 감사를 드리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 가족 모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국내

윤충성  
김은유

부부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영적 싸움터에서 승리를 경험하도록

-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만 선교 비자 취득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대만에서 정착하는 과정 속에 은혜를 베풀어주시도록
- 대만에서 진행하는 '선교 동북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 대만 교회들과의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도록
- 전략팀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됨을 통해 사역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국내

김만철  
서흔주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더 깊은 영성을 사모하며 정진할 수 있도록
- 2021년 전반기에 카자흐스탄 파송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 출국 대기, 이동 중에 자녀들이 변화될 상황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 없이 기도 가운데 기대하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국내

박큰솔

'한반도 사이버평생교육원' 등록증이 나와 이방인을 위한 사역하도록

- 매일 10km 이상 걸으며 암과 투병하고 있는 아내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완전히 회복되어 아픈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 한글 문해교실이 다시 열리고, 난민사역도 다시 할 수 있도록
- 설립자이신 오 장로님의 건강이 회복되어 한반도 이평학교의 비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

조중환 · 임미경

국제적인 온라인 성경듣기 캠페인에 잘 참여하고 섬기도록

2021년 새봄,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해주신 덕분에 저희는 감사하게 안식년을 마치고 복귀하여 문안을 드립니다.

올해 사순절 기간 중 미국,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가나의 교회들이 연합으로 모여 원(One)캠페인을 시작하였고 한국에서는 안산 M미션 예배공동체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원 캠페인은 19년 FCBH의 본부가 있는 미국 집회에서 처음 소개된 것으로, 홍콩의 민주화 투쟁 중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 홍콩 지역 교회들이 성경 사복음서를 함께 들으면서 읽고 기도하자고 시작된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춘 한 해를 보내며 2021년 사순절 기간에 온라인으로 함께하자는 의견이 모였고, 특별히 국제 FCBH에서 개발한 Bible.is 앱에 있는 성경 듣기와 복음서 영화를 활용하게 되면서 저희 온바이블팀이 이 캠페인의 시작과 진행을 돕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연합 운동이 온라인으로 준비되고 진행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저희는 이렇게 안식년 복귀 후 계속되는 국내외 줌 미팅과 세미나 그리고 의사소통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OSOM(장기신임선교사 훈련)과 현장 선교사들을 위한 H2H(흠투흠)과 H2K(흠투킹덤) 과정에서 FCBH 사역의 전략과 비전을 나누는 것을 시작으로 선교 훈련 프로그램에 강의 훈련 요청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훈련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더 많은 지혜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기도제목

- 온바이블 팀(Korea FCBH)이 국제적인 온라인 성경듣기 캠페인에 잘 참여하고 섬길 수 있도록
- 5월 OSOM(장기신임선교사훈련)과 8월 H2H/H2K(선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과정에서 하계 될 강의를 잘 준비하고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국내

윤대근 · 신미아

파키스탄을 통한 주의 나라가 이슬람권 가운데 임하도록

지난봄, 이틀간의 온라인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150명 정도의 파키스탄 신학생들과 교수들이 참가했는데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파키스탄과 주변 이슬람 국가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교수진들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기회들을 계속해서 갖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파키스탄은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세계 다섯 번째로 많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파키스탄 성도들은 이란과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이슬람권의 언어와 문화가 유사하여 외국인 선교사들이 겪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 없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주변 이슬람권 국가들의 복음화는 오직 파키스탄 교회 성도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협력자로 파키스탄 성도들과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올 7월에 또 한 번의 파키스탄 온라인 선교포럼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매월 최대 기독교 도시 라호르에 있는 신학교들을 순회하며 WEC 국제선교동원 정기 기도회가 열립니다. WEC 국제선교동원 파키스탄 코디네이터로 섬기는 유샤프와심 목사와 윤대근 선교사가 파키스탄 교회와 신학교 선교동원과 선교운동을 일으키는 데 잘 협력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새롭게 사역이 개척되는 단계이고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지역인 만큼 현지 사역자인 유샤프와심 목사에게 세심한 지도와 멘토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재정후원으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선교 과업완수의 비전을 품고 오늘도 빛도 이름도 없이 섬기고 있는 WEC 국제선교동원 본부 선교사들을 위해 두 손 모아주십시오.

기도제목

- 6월 11일~12일(네팔), 21일~22일(아프리카-콩고, 코트디부아르, 가나)에 있을 목회자와 신학생 대상의 온라인 콘퍼런스를 위해 현지 목회자들과 잘 연합할 수 있도록
- 비서구권 신학생들과 진행 중인 소규모 대면사역을 통해 선교적 도전을 하도록
- 신미아 선교사가 영육 간에 강건하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 두 자녀가 날마다 그리스도 알아감을 사모하도록

## 국내

송바울  
양세비아

### 세 자녀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꾸며 인도함 받도록

- 먼 길 통학으로 자주 부어오르는 첫째의 목의 갑상선, 임파선과 척추 디스크(4, 5, 6번 사이)를 치료해주실 것과 둘째의 학업 성취, 셋째의 진로를 인도해주시도록
- 양세비아 선교사의 목 디스크(2, 3번)가 회복되며, 친정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건강하도록
- 송바울 선교사가 TIM 현장 조직의 지역적 선교전략 등 맡은 역할에 기쁨 부으심과 지혜, 성실의 열매가 맺히고 영육이 건강하도록

## 국내

김경찬  
이지혜

### 오직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 이슬, 단비처럼 메마른 곳을 묵묵히 적실 수 있도록(미가7:5)
- 차기 사역 방향의 때와 시기를 주님께서 인도해주시도록

## 국내

김순중  
소하은

### 본부 사역과 학업(신대원 2학기) 모두 잘 감당하도록

- 세 자녀가 온라인 수업 중인데 학교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 소하은 선교사가 치유와 회복을 통해 전능자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도록

## 국내

존  
그레이스

### 가족 모두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며 실천하는 삶을 이루도록

- 평택 M미션에서 청소년 다문화 합창단원을 모집 중인데 예비된 영혼들이 잘 모집되게 하시고 단원 모두가 일평생 여호와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도록
- 베트남 공동체 성경읽기가 줌으로 진행 중인데 많은 사람이 함께할 수 있도록
- 존 선교사와 둘째에게 건강과 지혜 부어주셔서 학업 잘 감당하며, 첫째가 병원 업무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늘 웃음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 되도록

<p><b>국내</b></p> <hr/> <p>허길 유진리</p>	<p>OSOM(장기 신임선교사 훈련)을 잘 섬기도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진리 선교사의 왼쪽 저림 증상이 잘 치료받도록</li> <li>· OSOM 훈련생들에게 은혜가 넘치도록</li> </ul>
<p><b>국내</b></p> <hr/> <p>조경근 브린다</p>	<p>선교 스쿨들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풍당과 연계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달 ON미디어스쿨 교육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미디어를 통하여 더욱 효과적인 사역에 도전하도록</li> <li>· KGLI 선교학 박사 과정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사역과 학업에 시간을 잘 관리하며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li> <li>· 첫째(고1)가 학업에 더 열심을 보이며 신앙 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li> <li>· 둘째(중2)도 꿈과 비전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도록</li> </ul>
<p><b>국내</b></p> <hr/> <p>이보라</p>	<p>기쁨으로 학업과 본부 사역에 임하고 맡은 일에 열심으로 임하도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히브리어 학업으로 성경 연구의 기초를 다지고 은사와 지혜를 허락해주시도록</li> <li>· 동역자들과 함께 연합할 때에 주님의 은유함을 배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으로 자라나도록</li> <li>· 영적 훈련에 게으르지 않고 기도와 말씀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지도록</li> </ul>
<p><b>국내</b></p> <hr/> <p>임선아</p>	<p>얼굴 피부염이 치료를 통해 깨끗하게 낫도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선교적 대화'를 통해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알리는 로잔운동이 힘 있게 퍼져가도록</li> <li>· '집중기도'운동(마21:22)으로 믿음의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도록</li> </ul>

국내

이생명 · 이샘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구별된 삶 살아가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아들의 특수학교 유예가 결정되었고, 이로 인해 아들이 기분 좋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명 선교사는 신대원 5학기 학업과 재능기부팀 섬김, 은퇴 선교사 상담 준비, 2000선교의 선교 플랫폼 On-Connect 헌신자들과 함께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 집중하고 있고, 샘물 선교사는 온누리 회복사역 관계기술프로그램 2년의 전 과정을 모두 마치고 아들의 간병을 하며 책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저희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깥 세상을 멀리하고, 여기저기 쌓여 있는 아들의 의료용품들과 튜브로 식사를 해야 하는 아들의 경관식(經管食) 우유 박스, 청소할 여유가 없어 쌓여 있는 먼지를 보며 문득 노아의 방주 속 일상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방주 안에서 370여 일을 지내며 뱃멀미에 시달리는 건 물론 늘 빛이 부족해 어두웠을 것입니다. 더욱이 밤낮 가리지 않는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공중에 날리는 털들까지 절대 쉽지 않은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로 인한 재앙을 생각해보는 때 방주는 구원의 장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픈 아들과 오랜 시간 거하게 된 팀하우스에서의 날들이 때로는 답답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을 방주 안에 넣으시고 보호하시고 정확한 때에 끌어내셔서 구원을 이루어내셨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노아의 본을 좇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이 허락하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시는지 경험하시는 매일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제목

- 아들이 24시간 온전히 자가 호흡할 수 있도록, 근조직과 뇌 기저핵 위축 병변이 회복되도록
- 생명 선교사가 사역과 학업을 통해 생명 살리는 축복의 통로 되도록
- 선교지 우즈베키스탄에 교회가 등록되고 영적 부흥의 역사가 임하도록
- 생명 선교사 부친의 전립선암과 폐암이, 샘물 선교사 오빠의 폐암이 회복되도록

<p><b>국내</b></p> <hr/> <p>김스데반 조희</p>	<p><b>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도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교회가 “2030년까지 10만 선교사 파송”의 비전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li> <li>· 중앙아시아에 있는 소망교회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li> <li>· 교회 등록을 위한 모든 준비 과정에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주시도록</li> <li>· 저희 가정 가운데 기도와 예배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도록</li> <li>· 세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li> </ul>
<p><b>국내</b></p> <hr/> <p>채필립 조이플</p>	<p><b>선교역사 자료관 설치 기획과 각종 선교역사 자료집 발간 등 말은 일을 빠르게 진행하도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째 부부와 캐나다에 있는 둘째가 믿음으로 장기적인 삶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li> <li>· 외손자가 말을 더 잘 배울 수 있도록</li> <li>· 동역하는 남윤조 선교사의 건강(허리, 무릎)이 온전히 회복되도록</li> <li>· 여러 질병으로 투병 중인 친인척, 친지, 동역자들에게 은혜 베풀어서 속히 치유되도록</li> </ul>
<p><b>국내</b></p> <hr/> <p>주마음 주사랑</p>	<p><b>인도하심 따라 사역 준비 잘 하도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마음 선교사의 허리가 안정되어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li> <li>· 계속 약해지는 양가 어머니들의 건강 지켜주시도록</li> </ul>
<p><b>국내</b></p> <hr/> <p>김솔람미</p>	<p><b>예배와 기도, 말씀을 통해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이 되도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국 사역(안식년)기간 동안 후원그룹과 가족과 지인들과 본부와 동료 선교사님들과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갖도록</li> </ul>

국내

박영환 · 윤유희

선교역사 기록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하도록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 14:18

이 기도편지를 쓰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오랫동안 함께 사역하던 다카AG 교회 에드윈 바로이 목사님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거하며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계 3:20 말씀처럼 마음의 문을 열면 임하시는 분이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현재 온누리교회 선교연구소 역사팀에서 선교역사 기록물을 PDF로 변환하여 관리하고 보존하는 작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음 세대에 남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일에는 『지식선교물(Knowledge Missions Mall)』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지식선교란 무엇이며, 선교사의 생활, 사역과 선교사 케어에 대한 적용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박영환 Jacob Park)을 통하여 전체 중 30개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계속 추가하여 올릴 예정입니다.

성령님의 기쁨 부으심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의 기쁨 부으심을 통하여 손을 뻗어 기도할 때마다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 손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입을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님께서 전도의 문(골 4:3)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성령님의 기쁨 부으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시는 공동체와 특히 자녀들 위에 흘러 넘쳐나길 기도드립니다.

기도제목

- 박영환 선교사가 온누리교회의 선교역사 자료를 정리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과 어떻게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을 여셨는지”(행14:27) 말씀에 기초를 두어 지혜를 주시도록
- 윤유희 선교사의 왼쪽 손 중지 마디 한 곳에 양성으로 보이는 물혹이 있어서 치료 중인데 수술까지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여 물혹이 깨끗하게 사라지도록
- 딸이 한동대 포항 기숙사에서 4학년 1학기를 지낼 때 시 37:4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국내

이훈  
오지영

늘푸른 가족 각자 개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골든서클'을 매일 확인하고 전인적 실천을 해가도록

- TCK WAVE(초문화적 MK제자 선교 운동)의 2021년 약속의 말씀 '말겨진 양떼를 잘 돌보고 모범이 되라!'(벧전 5:2)를 붙들고 리더들(현재 4명)이 청년 MK 한 명씩 '초문화적 제자'양육을 사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 매주 수요일 7:30~9:00 pm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복음으로 충전되다' 오아시스 줌에 '초문화적 제자'로 설 수 있는 MK/TCK 용사들을 성령께서 모아주시도록
- 매주 토요일 7:30~10:30pm '마스터 피스 코칭'4기 7명의 청년 MK/TCK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와 소명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이은자 코치님과 이훈 코치가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 첫째(고3)가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목표한 대학 진학 준비하는데 학업과 실기 준비를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본인의 열정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 둘째(고2)도 드론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셋째(중2)가 쥘스영어 T-Life 홈스쿨을 통해 엄마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 오지영 선교사의 목과 허리 초기 디스크와 불면증이 회복되도록
- 사역에 필요한 SUV 중고차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온누리에서 ON편지

—  
**동아시아**

동북아 이노아 · 오바다

성경 번역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부으시고 인도하시도록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금처럼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기다려지고,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함을 깨닫습니다. H강 상류의 도도히 흐르는 물살처럼 2021년의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저희는 동역자님의 기도 가운데 주께서 지시하신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T어 성경번역에 동역자들과 합심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여건과 속도가 지속된다면 내년에는 신약전서 번역이 완성되고 2023년에는 출판될 수 있습니다.

H어 전도서 번역 작업은 원문에 충실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통해 H 민족 가운데 있는 소수의 성도들이 힘을 얻고, 나아가 이 민족 전체가 ‘전도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창조자에게로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M어 번역팀 루시 선교사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주신 덕분에 종양 수와 크기가 30%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루시 선교사가 폐암으로부터 완전히 치료되고 체력을 회복하도록, 200만 M 민족을 위한 성경전서 번역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요. 온전한 말씀으로 M 민족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S어 예레미야 역문 점검이 최근 끝났고, 이것으로 12년간의 S어 민족 성경번역 자문사역은 마무리되었습니다. S 민족은 중앙아시아의 작은 민족으로 이슬람을 신봉하는 큰 민족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부분 샤머니즘을 따르는데 현재 기독교신자가 20~30명 있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전서가 전해지도록, 요새와 같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한편 얼마 전에 이노아 선교사는 위클리프 국제 연대 아시아-태평양 지역 번역 자문위원들 모임에서 “자문위원의 편견과 석의와 자문사역”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줌으로 30여 명의 자문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하였는데, 우리가 가진 언어와 문화, 신학적 편견을 극복하고 번역팀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고민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동역자님이 손 모아주시고 후원해주신 그 위로 주께서 봄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앞으로의 기도에도 기쁘게 응답하셔서 저 광야 같은 민족들 가운데 말씀의 잔치가 벌어질 것을 소망하고 신뢰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T 민족교회가 반드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H 민족교회는 온전한 말씀으로 강해져서 이웃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 기도제목

- T어 고린도 전후서 자문점검 예정인데,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T어로 다듬을 수 있도록
- Y 형제의 T어 잠언 초역에 기쁨부어주시고 그 후의 레위기 초역에도 함께해주시도록
- 오바다 선교사의 사사기 석의점검이 정확하게 잘 되고, 건강이 더욱 회복되도록
- T어 성경번역문으로 안전하게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과 시기를 인도해주시도록
-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 H어 번역팀이 계속 함께할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고통이 없어지도록

샬롬!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여전히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보면서 이 상황이 엄중함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동역자분들의 가정 가운데 안녕과 강건함이 있기를 두 손 모아 간구합니다.

저희는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발이 묶여 현장에 나가지 못하고, 일정한 주거지 없이 유랑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는 감사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있는 동역자들로부터 매일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함께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모두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 텐데, 안타까운 중보 기도 제목을 드려서 마음이 무겁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시기를, 따스한 남풍이 동토를 녹이는 봄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밝고 감사한 소식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우리 주님의 완전하신 샬롬이 동역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제목

-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어 그 땅으로 돌아가서 연약한 지체들을 섬길 수 있도록
- 봉쇄로 말미암아 북쪽 땅에서 90년대처럼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 결핵과 유선증, 부인질환으로 고통받는 D 지역 노동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 노동자들 치료를 위한 병원 알선과 진료 및 의약품 비용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 D 지역 동역자에게 차량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 S지역의 아픈 이들을 치료할 후원의 손길이 닿고, 무릎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치유하시도록

**동북아**

J · K 선교사

교육하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화 사역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 디스커버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꾸준히 참여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 양육 중인 현지인 부부가 그들 주변의 미전도 종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 중보 기도에도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북아**

S 선교사

온 가족이 주님을 더욱 깊게 찾고 순종하도록

- 첫째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둘째에게 믿음의 가정을 주시도록
- 코로나19로 마비되어 버린 세상 속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 상반기 수업이 잘 연결되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도록

**동북아**김삼열  
김은혜

교회개혁의 활로를 열어주시도록

- 가족 모두 건강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도록
- 양로원, 유치원과 전문 훈련장소 설립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 서남 소수민족 지역과 서부 이슬람 지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동북아**송바울  
최에스터

현지 교회에 일대일 성경공부와 큐티가 보급될 수 있도록

- 성경학습반 세 기수가 함께 모여 공부하며 각 교회에 일대일 성경공부와 큐티를 보급하도록
- 여러 사역의 현장에서 차세대를 위한 교육 학습반이 세워질 수 있도록
- 가족 모두 굳건한 신앙 안에서 강건하게 지내고 둘째가 대학과 비전을 명확하게 정하도록

**동북아**심요셉  
김한나

순회 사역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예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 동북아 곳곳을 이동하면서 일대일 양육을 진행 중인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도록
- 일대일 양육 사역이 순탄하게 잘 진행되고 준비된 영혼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 몽골

## 고엘리사 · 허에스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과 교직원 모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작년에는 연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도 예상치 못했던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온누리 교회의 귀한 지원으로 급박했던 순간을 무사히 넘기고 휴교 조치 중에도 35명의 학생들이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고교 졸업생들 전원이 말씀 양육을 통해 신앙을 고백하고 강물에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졸업생들이 세례를 받던 그날의 강가는,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그 때를 연상시키는 너무나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졸업생들 모두 장학금으로 몽골의 우수 대학에 진학하고, 한국 대학 진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난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학생들을 보는 것이 선교사이자 교장으로서 무엇보다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때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다시 큰 위기가 왔습니다. 6개월의 강력한 방역 비상조치로 많은 학부모들이 직장을 잃었고 물가 상승까지 겹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감염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2000명이 가까워지자 충격적인 계엄에 준하는 봉쇄 조치가 내려졌고, 저희 학교는 두 번째 휴교 조치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다시 수업료 미납 사태가 대거 발생하였는데, 정부에서는 수업료는 삭감하되 급여는 정상 지급 조치하라고 명령하면서 많은 사립 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1차 휴교 여파에 접친 2차 위기로 40여 명의 교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걱정과 내년까지 80% 완공을 준비하고 있는 B 캠퍼스의 남아 있는 공사 계약비 근심에 마음에 돌덩이를 눌러놓은 듯한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비상 긴축 운영으로 돌리느라 몇몇 직원을 해직시키면서 거의 실어증에 걸릴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참으로 20여 년의 사역 기간 중 가장 어려운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이곳의 어려움을 들으시고 신속히 지원을 결정해주시고, 비전 현금이 집행되도록 도와주셔서

---

서 감사합니다. 모든 교직원들이 마음의 짐을 덜고 한 해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고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언제 정상화가 이뤄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저희가 혼자가 아님을 다시금 깨닫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더욱 믿음으로 기도하며 버티고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생명력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몽골의 미래를 주님께 인도하는 학교가 되도록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

기도제목

-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어 학교 운영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가정을 위로해주시도록
  - B 캠퍼스 공사가 순적하게 잘 마무리되고, 함께하는 교직원들에게 새 힘을 부여주시도록
-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평안하신지요? 이곳은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임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Hybrid) 사역을 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좋은 전략과 방법을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순장들을 세우는 BDT(Basic Discipleship Training) 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이 훈련 가운데 기도와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캠퍼스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학생초청 전도모임(Friends Day)을 통해 믿지 않는 친구들을 한 사람씩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야외에서 캠퍼스 연합 리트릿을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형제, 자매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여름 단기선교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으로는 일본과 터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비록 직접 몸으로 가서 섬기지는 못하지만 복음 전파의 역사가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기도제목

-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순종하고, 사랑과 용서, 섬김과 감사가 넘치도록
- 고린도 전후서 연구와 공동체 성경읽기를 통해 풍성한 은혜, 지혜와 믿음을 더해주시도록
- 내년 사역과 방향에 대한 인도하심을 잘 받도록
- 군에 입대한 아들이 훈련을 잘 받고 믿음의 동료를 만나서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동북아**  
G 선교사

학업과 생활을 같이하는 형제, 자매들의 믿음이 강건해지도록

- 영육 간에 강건하고, 함께할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외롭지 않도록
- 록다운 이후, 학교에서 학업과 생활을 병행하는 형제, 자매들의 믿음이 강건해지도록

**몽골**  
Y 선교사

지방 사역을 위해 필요한 차량을 허락해주시도록

- 배우자를 인도해주시도록
- 교회에서 일대일 양육이 잘 진행되고, 모든 성도들이 큐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 비대면 온라인 예배 상황 중에서도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몽골**  
바나바  
조세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도록

- 안식년 동안 둘째, 셋째가 한국학교와 유치원에 잘 적응하고, 부모님들이 모두 건강하시도록
-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도록
- B 지역 현지인 사역자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도록

**동북아**  
수혜  
통가

현지 마을 순회 사역을 위해 건강을 회복시키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도록

- 큰아이의 입양 절차가 잘 진행되고, 대학 진학과 진로를 잘 결정할 수 있도록
- 현지 4개의 마을을 방문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 잘 진행되도록
- 통가 선교사의 심장질환을 고치시고 혈압을 안정시켜 주시며, 자녀도 건강하도록

영적으로 목마른 이들이 교회 사역을 통해 충만해지도록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를 후원하고 기도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몽골은 아직도 대면 모임이 어려워 온라인 예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마다 집에서 기숙사 학생들과 함께 어린이 예배를 위한 비디오를 찍습니다. 화요일에는 아침 큐티 시간을 인도하고, 토요일이 돌아오면 제자훈련학교 간사로 사역합니다. 매일 밤 9시에는 저를 포함한 14명의 사람이 몽골과 열방의 선교사들, 교회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시작한 지 벌써 5개월이 되어갑니다. 또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몇몇 성도들과 구약 성경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5층 아파트의 지하에 있는데, 요즘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코로나 19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새로 부임한 관리 책임자도 의심의 눈초리로 저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아파트 하수구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교회가 엉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둘러 바닥과 벽을 말리고 청소한 다음, 페인트를 칠하고 군데군데 수리도 진행해야 합니다. 교회 허가 신청서를 준비하던 중에 벌어진 일이라 더 걱정됩니다. 허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또 몽골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몽골에는 소규모의 무허가 교회가 많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모임이 어려운 상황이라 성도들이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데, TV와 휴대폰 앞에서 드러지는 예배가 지속될수록 은혜와 감동이 없는 방청석 예배가 될 것 같은 근심이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성도들이 게으른 신앙을 가지게 될까 봐 그 또한 걱정입니다.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좀 더 깨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해 성도들의 신앙을 많이 돌봤으면 합니다. 큰 역할을 해야 하는 목회자를 위해,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맡은 일을 순종하며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제가 더욱 필요한 일들을 하고, 교회가 여러 면에서 안정되길 소망합니다. 걱정하고 있는 일들이 모두 잘 풀리도록 기도해주세요. 저도 몽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 
- 기도제목
- 교회 허가를 받을 예정인데,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도록
  - 몽골 교회의 목회자들이 열심을 다하여 성도들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도록
  - 여자 기숙사생 제자 훈련과 교회 사역 가운데 기름부어주시도록
-

D 비전센터가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지고, 디도 선교사가 겸손한 목자가 되도록

평안하신지요? 뵤뵤 선교사는 목사 안수식을 1년 유예하기로 하고 3월 말 몽골로 돌아왔습니다. 디도 선교사는 4월 말에 목사 안수식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한국에 남기로 하였습니다. 1년을 기다려온 전세기를 놓칠 수 없었기에 디도 선교사와 기약도 없이 작별하고 홀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현실감 없이 마냥 들뜨고 설레기만 합니다.

몽골은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며 날마다 최다 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4월 이후에 다시 강력한 봉쇄를 실시하고 있어서 자가격리 기간이 지났음에도 D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어 D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돌아가면 지난 15년 동안 훈련된 J교회의 지체들과 선교 몽골의 꿈을 꾸며 교회 개척과 제자 양육 및 선교사 훈련을 위한 비전센터를 세우려고 합니다. 건립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있지만 재정과 헌신자를 마저 채우기 위해 더욱 기도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한국에 홀로 남은 디도 선교사는 4월 말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축하할 수는 없어도, 마음으로 축복해주시고 전심으로 양들을 돌보고 섬기는 겸손한 목자가 되도록 중보해주시시오. 언제 어디서든 복음 증거자로 사는 길은 가슴이 뛰는 기적을 보는 삶입니다. 저희와 같은 동일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동역자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 기도제목

- 지역 봉쇄가 해제되어 속히 D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 D 비전센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도록
- 디도 선교사가 전심으로 양들을 돌보고 섬기는 겸손한 목자가 되도록

## 몽골

C · E 선교사

###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로 잘 준비되고 성장하도록

- 첫째가 예비 선교사로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잘 준비해가도록
- 미국에서 결혼한 둘째의 영주권이 속히 나오도록
- 셋째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바른 신앙과 인성 교육을 할 수 있도록

## 몽골

데이비드

### 봉쇄 기간 동안 모이지 못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도록

-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져 통제가 완화되고 경제 상황이 개선되도록
- 성도들이 큐티, 온라인 예배와 소그룹 활동을 통해 더욱 성장하도록
- 새로 이사할 집을 잘 구하고, 번역 업무와 사역에도 새로운 활기를 주시도록

## 대만

정웅규  
임난주

### 선교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도록

- 대만 목회자들과 네트워크 형성이 잘 되고 중화복음신학교 교수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 중화복음신학교에서 맡은 선교학 강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 대만

한걸  
사랑

### 선교를 위한 네트워크 사역의 토대를 잘 닦을 수 있도록

- 동역하는 단장 교회와 학생 사역을 잘 섬기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지혜를 주시도록
- 두 아이가 새로운 환경과 언어에 적응할 용기를 갖고 예배와 소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대만

노효종 · 김희정

영성훈련센터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성이 회복되도록

임자내장로교회는 1911년 5명의 신자들이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하여, 1963년 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1994년까지도 20명 정도의 노인 성도들이 계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농촌의 지역 특성상 중학교부터는 읍 지역으로 나가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고향에 남아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임한 현지인 목사님께서 인근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들을 모아 식사를 제공하면서 방과 후 학습, 음악과 신앙으로 어린이들을 양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른들과는 날마다 1시간 반가량 성경을 읽고 설명해주는 사역을 하셨는데 이 일을 25년째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결과 훌륭한 청년 헌신자들이 35명이 나왔고 이들이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하는데 최근에 84명의 초등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결단하는 놀랍고 특별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임자내장로교회에서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사역자가 필요한 곳에서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과 후에 어린 학생들을 학교에서부터 데리고 와서 교회와 부속건물에서 학습과 신앙지도, 예능활동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교사 두 분과, 전도사님 부부 네 사람이 하면서 돕는 사람의 손길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역을 도우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임자내장로교회는 대만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 교회 뒷산에 영성센터를 세우고 있는데 곧 완공될 예정입니다. 저는 영성훈련센터 사역을 위한 행정, 과정 안내, 관리 등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역을 기대해봅니다.

기도제목

-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에 필요한 인원들이 모두 채워지도록
- 영성훈련센터 사역을 통해 많은 기독인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도록

## 대만

## 김바울 · 손애희

선교동북아 사역을 위한 기반을 충실하게 다져가도록

안녕하세요. 김바울 선교사입니다. 저희 가정은 3월 15일 비자신청이 허가되어 4월 1일 만우절 날 거짓말처럼 다시 대만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대만과 동북아권에서 선교 동북아 사역을 통해 전 세계에 남은 200여 소수 종족 중 3분의 1가량의 동북아 내지 소수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기도와 동역 부탁드립니다.

대만에 들어오는 과정이 코로나19 이후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가족 모두 진단검사를 받았고 2주간 격리 기간도 거쳤습니다. 격리 해제 후, 선교동북아 사역을 위한 선교사 훈련과 파송, 지원 등 구체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큐티, 일대일 양육, 아버지학교, 선교훈련 등의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대만 교회를 지원하여 대만 교회가 이 시대의 선교적 사명을 주도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대학교, 덕림대학교의 대학생들 중에 선교 헌신자를 발굴하고 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영상 기도편지를 첨부하오니 보시고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mgF77vQgGN0>



## 기도제목

- 고난 중에 있는 동북아교회가 환난을 이겨내며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 H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축복받는 민족이 되도록
- 대만 사역을 통해 선교동북아 사역이 펼쳐지며 온전한 연합과 동역이 있도록
- 코로나19로 인한 사역적, 재정적 어려움들을 이겨낼 믿음과 은혜를 주시도록
- 홈스쿨 중인 첫째와 둘째가 열방을 섬기는 자녀로 자라며 막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17

안녕하세요? 후쿠오카에서 문안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19는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산과 들에 꽃이 피어 있어 사람들의 마음도 들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끝나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예전처럼 함께 즐겁게 식사도 하며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최근 카와이 상과 딸, 모모코 상이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운전해서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건강하지 않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열심으로 먼 길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온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 이상으로 그분들의 영적 갈급함이 얼마나 큰지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기보다 현세 중심의 사고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죄 없는 깨끗한 삶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보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대다수는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개인주의가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만남을 더욱 그리워하고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아 코로나19 이후에는 복음의 선한 열매들이 맺게 되리라 기대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일본 사람들이 잘 깨닫게 되면 이후 일본은 더욱더 겸손해지고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나라로 발돋움하리라 기대합니다.

최근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 선교사들을 위한 온라인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웃리치 활동이 전혀 없었기에 마련한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기도회였지만 뜨

거웠고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참석하셨고 많은 성도님들의 응원 가운데 기도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외부활동에 제한이 있기에 저절로 말씀과 기도에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주한 가운데 성경을 깊이 묵상하거나 연구할 시간이 부족하였으나 이 기간을 통해 구약성경을 새롭게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홀했던 부분들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선교사들이 이 기회를 통해 영적 부흥을 준비하여 새로운 도약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가 더 밝게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등불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도제목

- 프레이즈란도교회의 예배가 찬양과 말씀 가운데 더욱 성령 충만하도록
- 오오시마 섬과 지노시마 섬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예배드릴 장소가 마련되도록
- 일본 대학생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허락해주셔서 그들을 제자로 양육할 수 있도록
- 무나카타 지역 교회들 간 강단 교류 협력이 잘 진행되도록

일본

이준수 · 박용희

질병을 이기는 삶을 살고, 아픈 곳이 온전히 치유되도록

살림! 일본 후쿠오카현의 쿠로메시에서 사역 중인 이준수, 박용희 선교사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당황스럽고 정신없는 일들을 겪느라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서야 제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1월, 몸에 이상을 느끼고 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간암으로 판명되었고, 지난 2월 10일 급하게 간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일본 선교사로 파송되어 사역한 지 13년이 지났는데, 간암 판정을 받았을 때는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도 했어요. 이제는 생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겠다고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생명을 15년 연장해준 분이심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며 꼭 붙드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곳의 병원에서는 수술할 수가 없다고 해서 1200km 떨어진 도쿄의 어느 병원에서 간의 40%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중보자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 하셔서 어려운 수술을 무사히 잘 마쳤고,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 주변에 기도의 중보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도의를 말이 암과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간암은 암 중에 재발할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치료와 운동, 섭식 관리를 병행하며 암에 대항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만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통증이 남아 있어 움직이기가 어렵지만, 서서히 통증이 나아지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사역은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방학 아닌 방학을 하고 있기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으로 인해 제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기도제목

- 낙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 암이 재발하지 않고 합병증이 생기지 않아서 온전히 치유되고 건강을 되찾도록
- 치료에 필요한 재정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도록

## 일본

허귀재

## 혼란한 시기에 더욱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주시도록
- 올해의 사역에 지혜를 주시며 기쁨 부으시고 지경을 넓히시도록
- 매일매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 일본

김인경

## 매일 주님과 친밀함이 깊어지고, 말씀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 현지 협력교회와 대학 청년 헌신자들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고 사역이 더욱 확장되도록
- 허리 이상 증세와 어깨 힘줄 파열 등을 온전히 고쳐주셔서 강건케 되도록

## 일본

이도현  
오은주

## 일본 현지교회 사역을 인도해주시도록

- 맡겨주신 선교 사명을 믿음과 순종으로 감당하도록
- 이치카와복음기독교회의 사역이 일본 땅에 계속하여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통로가 되도록
- 관동 전략팀에 속한 선교사님 네 가정이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 일본

유소망  
안은혜

## 디아스포라 동북아인 사역을 통해 많은 이들을 전도하도록

- 늘 성령 충만하여 깨어 기도하고, 건강 관리와 일본어 공부도 잘 하도록
- 오사카온누리교회의 동북아 순을 잘 돌보고 일대일 양육을 통한 제자 훈련에 전념하도록

일본

임장백 · 손하임

매일의 사역에 감사의 열매가 넘치도록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지만 온라인으로 예배와 기도 모임을 갖고, 여러 새로운 형태로 사역을 진행하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조금이라도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하면서도 한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새 일들을 행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두 달에 한 번 갖는 선교 기도모임이 최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덕분에 영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초청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일본에서 사역하시고 지금은 연로하신, 선교사님들께서 여전히 뜨거운 열정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울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한평생을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쓰임 받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새삼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이 일평생 지속되기를 함께 기도해주시시오.

일본 WEC 국제선교회의 사역에 여러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과 협력, 선교 동원과 훈련, 그리고 다양한 새 사역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관서지역뿐만 아니라 동북지역까지 사역지를 넓히고, 사역을 위해 여러 나라에서 새로운 선교사님들이 일본으로 입국하실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된 변화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본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다는 건 때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삶과 사역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기도제목

- WEC 영입부서 동원사역을 통해 지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 교토 이찌바크카츠라교회의 사역과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 6월에 세례를 받을 막내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세 자녀 모두 건강한 정체성을 갖도록

## 일본

## 박성근 · 김인옥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잘 분별하여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한때 미국과 맞대고 있는 멕시코 국경 도시인 후아레스에서 1년 3개월 그리고 티후아나에서 1년 3개월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 교회의 목사들은 미국에서 오는 헌금을 받아 부족함 없이 생활하고 있었기에 기도회나 전도도 하지 않았고, 저희가 성도들에게 큐티나 일대일 등의 사역을 하려고 해도 거절하였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푸에블라찬양가족센터교회에서 루시오 목사와 수니 전도사 등 사역자들을 보내 주었고, 그들은 대면 및 비대면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산미겔 데 에스페호의 개척교회에는 로베르토 형제를 보내주어 10개월째 사역을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듣는 이들과 가족들이 구원을 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세 번째 일본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신청을 한 끝에 드디어 처음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일본 정부의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한국의 일본 영사관에서 아직 비자 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야 외국인의 입국이 가능해져서 비자업무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에 일본 입국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중보 기도의 수고와 사랑의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선교 동역자님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 기도제목

- 후안 마르틴 목사가 푸에블라선교센터 관리를 맡아줄 헌신자를 잘 찾을 수 있도록
- 히메네스의 가족과 카리나가 구원을 받고 사론의 꽃 교회에서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 이치가와복음그리스도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속히 일본 비자업무가 재개되도록
- 목사인 아들과 딸의 가족들이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많은 일본의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일본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 등에 긴급사태선포가 이루어졌지만 해제와 선포를 반복하며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23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도쿄 올림픽을 위해서 외국인 입국과 신규 비자 업무도 모두 중지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까지 늦어지고 있어서, 비자업무가 재개되거나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최근 큰 지진의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3월은 동일본대지진 10년이 되는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피해지역을 방문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복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상실감과 정서적인 상처, 남아 계시는 노인들의 고독사, 고향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등 산적한 문제가 있으며 특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문제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사 후 협력교회 청소년들과 예배를 드린 뒤 개인 면담시간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비대면으로 주일 저녁에 시네마 타임을 갖고 학생들과 먼저 교감을 나누며 성경공부와 큐티 나눔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역들 중에 만나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일본과 저희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기도제목

- 늘 성령님께 민감하고 깨어 기도하여 말씀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도록
- 매주일 저녁 비대면 영상 모임을 통해 교회 청소년들과 신뢰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도록
- 장모님의 무릎 인공 관절 수술 일정이 속히 정해지도록
- 믿음을 갖지 못한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할 수 있도록

**일본**나문채  
주미경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일본교회와 리더십들을 섬길 수 있도록

- 다시 일본으로 들어갔을 때 거처할 장소를 인도해주시고,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도록
- BEE사역을 통해 목회자들이 영적 재생산의 기쁨을 체험하고 이를 통해 부흥이 일어나도록
- 나문채 선교사의 갑상선 기능과 간 수치를 회복시키시고,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도록
- 주미경 선교사의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어 부부가 속히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 어머니의 파킨슨병이 더 악화되지 않고, 천국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지내시도록
- 두 자녀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결혼을 인도해주시도록

**일본**김명훈  
주현경

일본에서의 언어와 문화적응이 잘 될 수 있도록

- 전략팀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더욱 사모함이 깊어지도록
- 이웃과 만나는 때를 놓치지 않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용납할 수 있도록
- 주현경 선교사의 알레르기와 습진을 치료하시고, 세 자녀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도록

**일본**

이철원

일본 사역 가운데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매일 커질 수 있도록
- 준비된 동역자로서 일본인 스태프를 만날 수 있도록

**일본**야마구치  
이혜경

예배를 통해 매일 믿음이 새로워지도록

- 모든 믿는 이의 삶이 예배로 새로워지도록
- 일본 교회 목회자들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교회들이 본질적으로 개혁되도록





온누리에서 ON편지

—  
**남아시아**

라오스

끼에우 · 프엉

교육을 통해 생명 되신 주님이 증거되도록

작년 7월 교회 내 방과 후 학교로 시작된 OCOS(One Class One School) 사역에 10월에는 축구 사역이 더해지고 올해 2월부터는 성경 공부가 더해져, “The school of life” 사역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섬길 현지 사역자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곳의 A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축구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최근에는 선교 단체 소속 현지 사역자를 코치로 불러주셨습니다. 3월에 시작한 축구 훈련에는 학생들이 40여 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성경 공부는 ‘슈퍼북(Superbook)’ 자료를 통해 진행됩니다. 애니메이션 형태라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목사님께서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줍니다. 하나님께서 A 교회 목사님께 사역의 지혜를 더해주시도록, 이 교회가 굳건히 뿌리내려 많은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지난해 말부터 프엉 선교사가 토요일마다 T 학생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주 열의를 갖고 열심히 배워 기본 코드의 찬양 한두 곡은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의 예배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주세요.

기도제목

- 학교 설립을 위한 OCOS 12회 연수 프로그램이 줌을 통해 진행되는데 준비된 사람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에서도 프엉 선교사가 지치지 않고, 현지어 학습과 사역 준비를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현지 유치원 레벨 1 과정 종강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도 첫째와 둘째가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가며, 복음과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도록

## 라오스

## 박은진

학원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3월 순적하게 학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오픈 전 라오스 협의회 리더들이 학원을 방문하여 많은 격려와 관심을 주셨습니다. 비록 저희가 광고도 많이 하지 못했고 특별한 오픈 행사도 없었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학생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재미있고 즐거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학원 사업에 필요한 한국어 교원 자격 2급을 받도록, 그리고 현지어를 잘 익힐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시골에는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시골 마을들을 방문하기에는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학원을 시작하면 시골에 있는 학교와 연계해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가 한 시골 학교를 방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그 동역자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복음이 없는 곳으로 나아갈 길이 열리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도제목

- 학생들을 재미있게 가르치고 사랑으로 잘 돌볼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을 주셔서 학원이 복음(굿 뉴스) 센터가 되도록
- 한국과 동북아에서 들어올 교사들의 입국 시기와 서류 준비,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등 상황을 순적하게 열어주시도록
- 컴퓨터와 영어 또는 동북아어를 할 수 있는 좋은 직원을 보내주시도록
- 작은오빠가 극초단파로 간암 치료 중인데, 속히 낫게 해주시고 큰오빠 가정이 구원받도록

이곳은 지금도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마스크를 쓴 일부의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전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네 가정이 함께 W 지역 리서치를 했습니다. 가기 전에 주님께 A족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A족 선생님을 만나게 하셔서 좋은 다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시작한 한국어 공부는 8명으로 불어나 함께 공부하다가 지금은 3명의 학생이 남았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의 접촉점으로 시작한 한국어 공부이기에 C2C 전도법을 사용해 현지어로 복음을 나누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3명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근래에는 집에서 가까운 현지인 교회에 참석하면서 교회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이곳은 동북아 교회처럼 제한적 방법으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전체 인구 700만인 아주 작은 나라다 보니 외국인이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지 교단은 한 개만 존재합니다. 동네에는 한국의 동장과 같은 라이반이 있어서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통제합니다. 그래서 라이반에게 허락받은 현지 교회와 협력하여 전도와 양육, 교회 개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만나도록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만나게 하신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도로 올려드리고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 제가 이곳에서 할 일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직 언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복음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알게 된 영혼들에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단기 사역자와 동북아에서 오는 자매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적하게 오도록
- 대학에 입학한 두 자녀의 숙소가 해결되고 생활비 등의 재정이 풍족히 공급되도록
- 뇌혈관 수술 후 의식이 없으신 김샘물 선교사 어머니의 회복과 아버지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라오스**  
J 선교사

비자와 비행기 스케줄 등 현지 파송 계획이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 성령 충만하고 중보 후원자들과 늘 좋은 교제를 나누도록

**라오스**  
전아굴라 박브리스가

예비해주신 N 지역으로 하반기에 이사할 수 있도록

- F 자매와 2명의 자매간의 일대일 만남 가운데 기쁨 부어주시도록
- 현지어를 잘 익혀서 기도하고 사역에 잘 쓰임받도록
- 학원에 필요한 단기 선생님들의 입국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네팔**  
김영미

국제 개발 협력 공부를 통해 현지 사역에 필요한 지혜를 얻도록

- C 지역에서 시작하는 사역을 인도해주시고 동역자들을 지켜주시도록
- 팔에 생긴 피부 알레르기가 속히 낫고 학생 비자를 무사히 받도록

**네팔**  
S · M 선교사

이스라엘 비자가 나와 현지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 FNS 장학생들(현지 성경 번역가 및 대학생 자녀들)이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 9월 중 사역지로 돌아가 잘 적응하고 번역 컨설팅과 현지어 습득에 지혜를 주시도록
- 가족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늘 평강을 누리도록

**인도**  
바울 조이

비즈니스 비자 신청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도록

- 백신 접종이 잘 이뤄져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 9명의 현지 신학생과 7명 양육자의 일대일 교제와 양육이 잘 이뤄지도록
- 현지인 목회자 여섯 가정과 비영리 법인 설립이 잘 진행되도록

라오스

정온유 · 최열매

학원이 A족 사역에 귀한 플랫폼으로 사용되도록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태복음 13:32)의 말씀으로 학원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처럼 작은 씨앗이 이 땅에 심어져 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세워나가는 센터가 되도록 손 모아주시요. 그리고 행정 직원이 좀처럼 구해지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저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오픈 전 공무에 관련된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데 주님을 모르는 자매이기에 복음을 나눌 기회를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R 지역의 5개 군 안에 있는 A족을 섬길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셔서 저희는 마을을 돌아보며 어떻게 접촉하며 문을 열어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곳은 주로 동북아인들이 사탕수수, 바나나, 카사바를 대단위로 재배하여 동북아인들과 일하기 위해 동북아어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초등학교 이후 꿈이 없어 진학하기를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고 더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3시간 떨어져 있는 주도로 나와 부모와 떨어져 지속하면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주신 학원을 통해 마을 안 학교와 연결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면 도시로 나가지 못한 아이들이 동북아어와 영어를 배울 기회를 갖고 꿈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문을 열어주시길, 그리고 A족 B 형제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소망의 끈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기도제목

- 가족 모두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음성을 따라 살아가도록
- 학원에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사랑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현지 영어 선생님이 세워지도록
- 영어 선생님의 현지 적응 및 언어 습득에 성령께서 함께해주시도록

## 미안마

## 이상오 · 박선희

미안마 국민들이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하도록 힘을 주시기를

밍글라바! 평안하신지요? 사태가 발생한 지 몇 달이 지나고 군경의 총격으로 희생된 국민이 수백 명을 넘었습니다. 군경의 수시 순찰과 시민 불복종운동 참여자 색출 체포 작전으로 소규모 시위마저 위축된 상황입니다. 많은 사망자가 나오게 되는 것은 군경이 유탄 발사를 비롯한 중화기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있는 지역에도 며칠 전 밤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다음날 소식을 들으니 스무 살 청년 한 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청년이 피격된 장소에는 장미꽃이 놓여 말없이 희생자를 기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3월까지만 해도 하루 현금지급기 인출 금액이 평상시의 50%가 유지되었는데 4월에는 5분의 1로 낮춰졌습니다. 인출 금액이 있어도 현금이 떨어져 인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매달 사역과 생활에 필요한 현금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데 유일한 통로인 현금지급기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터넷 상황도 모바일 데이터 차단에 이어 현재는 와이파이가까지 차단되었습니다. 유일한 인터넷 선으로 연결된 인터넷은 오전 1시~오전 9시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데이터와 와이파이를 주로 사용하던 저희들은 인터넷이 되는 특정 장소를 가야 국내외 소식을 접하고 소통도 할 수 있어 여러모로 제한이 많습니다.

얼마 전 군부에서는 1년 이내 재선거에서 2년 안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발표하면서 비상상태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길어질수록 국민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절실한 요즘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 기도제목
- 거주 비자 연장을 했는데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 첫째가 달란트를 잘 발견하고 잘 맞는 분야로 진학할 수 있도록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17

함께 기도해주셔서 Y 지역에 잘 도착했습니다. 쿠데타로 인한 공항 폐쇄와 항공 운행이 연기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출국 날짜가 변경되고 현지의 혼란스러움이 뉴스를 통해 알려졌지만 길을 여셨으니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1년 만에 밝게 되는 땅입니다. 다시 현장으로 불러주심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혼란스럽고 사사의 시대처럼 시끄럽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사업하시는 집사님을 통해서 트럭을 타고 10시간을 달려 전에 살던 I 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등버스가 다니지만 군인들이 검문을 해서 외국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I 지역의 Y 교회를 방문해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장과 예배의 자리를 지킨 모습을 보며 여전히 일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Y 목사님과 현지 교회들이 순회로 사역하는 성경 공부에 저희 가정이 함께할 예정인데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발걸음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우기를 대비해 Y 교회의 진입로 등 건축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 기도제목
- 현지어 습득에 지혜를 주시도록
  - 이동성경학교 사역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 두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도록
-

**인도**  
존 데이비드

**11개의 그룹 리더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도록**

- 자녀가 공부를 잘 마무리하고 적합한 직업을 찾도록
-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도록

**말레이시아**  
이야고보  
루디아

**대장암 수술받은 T 교회 K 목사님께 치유의 은혜를 주시도록**

- 이야고보 선교사에게 새로운 사역을 맡겨주실 때 감사함으로 순종하도록
- 루디아 선교사가 국제본부 기도 코드 팀장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고 순적하게 인계하도록

**말레이시아**  
C · M 선교사

**신학교 학생들이 영어 성경공부와 제자훈련을 잘 받아 제자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 T 교회 성도들이 성경 공부하고자 하는 소원이 더욱 간절해질 수 있도록
- C 선교사의 헬러어 온라인 강의를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말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캄보디아**  
A 선교사

**현지 교회와 학교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심을 받도록**

- 구원자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잃지 않도록
- K 교회에 새로운 목회자가 오도록
- 임시 휴교 조치로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건강하도록
-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휴교 상황에서도 워크시트를 잘 만들도록
- 사역하는 단체가 NGO MOU 연장을 외무부·노동부와 진행하는데 지혜를 주셔서 잘 마치도록

**캄보디아**  
김샤야  
최마리아

**S 선교센터가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 선교센터 장학생들이 교회의 리더로 잘 성장하도록
- 첫째가 폐렴과 패혈증 쇼크로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과 시술을 병행하고 있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회복시켜주시도록
- 간호하는 최마리아 선교사가 체력적으로 힘든편 지치지 않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잘 돌보도록

캄보디아

B · K 선교사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함을 기억하며 복음 전파의 기회를 허락해주시도록

샬롬! 동역자님들 반갑습니다.

한국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적지만 한국에 비해 의료진의 수준이 떨어지고, 의료시스템이 많이 약한 이 나라는 큰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에는 없었던 요구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멘토, 동역자, 친구들, 제자들까지 많은 사랑과 격려,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몸이 불편함에도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더 큰 힘을 부어주심을 느낍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며 삶을 돌아보며 모든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며 다짐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가족사진을 찍으며 부모를 떠나보내는 마음에 엄마를 안으며 눈시울을 붉히던 둘째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남아 있는 자녀들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동역자분들께 감사드리며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 하나님과 동행하여 항상 깨어 있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부가 되도록
- 함께 사역할 국제의료협력단(PMCI)에서 섬기는 자로 의를 드러내지 않고 현지의 선교사들과 잘 소통하도록
- 이동 진료 시 찾아오는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도록
- 두 자녀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앞으로의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 B 선교사의 다리 장애가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K 선교사의 녹내장이 악화되지 않도록

샬롬! 평안하십니까? 드디어 신학교에 신입생들이 오고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각 과목을 맡은 선생님들의 건강과 사정에 따라 비대면과 대면 수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장기간 비대면 수업을 하며 아쉬운 부분이 많았기에, 신입생 12명을 대상으로 2주째 신약 과목 수업을 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무슬림 사역자들에 대한 이번 학기 양육은 통신 과정으로 진행 중입니다. 전체 강의안이 학생들에게 미리 발송되고 연습이 이루어진 가운데, 제가 총 12명의 학생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매주 약 30분 정도씩 신약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화상 비대면 수업을 진행할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진행을 해보니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일대일로 진행이 되어, 그룹으로 하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보다는 훨씬 더 각각의 학생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협력 사역을 시작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과 교회의 목회 철학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악한 세력의 방해도 많은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대면 콘텐츠로 ‘공동체 성경 읽기’ 현지어 버전의 신약 본문을 먼저 제작하기 위해 텍스트, 오디오, 그림 등 저작권을 가진 기관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일의 진행이 수월하지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땅의 영혼들에게 매우 유익한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행되는 사역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따라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통해 영혼들이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도록 중보해주시시오.

- 기도제목
- 이 땅의 영혼들을 붙들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시도록
  - 온 가족이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며 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꿈을 갖고 자라가도록
  - 영적으로 유익한 비대면 콘텐츠 제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도 늘어가도록

3월에 코로나19 집합 금지명령이 해제되고, 기숙사 학생 예배와 성경 공부 모임도 재개되었습니다. 현지 대학에 들어가면 이 나라의 중요한 사회주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믿음이 연약한 학생들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 기숙 공동체 생활을 통해 함께 거주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도록 함께 기도로 격려해주세요.

지난해 5월 두 명의 현지 스태프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소규모 모임을 진행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같은 스토리에 화색을 띠며 놀란 반응을 보이기도 하다가, 인간의 죄성,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천국과 지옥 메시지 앞에서 딱딱하게 굳어 있는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라’라는 말씀을 붙들고 인내와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모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 현지 스태프와 매주 월요 모임을 위해 간절한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S와 H의 마음을 사랑으로 만져주셔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도록 함께 손 모아주십시오. 또 모임을 준비하는 저희 부부와 현지 사역자 U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모든 모임 순서마다 성령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야학의 아이들은 호적이 없고 가난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낮에 거리로 나가 복권을 팔거나 어른의 돌봄이 없이 그냥 방치돼 있어 위기 상황에 많이 노출됩니다. 최근 8세 여아가 유기견에게 물렸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돈을 못 내는 상황이라 대신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5주 동안 5번을 나누어 접종을 받아야 하는데, 이 기간에 이상 반응 없이 아이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 계층인 이곳 아이들을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지켜주시길 기도해주세요.

#### 기도제목

- 정갈렘 선교사가 사역 언어를 시작하는데 지혜를 더해주시고, 공안 감시로부터 안전하게 지방 교회들을 방문하도록
- 재개된 학사 사역 모임에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로 가득 차도록

### 캄보디아

H · J 선교사

#### 근로자를 위한 교회 개척에 합한 사람과 장소를 예비해주시도록

- 가정 예배와 인터넷을 통한 사역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J 교회 예배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 아이들과 청년 예배를 위해 교인 성경 공부가 잘 진행되도록
- 첫째의 처소를 예비해주시고 둘째의 군 생활을 지켜주시고 셋째에게 체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 캄보디아

Paul  
Y 선교사

#### 청년들과 어린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 가난한 과부 M의 집을 다른 사람이 자기 소유 주장을 하는 토지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 P의 아내가 골반을 다쳐 누워 있는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 테필린 성경 암송 진행과 영상작업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 세 자녀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앞날을 열어 주시도록

### 캄보디아

박성실  
양기쁨

#### 성경연구소 건물 건립을 위한 기도와 재정이 잘 연결되도록

-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교회와 목회자들이 사역을 잘 유지하도록
- 두 자녀가 한국에서 영육 간에 강건함으로 생활하도록
- 한국에서의 일정을 잘 보내고 충분한 쉼을 얻도록

### 캄보디아

박민음  
함은혜

#### 어떤 사역을 할지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 교회에 더 많은 제한과 금지를 하려는 동북아의 시도를 막아주시도록
- 코로나19로 인해 모임과 전도를 할 수 없어 어려운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시도록
- 낙심하지 않고 현지어를 꾸준히 공부하도록

### 캄보디아

아굴라  
브리스길라

#### S 교회를 이끌어갈 좋은 현지 사역자를 세워주시도록

- 브리스길라 선교사 아버지의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고 선교사 부부도 영육 간 강건하도록
- S 망고와 한국 대기업과의 MOU가 잘 맺어지고 증설된 공장의 기계 세팅과 가동이 순조롭게 이뤄지며 새로 투입된 직원들이 훈련을 잘 받아 생산이 원활하도록
- 헤세드 재고 소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BAM 제품 유통의 좋은 모델이 되도록

스리랑카

김남수 · 정옥희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샬롬!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함께 부활의 소망을 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역자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는 여전히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지만,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 전 스리랑카 전역에서 발생했던 부활주일 폭탄 테러의 아픔이 채 가시지 않고 저희의 기억 속에 뚜렷이 남아 있지만, 이 땅에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성금요일 예배 때부터 교회나 성당 주위에는 군인과 경찰이 배치되어 지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4월 1일 저녁에는 새 친구들을 초대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부활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지체들과 예배를 준비하면서 초청한 친구들을 위해 매일 밤 10시에 주님께서 초청된 친구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발견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5명 자매가 함께 준비한 찬양 영상, P 자매의 간증, 막달라 마리아의 관점으로 만든 애니메이션 단편 비디오 「선택된 증인」과 복음 메시지를 전한 후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늘 이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는 동역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동역자님과 가정과 교회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제목

- 새 친구 초대할 시간을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아가페 하우스를 집주인 요청으로 비워주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주시도록
- 세 자녀의 학업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며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 스리랑카

## 한에녹 · 유니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도록

샬롬!

코로나19로 학생들을 정상적으로 대면하지 못한 것이 거의 1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사용법을 배우고 선생님들에게 가르치며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 학원 사역은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A 국제학교는 함께 사역하는 D 선생님 중심으로 다양한 온라인 수업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으며 진행하고 있으며 K 한국어학당은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신력 있는 수료증 제공을 위해 ‘세종학당’을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올해 비자법이 변경되어 EPS TOPIK과 더불어 ‘세종학당’에서 일정 기간 공부한 수료증이 공식적인 비자 발급의 서류로 채택되어 한국으로 유학을 꿈꾸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기간에 계속 만나 교제할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이들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었던 K 한국어 학당이 더 공신력 있는 기관이 되어 다양한 연령층의 현지인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업 시 특정 종교를 교육할 수 없기에 더욱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여전히 많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시대 온라인으로 많은 도움이 가능하니, 사역에 직간접적으로 함께하시고자 하는 동역자분들이 있으시면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제목

- 피곤하면 바로 통증이 시작되는 한에녹 선교사의 허리 디스크가 잘 회복되고 시간을 내어 계속 운동할 수 있도록
- 안식월을 맞아 한국에 들어가는 선생님을 대신해 함께할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살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힘드시겠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10)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늘 힘 주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한인 교민 사회에 확진자가 전보다 많아지고 있는데 정부가 외국인에게는 접종 기회를 주지 않아서 정책의 변화가 생기길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강경 이슬람의 테러 사태까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테러의 타깃이 교회와 관공서여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안전을 위해 중보해주시기 바랍니다.

C 센터는 3월 중순부터 아주 조심스럽게 가오픈을 했습니다. 2층 교육실에서 거리 두기가 가능한 소수의 인원으로 영어와 수학 수업을 주 1회로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수업들도 제한적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가 C 센터와 축구팀이 재오픈되기를 오래 기다려왔기에 완전 오픈을 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큼니다. 하루빨리 상황이 진정되어 아이들이 마음껏 왕래하며 뛰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온라인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준 참고서 1권이 전부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둘째가 지치지 않고 즐겁게 생활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는 호주 외국인 학생 비자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올 7월 학기에 들어가기를 기도하며 C 센터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입학이 늦어지더라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모두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기도제목

- 첫째의 호주 학생 비자가 주님의 때에 순전히 이루어지고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받아 선교사가 오른쪽 팔에 석회성 건염과 오십견으로 몇 달째 고생하고 있는데 통증이 사라지고 오른팔이 회복되도록

### 베트남

김소망  
신사랑

#### 베트남 북쪽의 모든 교회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도록

- 새로 개설한 센터의 20명의 학생들이 말씀 훈련에 집중하도록
- 세미나를 인도하는 목사님 부부가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부흥하도록
- 현지 총회와 교회 리더십들과 24명의 학생을 잘 섬기도록

### 베트남

시므온  
안나

#### 중남부 교사 세미나 투어를 건강하게 사고 없이 잘 마치고 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 날씨가 더워지면서 생긴 아이들의 피부 질환이 큰 문제 없이 여름을 넘길 수 있도록
- 주일학교 교재가 인쇄되면서 많은 교단과 교회들에서 교재 선주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교재를 더 추가로 인쇄할 비용이 채워지도록

### 베트남

정نش시  
조로이

#### 신학교를 통해 주님의 사역자들이 더욱 생길 수 있도록

-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주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 충만하도록
- 경찰의 감시를 피해 신학교 운영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 영육 간의 강건함 주시고 비자 문제, 복잡한 교통상황 등에서 안전과 보호하심이 있도록

### 스리랑카

권피터  
오지아

#### 함께 팀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 오지아 선교사의 산후 회복과 두 자녀가 건강하도록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현지와 학교의 교사, 직원, 학생, 학부모들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 가족이 스리랑카로 건강하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비자, 백신, 예방접종, 숙소, 짐 정리 등등)

### 스리랑카

Joseph  
추행란

#### 추행란 선교사가 산청 시골을 통해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 자녀가 어느 곳에서든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 U · Y 선교사

다음 걸음을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도록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마가복음 14:6) 한 여인이 옥함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은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는데 왜 허비하였느냐고 질책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시며 그녀가 한 일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값진 일이었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옥함을 깨뜨린 이 여인처럼 우리 삶의 여정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채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지난해 귀국해 U 선교사의 폐 진단 치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치료가 장기화되고 코로나19로 인해 돌아가는 길이 어려워지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였지만 생각해 보니 이때가 저희에게는 이곳에 있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1~2년 동안은 엘로피 사역 마무리와 U 선교사의 건강 회복, 그리고 지난 40년을 붙들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어보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엘로피 사역은 지난해 마무리되어야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일정이 1년 뒤로 미뤄졌습니다.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사역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퇴하려고 합니다. 사역 마무리는 왕래가 좀 더 자유로워졌을 때 엘로피 사람들과 둘러앉아 우리들의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작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그간 엘로피 사역을 위해 기도와 헌금으로 동역해온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무슨 말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주께 드릴 많은 열매 없으나 여러분이 함께하셨기에 주의 복음을 위해 한마음으로 지난 40여 년을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이 떠나더라도 엘로피 사역은 계속됩니다. 후임 선교사님 가정이 이미 지난 6년간 저희와 함께 사역해오고 있습니다. 계속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도제목 · 엘로피 백성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만나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 U 선교사의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

HD 형제는 뼈에 생긴 종양으로 왼쪽 다리가 코끼리 다리만큼 부어서 걷기는커녕 굽히지도 못할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전자침술과 약초로만 치유하는 대체의학 의원에서 4일간 치료를 받은 뒤 형제가 일어나 걸을 뿐 아니라 계단까지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HD 형제가 원치 않는 병이 들어 꼼짝을 못 하고 누워 있는 상황 속에서 옴의 시련을 목상하는 중에 인생의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 HD 형제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깊이 나눌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통과하여 깊어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SBS 센터는 공기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 일부러 담장에 구멍을 많이 내고 성인 어깨 높이로 만들었습니다. HD 형제의 조카 P에게 담장을 높이는 일을 맡겼는데 이 형제가 담장을 높일 뿐 아니라 멋진 예술작품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마을의 구경거리 및 포토존이 되었습니다. HD 형제는 담장에 아예 복음을 새겨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뒷마당 벽면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이곳 지역 언어로 적었고 이웃 사람들이 들어와 담장을 감상하며 쪽 걷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실업난이 심각해 노는 가장들이 많고 아내가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와 가사를 돌봐야 하는데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직장이 없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어 인형 공장을 경영하는 장로님께 부탁해 인형의 옷을 위탁생산하는 일을 했습니다. 한동안 적자경영을 해야 했지만, 동역자님은 금전적 손해를 구제헌금이라고 생각하며 8년째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분의 수고에 주께서 보답이라도 하는 듯, 공장에서 단가가 더 높은 인형 완제품을 만들 것을 제안해왔습니다. 그러면 흑자로 돌아설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깨달아 참된 기쁨을 맛볼 날이 오도록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기도제목
- HD 형제의 순조로운 치료를 위해
  - 기술자 P 형제와 HD 형제의 자녀, 사위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19가 한 해를 넘어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믿는 자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만든 백신을 접종 중입니다. 5월 말까지 2단계 접종으로 접종 대상이 3800만 명에 이른다지만, 총인구 2억 6000만 명에 비하면 부족하고 중국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있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역에 신경 쓰며 사역의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역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난해에 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 및 방과 후 학습, 사역자 숙소로 사용할 토지를 주셨습니다. 이곳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조급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계획보다 앞서나가는 일이 없도록 다짐했습니다. 토지를 정리하면서 우기 때문에 다 태우지 못하고 쌓아두었던 나무들을 더 깔끔히 정리하고자 하는 조급한 마음에 휘발유를 뿌리고 태우다가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역에 대한 무지와 조급한 마음이 하나님의 사역을 오히려 늦출 수가 있겠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곳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을 확신하며 믿고 따라가는 사역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한 성도님의 헌신으로 시작된 시골 지역 목회자들을 향한 구제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골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는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물품은 작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기도제목 · 계속되는 폭우에 몸이 힘들 때도 있는데 가족이 건강관리를 잘해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 매일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서 이 지역의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

## 스리랑카

이성희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 둘째 오빠의 암세포가 간의 한 부분에 반복적으로 재발하는데 깨끗하게 치료 해주시도록
- R 교회 제자 양육 훈련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고 현지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 R 마을 식수사업이 마을 사람들과 연합하여 순직히 진행되어 유익을 끼치도록

## 인도네시아

제자  
임재

###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무슬림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지 않고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 제자 선교사가 교제하고 있는 청년들과 성경 읽기 모임을 시작하도록
- 식당과 카페로 영업을 시작한 사업장 내의 믿지 않는 직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 가정이 하나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며 아버지 일하심을 목도하도록

## 인도네시아

소리엘  
소리샘

### 무슬림들이 복음의 비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말씀의 지혜를 주시기를

- 거짓 땅문서로 분쟁이 생긴 땅 문제가 2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주님이 간섭해주시도록
- 동역하는 김유니게 선교사님이 체장암 의심 진단을 받았는데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 두 자녀의 진료와 소리샘 선교사(임)와 둘째(1형 당뇨)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 인도네시아

Joseph  
H 선교사

### 전역에 흩어져 사역하고 있는 30명의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 S 지역에 2개의 교회가 잘 건축돼 지역 사회 변화와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도록
- S 지역 중부에 선교 기지를 구축하는 4헥타르의 땅과 후원자를 보내주시도록
- 10월까지 신학교 건축용으로 산 대지가 팔리고 새 지역에 땅을 구입해 내년부터 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 인도네시아

이기쁨  
문한나

### 함께 동역했던 시골교회와 도시 빈민가 목회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도록

- 본국 사역 시간 동안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에서 공부하는데 지혜를 주시도록
- 선교기관의 두 권역 리더로 선출되었는데 주의 마음을 따라 겸손하고 지혜롭게 감당하도록

태국

J 선교사 · 마리아

가족이 성령 충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한국에 잠깐 들어갔을 때 이 나라 정부에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바람에 한국에서 8개월을 지내고 지난해 12월 특별관광비자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B 지역 있는 한인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맡아 섬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몸은 바쁘지만 영적으로 더 깨어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희를 충성되게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인교회를 통해 우리 부부의 사명인 문화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가 만나게 된 것 중 하나는 ‘문화선교’라 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연극영화학과를 전공했고 저는 기독교 극단에서 사역한 경험이 있습니다. 종려주일에 모노드라마 「녹슨 세계의 못」을 공연했고 5월 전 세대 예배 때 저희 부부가 인형극으로 복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곳에서 인형극 사역을 하시는 선배 선교사님과의 교제와 협력을 통해서 인형극 사역의 장이 넓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배 선교사님과 함께 문화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이곳에 돌아오자마자 그동안 쉬었던 언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학원과 학교가 모두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였기에 저희도 온라인으로 언어 수업을 받았습니다. 현지어 실력에 진전이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J 선교사 목에 물혹이 있는데 온전히 회복되도록
- 마리아 선교사 유방 종양, 손목 건초염, 목 디스크가 회복되도록
- 한인교회에서 맡은 주일학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 언어에 기름 부으시어 태국어에 진보가 있게 하시고 성실히 공부하도록
- 자녀가 현지 학교에 잘 적응하고 신실한 어린이 선교사로 자라도록

쌈람지~ 믿음의 동역자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 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3월에는 친구 초청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20여 명의 새 친구가 참석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예배와 제자 훈련을 받는 삶을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했던 새 친구들이 이슬람 공화국 선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에 성령 충만한 삶과 사영리 소책자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훈련을 받았습니다.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3월부터 온라인 기도회를 격주 월요일에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지 방문과 단기선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기도하며 선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태권도 사역은 수요일과 토요일에 순모임과 스킵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새 친구들을 계속 보내주시고 전도집회에서 태권도팀의 스킵 드라마로 새 친구들이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태권도팀이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태권도 사역을 위해 한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간사님 가정의 비자와 현지 정착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무슬림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파키스탄에 사는 우리에게는 피상적인 무슬림이 아니라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이기에 각자 한 명의 무슬림 친구를 정해 라마단 기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 기도제목

- 예배를 위해 사운드 시스템과 건반, 드럼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세워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 연결된 새 친구들이 순모임과 채플과 순장 훈련을 통해 충성된 제자로 세워지도록
- S 학교에서 매주 금요일 격주로 예배와 순모임, 순장 훈련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학생님이 적극적으로 돕고 동역하게 하시고 간사들과 순장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 첫째의 2학기 학비가 채워지게 하시고 학비를 후원해줄 후원자가 세워지도록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시편 105:19

저희는 여전히 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정부 공무원들의 급여 인상 파업으로 연기되었고, 지금은 한국 사람들 전체 비자가 2주간 잠정 중단된다고 통보를 받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 시간이지만 능동적인 기다림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미션퍼스펙티브’ 과정을 마쳤고, 교회의 ‘와이미션’을 섬기며, 다시 들어가는 날을 위해 사이버대학에서 국가장학 혜택으로 실용 영어를 배우며 다시 사역하는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긴 기다림의 시간이 아브라함이 만난 기근으로 묵상되었습니다.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만을 주목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대답 대신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날을 더 잘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팀 리더분들과 상의하며 기도 중에 한국 본부장님께서 행정 사무를 제안해 주셨고, 기도 후에 비자가 나오길 계속 기도하며 본부의 행정 사무를 하기 위해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와 본부 행정 일을 하며, 또 감사하게 추천을 받아 우드베리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무슬림 사역자를 위한 영성훈련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 기도제목

- 현지 지역 비숍이 아직 공식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순적하게 세워지도록
- 중독자 센터에서 복음을 들은 형제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 현지의 비자 상황이 좋아져서 속히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 첫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삶이 주님께 인도함을 받도록
- 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삶의 예배가 더 깊어지고 가족 모두가 주님을 더 닮아가도록

## 인도네시아

이우림  
김조은

###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 A, B, C, D, E, S 교회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 오랜 시간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친구들이 복음 받을 준비가 되도록
- 코로나19 속에서도 순다 선교를 함께하는 한국 교회와 성도를 주께서 기억해주시도록

## 태국

김씨니

### 전환기 세미나와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재충전과 재정비가 되도록

-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더욱 성령 충만하며 주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 태국

S · B 선교사

###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 지난 21년간 학교를 통해 이 땅의 복음화와 어린이 사역의 초석을 쌓았는데 다음 사역을 준비하도록
- 새로운 학교와 선교 센터 부지를 위한 길을 열어주시도록

## 태국

리차드  
샬리

### 보험 비자 등이 해결돼 사역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 순회 훈련 사역을 하므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때에 복귀할 수 있도록
- METC(Mission English Training Course)의 선교사 후보생들 사역을 위해, 그리고 내년에는 현장에서 METC를 진행할 수 있도록
- A 선교사가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치유해주시도록

## 파키스탄

김빌립  
이사라

### 주일학교와 청년예배, 일대일 훈련이 은혜로 열매 맺도록

-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가난한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오히려 이웃을 돌보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 두 자녀의 건강과 결혼과 미래에 대한 계획과 소망이 이루어지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온누리에서 ON편지



**중동**

터키

파디 · 파디아

난민센터 사역에 은혜 주시고 청소년들이 회심하도록

버가모는 Iz 지역의 북쪽에 위치한 고대 도시입니다. 목화, 올리브, 금, 카펫 등의 특산물로 그리스 시대부터 부를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계시록에는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어도 제자들이 믿음을 지켰지만, 우상과 재물의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메아리치는 진리입니다.

2020년 10월 30일에 강도 7.0의 지진이 Iz 지역에 일어나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여러 채의 건물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리아 난민센터도 옥상의 콘크리트에 금이 가서 빗물이 새고, 그 이외의 작은 재산 피해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센터의 모든 청소년들과 가족들은 무사하게 잘 넘겼습니다 저희 센터가 4층 건물의 꼭대기 층을 빌린 터라 옥상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다만 옥상에 지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험악한 동네라 출입문 앞에 철문의 필요성이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지진의 피해를 본 건물주가 이 두 가지 바람을 한꺼번에 해결해주어서 어리둥절했었습니다. 지진을 통해 전화위복을 경험케 해주시는 구주의 섬세하심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코로나19와 지진 등 어려운 사태로 난민 생활 중에서도 최고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던 시리아 청소년들이 그동안의 전도에 반응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6명이 회심을 해서 제자 양육을 시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리아 난민 가정에 고마운 분들의 구호금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생필품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에 끝이 없으신 구주께 감사합니다.

기도제목

-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 정상적인 일상이 회복되도록
- 주님을 따르겠다고 회심한 시리아 청소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하는 시리아 청소년들에게 태블릿과 컴퓨터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지난달 새생명 공동체 식구들을 섬기러 갔습니다. 이들의 삶도 더 어려워지고 있었지만 각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비전을 함께 세웠습니다. 올해는 6개의 도시에서 8개의 가정 모임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먼저 같은 처지에 있는 난민들에게 현지 이웃들에게 전도하고 각 모임마다 한 개씩 모임을 더 개척하여 내년에는 16개의 가정 모임을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새생명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비전을 이루기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신분이 난민이라 이곳은 잠시 머무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본국으로 출국 통보를 받거나 언제 어디로 갈지도 몰라 이들의 삶은 매우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극복하고 주께 소망을 두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사명임을 깨달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곳에서 제자가 되어야 어디에 가서 살든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역자님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 기도제목

- 현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외롭게 일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리더들을 만날 수 있도록
- 새생명 공동체의 성도들이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함으로 고난의 삶을 이겨내도록
- 가족 모두 늘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전도와 제자 양육에 힘쓰도록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오히려 악화되며 백신 상황이 지지부진해지면서 ‘떠남’이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달 10여 일 동안 지방 5개 도시 2500km 거리를 운전하면서 다녀왔습니다. 오래전 예약된 방문이라 취소할까, 피방문자에게 폐가 되는 건 아닐까 고심하다가 아무도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아 길을 떠났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외롭고 힘들지만 성실하게 그 땅을 지키고 있던 팀 동료는 너무 한곳에만 머물러 모임을 섬겨 자꾸 힘들어지던 차에 저희의 방문이 격려가 됐다는 말을 해줘서 잘 다녀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떠남이 그만큼 힘이 되더군요. 모든 방역기준을 조심스럽게 준수하면서도 가르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느닷없이 눈물을 흘리며 전도하기도 하고, 이야기 듣고 기도하고, 야외 피크닉에 참여해 처음 보는 이들과 오랜만에 만난 지방 성도들과 교제도 했습니다. 티칭할 때 처음으로 1인 연극을 하며 신나게 복음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호와와의 증인, 물몬교 전도자들과도 친분을 유지하는 A 도시의 한 전직 교수였던 이슬람인 M씨 댁에 아침식사를 초대받았습니다. 교회 모임에서 M씨가 한번 입을 열면 모두가 힘겨워하는 장설가인 그 부인이 한 수 위였습니다. 저희에게 외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문제를 물었는데, 아내가 선교사라는 단어만 입에 안 올렸을 뿐, 선교사가 주님께 자녀를 드리고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자녀들의 육적, 영적 필요를 어떻게 채우셨는지 눈물을 쏟으며 간증했습니다. 동행한 팀 동료도 눈이 빨개지면서 담대하게 자신의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이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기도제목**

-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주 길을 떠나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록
  - 팀 위원회 회의가 잘 진행되도록
  - 셋째의 의과대학 지원 시험과 여름 방학 중 한국에서의 교육과정이 순조롭도록
-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 말씀이 뿌리내리는 땅 되도록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주님 은혜 가운데 늘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중에도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후히 갚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는 최대한 안전을 유의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큰 공원을 산책하다 올리브나무 아래서 잎사귀를 따는 노부부에게 다가가 무엇에 쓰러는지 물었습니다. 인상이 좋아 보이는 노부부는 당뇨 치료를 위해서라며 저에게도 사용해 보라고 조금 나누어주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며 답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앉을 수 없다며 선 채로 복음을 듣고 나서 두 분이 영접기도를 하고 방언을 받았습니다. 성경 읽기를 권하고 유튜브 동영상을 추천하니 잊지 않으려는 듯 되뇌며 갔습니다.

어느 날은 화물차를 개조해서 책을 파는 청년 D와 여동생 B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D는 성경을 읽은 적이 있고 B는 성경을 읽고 있다고 했습니다. 날씨가 춥기도 하고 배낭을 멘 채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서 차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물차 뒷문을 열고 사다리를 내려주었습니다. 올라가서 낮은 의자에 걸터앉으니 책 진열대로 인해 바깥사람들은 저를 볼 수 없어서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D는 아무 종교도 믿지 않는다고 했지만 B와 함께 영접기도를 하고 방언을 받았습니다.

터키에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터키 땅의 추수를 위해 주님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마라나타!

#### 기도제목

-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동하심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만나주신 영혼들에게 복음의 귀가 열리도록

## 터키

## 돌컬지우 · 김줄리

페이스북 페이지로 더 많은 무슬림을 만나도록

아프가니스탄 페이스북 페이지 사역을 통해 매일 15~30명의 아프간 무슬림들이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거의 예의 바르게 질문하지만 일부는 욕을 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과 다르다거나 알려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지금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두 개로 늘려서 이란 난민 출신 사역자들도 동참하게 되었고, 온라인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현재 두 페이지에 560여 명과 110여 명이 팔로잉하고 있습니다. 매주 3~4개의 아프간 다리어 성경말씀과 설교 등의 강의 영상을 보는 아프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터키, 모로코 페이스북 사역에서도 튀니지, 알제리 아랍어를 할 수 있는 리더들과 터키어가 가능한 이란 난민들과 함께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질문하며 복음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터키인 140명, 모로코인 200명의 무슬림이 저희를 팔로우합니다. 조용히 올라오는 영상과 성경말씀을 읽고 반응해오고 있습니다.

호프 국제교회에서 진행해오던 주일모임이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이뤄진 국제교회가 되었습니다. 영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튀니지·터키·독일 등에서 온 형제자매들이 초대교회 모습에 가까운 스타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모여며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주일예배 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시로 발표하거나, 자신의 신앙고백을 자작곡으로 부르기도 하고, 성경말씀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는 모습이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작은 교회, 심플한 교회, 유기적 교회를 지향하며, 재생산되는 모습을 기대하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호프 국제교회(온라인 가정교회)에 방문해보시고 싶은 분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줌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5년의 중보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은 베트남 출신의 미아는 주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는 학생인데, 자신의 가정과 민족

---

을 위해 주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기대되는 친구입니다. 말레이시아 출신인 싱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특별장학금을 받고 동아시아학생 대표로 선발되어 일본 교토대학 교환학생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전부터 일본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싱은 9월부터 일본에서 학업을 하는 사역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

기도제목

- 아프가니스탄 페이스북 페이지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보혈의 피로 덮으사 보호해주시고, 날마다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슬림들을 통해 열방에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 싱이 학생선교 사역과 교토 땅에 준비하신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교환학생 기간이 되도록
  - 미아에게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베트남 땅에 새로운 젊은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나는 데 귀하게 사용되는 주님의 용사 되도록
-

## 터키

## 채사라

주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도록

여러분의 기도로 TK 형제는 매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믿음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또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주말 통행금지로 인해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 시간들을 말씀 통독과 기도로 내실을 다지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L 친구와 S 친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TK 형제가 자기와 같은 영적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BK는 3개월 동안 이스탄불에 있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냈다가 두 달 전에 다시 배를 타러 나왔습니다. 이스탄불에 있는 시간 동안 감사하게도 저희와 함께 예배도 드리고 같이 음식도 만들면서 예전보다 저희에게 더 마음을 열고 다가와서 감사했습니다. BK는 저희가 새로운 예배 장소를 구하게 되면 첫 월세를 자기가 내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아직은 나이가 어리고 사회 경험도 없다 보니 배 안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도 가끔은 관계 문제로 갈등하는 시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TK 형제에게 연락하면서 조언을 듣고 다시 회복되어가는 것들을 봅니다. 배를 타고 여러 나라를 다니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 만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려는 마음으로 매주 공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안전에 유의하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영혼들을 다시 만나서 교제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BU와 그의 친구인 OZ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해 마음이 힘든 상태입니다. 두 사람 모두 무슬림이라고는 하지만 종교심이 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하는 복음을 아주 관심 있게 듣고 저희를 다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을 꼭 다시 만나 복음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기도제목

- TK 형제가 자기와 같은 영적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 예배 처소가 구해지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도록
- 이 땅의 많은 이들이 진리이신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도록

어제 저희 훈련센터의 스태프 두 명이 이사를 하고 거주지 주소변경을 하러 비자청에 갔다가 직원으로부터 한 명의 비자가 취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놀란 것은 몇 개월 남아 있는 비자가 본인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이미 13개월 전에 취소되었다는 것입니다. 10일 안으로 출국해야 하는 서류에 당장 사인을 하라고 요구받았다고 합니다. 당황한 스태프가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담당자하고 통화하도록 바꿔주었습니다.

아내가 담당 직원에게 비자가 취소된 이유를 물었더니 이 사람은 관광비자인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경찰의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의 보고를 받은 13개월 전에 비자를 바로 취소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10일 안에 출국하라는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재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이 사람은 여기서 일을 한 적이 없고 비자가 취소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해도 이미 서류상으로 비자는 취소되었다고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외국인이니까 시간을 좀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더니 이해한다면서 사인을 하지 않고 일단 스태프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놓고 몇 명의 현지인 리더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기도 부탁과 함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현지인들 모두가 서류에 사인하지 않도록 한 것은 참으로 잘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서류에 사인을 했더라면 다시는 입국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찰청에는 지난 13개월 동안 불법체류자로 신고가 되었기에 출국할 때 벌금도 많을 것이라고 이 일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기도제목

- 주변의 돕는 사람들을 통해 일이 잘 해결되고 긴박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라도 지혜롭게 잘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 다른 한 명의 스태프가 주소 이전을 하러 가야 하는데 친절한 담당 직원을 만나서 잘 마치도록
- 폭우로 손상된 훈련센터 담벽 공사가 진행 중인데 잘 마무리되도록

사랑하는 동역자님 안녕하세요!

따뜻한 봄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절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도 하나씩 주님 안에서 따뜻한 봄날처럼 해결되기를 소망해봅니다. 겸손히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저희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지방사역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수도 앙카라의 남쪽에 위치한 콘냐라는 지역인데 이곳은 사도 바울이 사역하였던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의 주민들 대부분은 무슬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언어 선생님은 이곳 콘냐 출신의 젊은 여성입니다.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틈이 나면 홍은혜 사역자에게 알라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해주곤 합니다. 저희는 콘냐에서 사역하시는 한국 선생님을 만나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몇 지역을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함께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홍은혜 사역자에게 이 땅에서 알라에게 신실하게 무릎 꿇는 많은 무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더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세워지고, 알라에게 무릎 꿇는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예배와 중보가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 기도제목

- 저희 가정에게 언어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도록
- 자녀가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사는 예배자로 성장하도록
- 매일의 예배와 만남들을 통해 이 땅에서 우리 가정에게 예비하신 계획을 알고 준비하는 날들이 되도록
- 홍은혜 사역자의 눈두덩이 건선증을 속히 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시간이 되도록

거짓의 시도와 계획이 무너지고 참된 복음만이 승리하도록

지난해 받았던 거주비자가 만료되어 지난 1월에 연장 신청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 후 2주 만에 주소지로 비자연장이 완료되어 외국인등록증이 우편 배달되었습니다. 비자 연장을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Y와 S는 믿는 자매들입니다. 이 두 자매는 사는 지역이 다르고 신앙을 갖게 된 경우와 살아가는 환경이 달라 서로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에 같은 메시지를 제게 보냈습니다.

Y는 온라인을 통해 어머니들의 기도모임에 참가했는데, 거기서 알게 된 현지여성에게서 문자와 영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구원파의 설교영상을 현지언어로 더빙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한국의 강남교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메시지처럼 들렸지만 여기저기에 이단적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Y는 지난 수년 동안 믿음을 숨기고 살다가 이제 겨우 자신의 믿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고, 믿는 이들의 모임에 참가하기 시작한 지 몇 달 안 되었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S는 10년 전부터 신앙 생활을 했지만 외국으로 나가 사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자매입니다. 구원파의 메시지를 받게 된 경로를 질문했더니 오히려 제게 이단적 질문들을 했습니다. 이들이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해주십시오.

5월에 고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산부인과 재검과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비행기를 타는 과정을 위한 PCR검사와 다른 준비하는 일정이 순조롭고 안전한 여정이 되고 치유가 있도록 구해주십시오.

- |      |   |
|------|---|
| 기도제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부인과 재검과 치료를 주님 안에서 잘 받을 수 있도록</li> <li>· Y가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참된 복음만을 믿을 수 있도록</li> <li>· S가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고 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li> <li>· 온라인을 통한 이단들의 시도와 계획이 헛되고 그들의 거짓이 드러나며 참된 주의 복음만이 승리할 수 있도록</li> </ul> |
|------|---|

만물이 소생하는 봄 햇살이 마치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우리의 마음을 따스하게 녹이는 듯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일 년 전에 시작된 코로나19가 끝나지 않고 터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하루 확진자가 2만 1000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나누기가 쉽지 않고, 계속 채팅과 온라인 사역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의 관심자들과 성경공부를 하면서 좋은 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는 현지인들과도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S가 P와 약혼식을 했습니다. P가 아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S가 P에게 좋은 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P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중보해주세요. 이들은 이번 여름에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중보해주세요.

Y 형제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조금씩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옛날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갖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오래된 병자를 주님께서 치료하신 것처럼 Y 형제의 오래된 질병과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를 치료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도록 중보해주세요.

코자엘리 대학에 다니는 M과 I를 통해서 Ma, Mb와 좋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들과의 만남 속에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누고 영적인 관심자가 나올 수 있도록 중보해주세요.

#### 기도제목

- P 형제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 Y 형제의 목디스크가 잘 치료되고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 M과 I, Ma, Mb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찾아갈 수 있도록

## 터키

조하늘  
박별

### 영적 싸움에 담대히 맞서는 강한 주의 군사가 되도록

- 거주비자를 허락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항상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 영접한 F가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 새로운 영혼들을 만나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고 저희를 통해 복음이 이 땅에 흘러갈 수 있도록
-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잘 성장하도록

## 터키

그레이스 오

###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예배에 기쁨 부으심이 있도록

- 코로나19로부터 터키와 난민 영혼들이 안전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돌파되도록
- 조예교회의 예배와 모임에 자유와 치유의 역사가 경험되도록
- 매일 준비된 영혼들과의 만남이 있도록
-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배우자를 만나도록

## 터키

라함

###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도록

- 모든 준비가 순탄히 이루어져 출국 예정인 5월에 떠날 수 있도록
- 한국에 남은 가족들이 평안하도록

## 터키

한솔로  
레이

### 장기 선교사 훈련 위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 현지 영어예배, 형제자매들의 일대일, 소그룹 만남을 온라인상에서 창의적으로 잘 이어갈 수 있게 지혜 주시도록
- 영국에서 직장 생활하는 자녀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도록

터키

최권능 · 윤예지

온라인 전도에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저희는 새해 표어와 비전으로 ‘Disciple 3 Movement(D3M)’로 정해 올해 각자 3명의 제자 삼기 운동을 통해 배가성장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동안 양육 훈련했던 M 형제를 D3전도양육 사역자로 공식적으로 세웠고, 이후 페이스북 전도 문구 작성과 함께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관심자들을 돌보도록 했습니다.

쥬빌리교회는 지난달까지 주일말씀으로 사도행전을 마쳤고, 새로 신명기를 시작으로 구약 역사서 산책으로 말씀의 기초를 다지고자 합니다. M 형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은혜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의 깊이와 전도의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쥬빌리 희년연구소는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온라인사역으로 이번 달에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M 형제가 각 색한 복음메시지를 나누었는데, 이곳 A시의 5000명에게 전달되었고 그중 30명이 긍정적인 표시를 남겼습니다. M 형제와 함께 이들을 팔로우하며 질의응답과 전도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의 외출금지 규제로 집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사역자들 중심으로 Just show up 북클럽을 통해 오디오북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팀 켈러의 『왕의 십자가(King’s Cross)』를 읽었고, 이어서 『내가 만든 신(Counterfeit Gods)』 오디오 책을 듣고 나누는데 말씀에 대한 새로운 묵상과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인사이트를 줍니다. 현대인의 우상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으로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터키어로도 번역되고, 유사한 북클럽 프로그램이 생기길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 쥬빌리교회의 ‘D3M(Disciple 3 Movement)’ 성장과 전도사역자 M 형제의 성숙과 열매가 있도록
- Y 사역자의 한국어 강의를 통해 현지 학생들의 열매와 관계 증대가 있도록
- 페이스북 전도를 통해 매달 연결되는 30여 명 관심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만 1년이 지났지만 전 세계 사람들은 여전히 큰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실수가 없으시고,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상황을 통해서 교회는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그리고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떨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로겠지만 특별히 제가 살고 있는 터키의 상황은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집권 이후 정치와 경제는 계속해서 끝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 보입니다. 얼마 전에는 여성의 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 가입 국가에서 터키는 자진하여 탈퇴하여 터키 여성들의 인권을 위협하는 길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극단적 이슬람 쪽으로 방향을 잡은 에르도안은 강력한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터키를 극단 이슬람 국가로 몰고 갈 것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터키를 위해 아뢰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교제하던 친구들과 대면으로 만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이곳에 살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자유롭게 현지인들과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전화와 메시지 그리고 가끔 화상통화를 하며 최선을 다해 교제를 이어갔지만, 직접 만나 교제하는 것보다 관계 유지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주님의 때에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 기도제목
- 코로나19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문화 센터의 승인이 속히 진행되도록
  -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 교제 중인 현지인들의 마음에 참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장모님의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 캐나다에 있는 자녀들이 거듭난 삶을 살고 주께서 친히 인도해주시도록
  - 김화목 선생의 영육 간의 건강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누리도록

며칠 전 이 땅을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 2박 3일 일정으로 제가 섬기고 있는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 땅 가운데서도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도시로 유명합니다. 현지인들 안에서도 이슬람이 강하다고 손꼽기도 해서 저희 사역자들이 시작 전부터 함께 마음을 모아 매일 시간을 정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희에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전에 두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역자들은 이번에 전도하며 달라진 것들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폐쇄적인 두 도시 영혼들이었지만 몇 달 만에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해보니 영적인 기류가 많이 바뀌었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신 것 같다는 은혜의 고백들이 넘쳐났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증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의 전도 이후 마지막 날 친구들을 불러 초청잔치를 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두 도시에서 16명의 친구들이 함께 예배하고 메시지를 들으며 예수님에 대해 더 깊게 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고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도록 손 모아주세요!

M 형제는 아직 영접하진 않았지만 주일예배와 주중 말씀공부 시간을 성실히 지키는 친구입니다. 조용한 성격에 외로움이 많아 온순해 보이지만 이슬람 정체성이 강합니다. 이 친구는 매주 주일예배 때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옵니다. 매주 몇 번씩 복음을 센 강도로 전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친구가 매주 새로운 친구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온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M 형제에게 착하고 성실한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께로만 향하길 손 모아주세요!

I 자매는 몇 달 전 길거리에서 만나 복음을 전했고 그 후에도 특별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초청했던 친구입니다. 지난주 다시 만나 깊은 복음을 나누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것은 인정하

지만 부활하셨다는 것부터 아니라고 하며 이슬람 교리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구절을 보여주며 다시 설명했고, 마지막에 성경책을 주며 꼭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으로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손 모아주세요.

D 자매는 H 도시에서 만난 자매로 복음을 전했을 때 잘 들어주었습니다. 복음을 듣던 중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교리에선 나올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꾸란의 교리를 얘기하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다 삼위일체에 대해 얘기하며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와 믿음을 주셔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해주며 꼭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주셔서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손 모읍니다!

H 자매도 H 도시에서 만나 복음을 전했을 때, 크게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잘 들어준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다시 만나 교제할 때 복음으로 깊은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이 친구를 통하여 H 도시에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개척되도록 손 모아주세요!

D 아주머니는 동네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세 번 정도 만났는데 최근 만났을 때 아주머니 인생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교회 가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 주일 아침에 집으로 가서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아주머니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새롭게 발견하고, 마음의 외로움들이 복음으로 온전케 회복될 수 있도록 손 모아주세요!

기도제목

- 이 땅을 묶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반석 위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 복음으로 교제 중인 친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도록
-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역자가 되도록

샬롬! 코로나19 가운데도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코로나19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이스라엘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 덕분에 코로나19 양성으로 심각한 호흡질환을 겪던 AH가 퇴원해서 기력을 회복 중입니다. 미국 친구 짐과 아랍 이웃들도 모두 코로나19에서 회복되어 지금은 정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교의 기말시험 두 과목을 모두 통과했고, 어제부터 유대인 성경공부를 대면으로 시작했습니다.

유대친구 헤드바의 초대로 카썬에 방문해서 3일 동안 머물며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누리 고 왔습니다. 헤드바 가족과 교제하고 유월절 저녁식사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같이 출애굽기를 읽으며 유월절 만찬을 나눴고, 베니가 마짜(누룩이 안 들어간 빵)를 숨겨놓고 재밌게 찾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는 87살에 심장이 약한 모나집에 머물며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왔습니다. 모나는 하루 종일 안락의자에 앉아서 TV만 봅니다. 근육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서 노인 운동과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마사지를 해주시 너무 좋아합니다.

늘 줌으로만 예배를 드렸던 유대 여인들 성경공부를 어제는 미리암 집에 가서 함께 했습니다. 모두 눈물을 글썽이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제가 hug가 너무 그리웠다고 하니 오래 꼭 안아 주었습니다. 같이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성령께서 참 기뻐하셨습니다.

## 기도제목

- 팔레스타인 여인 화해길을 컨퍼런스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민감히 듣고 섬길 수 있도록
- 요셉처럼 매일 새로운 꿈을 부으시도록

## 터키

손충성  
송이레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마음이 열린 준비된 새로운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 매주일 모임을 다른 교회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함께할 교회들을 찾는 일과 그 교회들과 좋은 연합과 교제를 통하여 서로서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 부흥교회 현직인 지도자들이 설교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적용되고 실제 경험된 것들을 잘 나누고 이 기회를 통하여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 터키

김순종  
천사랑

한국어 사업을 함께할 파트너와 대학교를 인도해주시도록

- 코로나19에서 완치된 M 가정이 복음을 잘 깨닫고 구원 얻도록
- IZ 도시에서 사귀어 MS 가정에 복음의 빛이 잘 전해지도록
- 첫째의 내적 치유와 둘째의 턱관절 치료와 회복이 있도록

## 터키

이영광  
이찬양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도록

- 코로나19로 인해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자라도록
- 생계가 어려운 형제들이 안정된 일을 구해서 생활비 걱정이 없도록
- 구직활동 중인 첫째가 합당한 직장에 취직이 되도록

## 터키

복음  
하나

오직 하나님의 영을 겸손히 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들을 접촉하고 지혜를 주시도록
-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하나님의 은총이 있도록

요르단 아굴라 · 브리스가

난민 교육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과 아픈 가정에 치유가 임하도록

센터의 1학기 교육프로그램은 최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어린이 영어/수학/컴퓨터, 청소년 영어, 여성을 위한 영어/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식을 주면 먹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서 동생들과 나눠 먹겠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영어와 아랍어책을 모아 도서관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영어책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변호사를 만나 난민사역과 복음사역을 할 수 있는 법적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Mu 가정의 양쪽 눈을 제거한 Mr(10세)이 특수교육센터에 다니게 되는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의 매달 100만여 원이나 되는 교육치료비는 당분간 무료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J 가정은 S국 난민으로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네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현재 암 수술을 해야 하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수술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1년 전에 요르단 남자와 결혼한 큰딸 Ib가 결혼 몇 달 만에 딸을 임신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쫓겨나 엄마에게 와 있습니다. 남편은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출산을 앞둔 Ib가 슬픔을 이기고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난민센터에서 지내는 Na는 어느 날 자신과 두 명의 성직자 그리고 가족에게 강하고 밝은 빛이 비취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지금 Na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과 가족 그리고 주위의 반대와 핍박을 어떻게 견딜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 기도제목
- 고민과 갈등 속에 있는 Na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 Mu 가정과 J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Ib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 센터의 스태프와 저희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 가족들이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자녀들이 영/육/정서적으로 강건하도록

주님의 때에 새로운 사역지 터키로 나갈 수 있도록

현재 요르단은 코로나가 많이 퍼져 있어 사역자들 주변에 확진자가 많이 나와 수시로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니던 MK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교직원과 학생뿐 아니라 부모도 다수 격리를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현지 교회에서도 감염이 일어나 교인들을 비롯하여 사역자들이 격리되니 사역과 생활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휴일인 금요일은 전면 통행 금지가 계속되고, 현지인들은 지쳐서 이제 마스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다닌다고 합니다. 의료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곳이라 감염이 되면 타지에서 이방인으로서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병원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는 사립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치료비가 엄청나서 여행자 보험으로도 다 처리되지 않으니 재정적 부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지에 남아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시리아 난민 캠프는 UN에서 특별 관리를 하여 난민 전원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요르단 현지인들 속에 함께 사는 시리아 난민들도 많은데 그들도 백신 접종을 빨리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르단에 살고 있는 난민들은 워낙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지라 늘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 기도제목

-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더욱 소외되기 쉬운 가난한 자들과 시리아 난민들을 돌보아주시도록
- 저희 부부가 안식년 동안 재교육을 잘 마무리하도록
- 부모님의 건강과 두 자녀의 한국에서의 신앙생활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도록

동역자님들의 큰 관심과 사랑, 기도와 후원을 통해 시리아 난민캠프에 푸드 패키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나눔을 통하여 한국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기도하는 손길과 마음이 있음을 알리고 소외되고 외로운 난민들에게 자신들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함께 전하였습니다. 훗날 감사의 인사를 전했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입술들이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레바논은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에 큰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7개월이 지났고 총리의 공석은 1년이 되어갑니다. 잠시 잠잠했던 시위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격해지고 있으며 달리 환율은 치솟고 현지화폐는 종이장이 되어 직업을 잃고 헤매는 발걸음들은 도난과 강도 등으로 삶의 비전을 잃게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타내시며 반드시 길과 강으로 회복시키실 주님의 계획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한국에서 다시 레바논으로 나올 때 소중한 손길들을 통해 필요한 약품들을 가지고 왔었는데 온라인 아우리치를 시작한 팀이 약국에서 약을 구하지 못해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흔하디 흔한 타이레놀조차 이곳에서는 약국 5~6곳을 돌아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가져왔던 약품들을 질병과 싸우는 난민들에게 도움과 사랑이 전달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나를 멈추게 하심은 곧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시그널임을 알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들이 동역자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

#### 기도제목

- 아랍어를 배우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임을 잊지 않고 성실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도록
  -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신뢰하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

## 요르단

최밀알  
이평강

### 소그룹 모임이나 가정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 고별료와 루디아같이 복음을 듣고 자신의 지역에 재생산이 이루어지도록
-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A가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잘 성장하고 제자로 잘 세워지도록
- 본부 사역을 통해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도록

## 요르단

새노래

### 확산되는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주시도록

- 요르단 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빨리 꺾일 수 있도록
- 시리아 친구 H가 가족이 있는 독일에 돌아가기 전에 구원의 복음을 받아 들일 수 있도록
- 한국 휴가 기간 동안 영육의 재충전을 잘 하도록

## 요르단

이요한  
안드보라

### 이 땅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시도록

- 이요한 선교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이 없도록
- 코로나19에 감염된 블루버드 멤버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 요르단

여호수아  
에스겔

###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개척이 되도록

- 교회 개척팀이 정탐을 해나갈 때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언어가 탁월 해지도록
- 온전히 주님의 것을 담아내며 깨끗한 그릇으로 철장의 권세를 취하여 능히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도록
-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쏟아내는 온전한 통로가 되며 맡겨진 SC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이라크 한젠슨 · 한조니

난민캠프 내의 교육과 새로운 청년 리더들이 양육되도록

아르빌주는 아직 난방이 필요하지만 활동하기에 최적의 기간입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로 모술 지역 캠프들은 유엔과 NGO 단체와 정부지원이 없는 국내 난민(IDP) 지역이 되었고,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한 캠프마다 숫자는 6000명 정도이고 70~80%가 아이들인데 캠프 안 학교 운영이 거의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출생 신고와 호적 서류가 없거나 도난당했거나 나이가 지나 학교를 갈 수 없는 아이들은 캠프 안에서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M 지역 U3 캠프를 선정하여 청소년 보조교사 20~30명 교육을 시작으로, 9월부터는 100명의 아동을 위한 영어/수학 기초교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홈스쿨 방식과 교재 및 태블릿을 사용한 오프라인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웨이브 셸터와 의료 구제지역은 시리아 청년 Ak와 Am이 일대일을 끝내고 Mu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중인데 Ia 교회 찬양 리더를 초청해 간증을 듣고 찬양과 기도하며 함께 은혜로운 소그룹으로 서 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연결되는 청년들을 만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G팀을 통해 약과 의료품, 의류 등을 컨테이너로 들어오는 사역이 마무리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쿠르드 NGO 단체 B가 관리하는 35개의 난민 캠프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양의 구제품들이 모든 통관 절차와 무관세 절차를 무사히 통과하도록 끝까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난민캠프 교육에 지혜와 오가는 길의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 셸터 청년리더 Ma 부부의 일대일과 소그룹이 믿음의 리더로 성장하도록
- Ia 교회와 협력하여 페이스북을 활용한 전도와 교육인력, 물질 동역자와 교육체계를 잘 세우도록
- 영어 커리큘럼으로 세계관이 변화되도록
- 저희 부부와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주시도록

현재 이곳도 코로나19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대도시에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도시에서 떨어진 난민촌들과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실 작년 12월 즈음에 코로나19가 이곳을 한차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난민촌에는 코로나19에 걸린 난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자유롭게 이곳 현지 지역을 다니면서 현지인들과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이곳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도록 손 모아주세요.

얼마 전에 시리아 난민촌에 살고 있는 P 가정과 함께 처음으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들판에서 뛰며 찬양하고 즐거운 시간을 다같이 보냈습니다. 지난 과거에 6명의 자녀들과 엄마가 여러 마을들을 다니며 구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구걸하러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여러 후원자분들의 도움으로 현재 6명 아이들의 생계를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자라도록, 또 저희가 아이들에게 기초교육을 잘 가르치고 아이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손 모아주세요. 그리고 6명의 아버지인 P가 몇 년 전에 쿠르드족 군인 모집에 신청서를 냈었는데 얼마 전에 군대에서 인터뷰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P가 쿠르드족 군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손 모아주세요.

난민 아이들이 난민학교에 오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찬양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손 모아주세요. 모든 아이들과 청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들의 마음에 믿음과 소망과 주님의 사랑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나도록 손 모아주세요.

## 기도제목

- 저희가 자유롭게 현지인들과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 거룩한 성도들이 준비되고,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복음과 함께 긴급식량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레바논은 지중해에서 불어온 한파로 산지에는 눈이 내리고 저지대는 많은 비와 우박이 내렸습니다. 한국에서도 뉴스에 나올 정도로 레바논 화폐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레바논 국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각 구성이 지연되면서 환율 또한 요동치고 있습니다. 발전소의 연료 보유고가 없어 전기 공급이 줄고, 주유소는 제한적인 주유만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국민의 60%가 빈민으로 전락하여 식료품도 제대로 살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는 베이루트 폭발 지점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캐런티나(Karantina) 지역을 섬기려 합니다. 폭발사고 후 6개월이 지나면서, 그동안 구호로 섬기던 NGO들의 지원이 줄고 있습니다. 아직 폭발의 흔적으로 집들이 수리되지 못한 곳도 많이 있고, 정부병원, 항만 하역시설, 소방 본부가 있으며,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곳 캐런티나 지역과 비블로스에서 상반기에 긴급식량지원과 코로나19 방역키트 지원사역을 하려 합니다. 돕는 일과 복음이 함께 잘 전달 되길 바랍니다.

저희 가족은 레바논에서, 자녀들은 온라인 교육으로 비대면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빛은 지난 1월 코로나19 양성 확진을 받았지만, 무증상으로 1주일 만에 음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를 해제하였습니다. 하지만 늘 코로나19에 주의하며, 레바논에서의 삶에 담대함과 지혜로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 8년간 살던 집에서 이사를 합니다. 이사와 필요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재정이 잘 채워지길 바랍니다. 새로 섬길 지역을 보여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길 기도합니다.

#### 기도제목

- 정부의 내각 구성으로 환율이 안정되고 레바논 경제가 회복되도록
- 비블로스 지역과 더불어 캐런티나 지역 동역자와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 하반기 교육센터 사역이 준비되고 실행되도록
- 둘째 자녀의 허리와 발목통증이 완치되도록

## 요르단

신아벨  
이셀라

새로운 팀 조직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어려운 가운데 무너진 방역체계가 다시 잘 구축되고 예방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상황이 호전될 수 있도록
-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영적으로 무장하여 세계 곳곳의 이슬람 국가와 그곳의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 요르단

서요셉  
황로즈

본국 사역기간 동안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도록

-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 길을 인도해주시도록

## 레바논

레반트  
난민사역팀

레바논의 경제 위기가 속히 안정되도록

- 급상승한 환율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리아와 이라크, 수단 난민과 팔레스타인 난민촌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삶을 돌보시도록
-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많은 참여가 이루어져 두려움에서 회복되도록

## 레바논

박새소망

이 땅에 살롬의 평안이 임하도록

- 고통과 굶주림 가운데 있는 난민들에게 복음과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 매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집트** 황디모데 · 송예나

신학교 학업을 통해 주님 안에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갈 1:4)

참으로 간략한데도 그 안에 복음의 소중한 핵심이 명확하게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새겨 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증거할 아름다운 이 소식을 올 한 해 더 충성되게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중순에 재활병원에 계시던 아버지를 한 달 동안 간병하며 아버지와 하나 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병원에 머무는 동안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을 볼 수 있었고, 아픔을 가진 분들과 가족들이 경험하는 삶의 도전들을 함께 느끼고 체험하는 배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공홀히 여기며 돌보는 목자의 마음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사역지에 돌아와 들은 소식 중 하나는 Y 목사 가정이 수단으로 귀국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6년 이상 함께 교제하며 멘토링해 오던 Y 목사는 선교사적 마인드를 가진 귀한 사역자입니다. 지금 수단은 2년 전 시민 혁명 이후 이슬람 정부가 무너진 뒤 급작스런 변화들과 정치 사회적 전환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이슬람에 대한 실망감으로 많은 공백을 느끼는 젊은이들이 무신론자들이 되는 추세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의 시기에 참 소망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구하는 사명에 순종한 Y 목사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기도제목

- 병원에서 만난 두 아이를 둔 자매를 주님이 공홀히 여겨주셔서 눈이 돌아가는 희귀병을 고쳐 주시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 Y 목사님이 세운 사역팀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인 전도와 제자양육을 통해 추수하는 일꾼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 두란노 형제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세우고 주님을 충성되 이 따라가는 제자들로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코로나 19로 인하여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길을 걸어온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이 기간 우리가 평소에 평범하게 살아왔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오랜만에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그동안 갖지 못했던 한국에서의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겨울이 없는 곳에서 오래 살다가 이번에 겨울을 지내게 되었고, 산이 없는 곳에서 살다가 서울의 여러 산을 다니면서 우리만이 가진 귀한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과의 시간도 덤으로 따라와서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역지를 떠나니 모든 터전을 다 잃은 것 같은 허전함과 무기력함, 존재의 상실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바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도 감사했고, 삶의 여러 영역에서 한결같이 인도해주신 것도 감사했습니다. 잘 풀려나갔던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여러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그것들을 헤쳐 나갈 수 있었던 힘을 주신 것도 감사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 감사했고, 일상의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힘겹게 살아왔던 것도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갖게 되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기도제목

- 줌을 통한 강해학교 수업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 차기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배워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 그리스도 안에서 늘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는 삶 되도록

## 아랍에미리트

한길  
임사랑

### 주님께 더 가까이, 기도를 더 간절히

-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모임을 화상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성도들이 오히려 믿음이 자라는 기회가 되도록
- 선한 동역자들과 새 교우들도 넘치게 보내주셔서 팬데믹 상황 이후의 목회도 잘 준비하며 중동지역을 위한 선교적 역할을 교회가 잘 감당하도록
- 내년에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둘째와, 아랍어와 영어를 함께 배우고 있는 첫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학업의 길을 열어주셔서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잘 준비되도록

## 아랍에미리트

에스라  
에젤

###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계획을 깊이 알도록

- 중보기도 봉사 300명, 중보하는 교회 및 단체 30교회, 1~2만원 후원사역자 300명이 모집되도록
- 에젤의 보그트 고야나기 하라다 병(삼출 망막 박리와 육아종 범포도막염과 함께 신경계와 피부 증상을 나타내는 다발적 전신 질환)의 온전한 치료와 자녀의 영혼육이 건강하도록

## 아랍에미리트

S · J 선교사

### 부르심의 땅으로 가는 길이 순적하도록

- 불어권 선교를 위해 준비 중인 한국 프랑스 대사관의 가족 비자 재발급 과정이 잘 진행되도록
- 자녀들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과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 J 선교사가 디자인과 캘리그래피 사역을 준비 중에 있는데 주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비전을 맞춰 순종할 수 있도록

## 이란

아리엘  
수산나

### 온라인 양육 클래스가 믿음의 제자들을 재생산하는 도구로 구축되도록

-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 이를 위해 헌신하는 가정이 되도록
- 끊이지 않고 확산되는 이란의 코로나19 확산이 그치고 이란에 있는 형제 자매와 신실한 믿음의 교제가 계속 이어지도록

## 사우디아라비아

바나바  
송사라

### 이 나라의 긍정적 변화가 계속되도록

- 사역 중인 한인 공동체가 비대면 예배에 모두 잘 적응하고 더 뜨거운 예배를 사모하도록
- 셋째가 주님이 예비하신 신부를 만나 교제하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도록

## 이스라엘

아브라함  
그레이스

### 전도와 무료급식 사역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 현지 사역자들과 돌봄 대상자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 마약 중독자로 사역자들의 돌봄을 받던 L이 코로나19 봉쇄로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마약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도록

## 이라크

반석  
하나

###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도를 잘 감당하도록

- 자녀들이 봄 방학 후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 이라크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건강이 있도록
- 코로나19에 걸린 교회 성도들의 회복과 새 신자들의 제자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 이라크

말라드

### IAC 현지 교회 예배에 항상 은혜를 더해주시도록

- 새 성전을 위한 정부의 건축 허가가 방해 없이 무사히 진행되도록
- 현재 이란의 코로나19 긴급사태로 이곳도 큰 영향을 받고 있으나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난민 캠프까지 잘 진행되도록





온누리에서 ON편지

---

# 아프리카

모리타니

피터 · 조안

2기 사역지에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샬롬! 사막에도 봄소식이 들려오듯 마음에 희망의 햇살이 드리웠습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새 길이 보이고 십자가를 지나 부활을 맞이하듯 그렇게 사하라에도 겨울의 차가운 언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처럼 희망을 보여주심이 감사한 계절이 되게 하신 사랑하는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로 우리 가족을 품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애태워주신, 사랑하는 분들이 계심에 정말 많이 감사드립니다.

거의 1년 만에 돌아온 모리타니는 도망치듯 떠난 자들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낯설 또한 밀려옵니다. ‘아 맞다! 수도가 고장 나서 물을 사서 썼었구나.’ ‘아, 인터넷이 계속 끊어졌었지.’ ‘아~ 정전이 자주 됐었지.’ ‘아! 물 바뀌면 설사를 했구나.’ ‘아~ 햇볕에 오래 돌아다니면 오후에 꼭 머리가 아팠었지!’라며 하나씩 다시 재부팅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귀 후, 약 한 달 만에 드디어 이사했습니다. 새 출발을 위해 사무실과 집을 합쳐 이사를 결정하였고, 가격과 장소를 정한 후 이사까지 집이 세 번 바뀌는 옷을 수만은 없는 일을 겪었지만 결국은 가장 합당한 곳을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집을 찾는 동시에 새 사역지를 선정하기 위해 몇 군데 빈민 지역을 두루 다니며 길이 열리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과정에 한 마을과 함께 현지인 동역자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 처소와 새 사역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이었던 지역 선정과 기관과의 협약이 모두 잘 이루어졌습니다. 모리타니에는 많은 빈민 지역이 있습니다. 시내 지역 한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빈민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중에도 가장 어려운 지역 중 한 곳인 D 마을에서 어린이 영양 사업을 한 경험을 가진 현지 NGO를 소개받았습니다. 또한 이 마을이 속한 행정구의 도지사급인 W와 구청장급인 H, 그리고 시장 M으로부터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초청 편지와 사업을 환영하는 만남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애타게 기다렸던 일들이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더 활짝 열리는 것에 놀랍기도 하고 모든 일에는 정하신 때가 있다고 느끼며 매일 감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4월의 라마단 동안 거의 모든 기관이 정상 업무를 멈추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조사와 함께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 5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영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기 사역지인 D 마을이 총체적으로 변화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한 걸음을 더 내딛고자 합니다.

얼마 전 그동안 같은 단체에서 함께했던 동역자를 또 잃었습니다. 그렇게 작별 인사도 못 하고 떠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주님 곁에 고통 없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은혜를 입은 자로서 슬픔으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함께 했던 시간을 되돌아보며 감사했던 시간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피터 선교사는 체력이 많이 회복되어 규칙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 영성과 체력관리, 가장과 사역 책임자로서 자신과의 약속에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안 선교사는 바뀐 환경에 몸이 다시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체력이 약한 편이라 체중이 조금 더 줄면서 잦은 두통과 불면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는 세네갈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비염이 지속되면서 기침이 있는데 남은 학창 생활을 건강하며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의미 있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제목

- 앞으로 펼쳐질 사업에 주님의 도움이 있도록
- 이사 후 새 사무실과 집에 필요한 것들이 잘 설치되도록
- 선교사 부부가 건강하며 자녀가 대학 진학을 잘 결정하도록

샬롬! 사랑의 기도로 함께해주시는 모든 동역자님께 안부를 전합니다. 이곳은 이제 길고 지루한 여름이 끝나고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의 없지만, 여전히 해외로의 출국은 강경하게 조절되고 있어서 비대면 동영상 강의를 3학기째 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학생들과 마주하고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무엇을 이해했는지,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바로 알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과 동영상 자료들을 찾아 편집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이 강의 동영상 배경에 어떤 책도, 어떤 배경도 나오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얀 골방에 홀로 들어가 컴퓨터에 대고 녹음을 합니다. 그런 날에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 교감하며 그것을 통해 삶이 변화되는 학생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교실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그러나 골방에 홀로 앉아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중보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며, 세상의 지혜와 학문은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동영상 안에 담아지고 전달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돌이켜 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2019년에는 학교에 들어갈 때 경유국에서 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했는데 차질이 생겨서, 참석해야 하는 학교 일정이며 추가경비 소요 등 참으로 막막했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첫발을 내디딜 때 놀라운 방법으로 비자를 전달받을 수 있었고 무사히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일을 돌아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동영상으로나마 지금까지 섬길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방법과 순간들은 여전히 감사와 감동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저희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인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에는 저희보다 영어로 강의도 잘하고 학문적 깊이도 있고 학위도 잘 갖추진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저희는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주님께서 저희에게 부탁하신 일이기에,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감당하기를 결심합니다.

얼마 전에는 이곳에서 섬기고 있는 각 나라 모든 의학과 교수님들 및 북쪽 교수님들과 영상으로 미팅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실에서 학생들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더 좋은 영상 강의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부디 백신이 순조롭게 공급되어서 학생들과 함께 토론도 하고 실습도 하면서 수업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은 학교에 강의하기 4주 전에는 동영상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영상 녹화를 모두 마쳤고 짧은 휴식 후 다음 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디 세네갈의 모든 국경이 열려서 다음 학기에는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릴 때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았지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죄의 속박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의 결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나라를 생각할 때 소망은 자꾸만 더 멀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부활의 소망으로 이곳에도 주님이 주시려는 완전한 자유와 사랑, 기쁨과 평화가 속히 오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 
- 기도제목
- 백신이 보편화되고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 학생들이 공부할 때 지식뿐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달도록
  - 강의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지혜와 위로가 있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

## 세네갈

이에녹 · Aysata Lee

결단과 헌신이 있는 성경학교가 되도록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이곳은 한낮 기온이 42~44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슬림들은 종교 특성상 개를 가까이하지 않아서 길거리에 있는 개들은 갖가지 꺾박과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낮잠을 자다가 인적이 없는 밤에 떼로 몰려와 살기 등등하게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얼마 전, 동네 아이들이 겁에 질린 눈으로 손에는 돌을 든 채 뒷걸음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맞은 편에는 위풍당당한 개 한 마리가 아이들과 맞서며 아이들이 돌을 던지면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처럼 매서운 눈으로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흥미로운 장면이라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지켜보았는데 그 개는 주인 없는 들개가 아니라 유목민이 양을 치기 위해 키우고 있는 개였습니다. 자신의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용기를 주고 당당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대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2년 과정의 성경학교가 4월에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후보생을 심사하는 일에 신중하고, 또 후보생들이 성경학교를 기대하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한 달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대면과 비대면 성경학교를 같은 시간에 하기로 계획했었는데, 기술적인 문제와 참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분리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교회 형제들을 중심으로 대면 모임을 시작하고 M 지역은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 과정 동안 한 명의 학생을 위해 중보기도자를 요청했는데 여러분들이 자원해 주셨습니다. 편지를 받으신 분 중에 마음에 감동을 받은 분이 계시면 중보기도자로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성경학교 과정에 참여하는 형제들이 신실한 복음 전도자로 포기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이 중보 기도 사역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난 부활절 예배는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명의 형제와 자매가 세례를 받고 2년 동

안의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중 2명은 이번에 성경학교에 지원했는데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자 지원했다고 합니다. 예배 후에는 교회 각 기관과 가정에서 준비한 연극과 찬양, 그리고 멋진 아프리카 춤을 통해 부활의 기쁨을 함께 즐겼습니다. 주께 헌신한 이들이 무슬림 사회에서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Aysata 선교사는 세네갈에 입국 후 여독으로 인해 몸에 무리가 왔지만,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부터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던 기독교 상담 심리학 석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필요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둘째는 목동에 있는 직장에 출근하고 있는데 사는 곳과 직장의 거리가 멀어서 왕복 4시간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직장 근처로 이사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 기도제목
-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세워지도록
  - 교회와 새롭게 시작되는 모임방들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1기를 마치고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생각은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실패로 인한 낙망이었습니다. 안식년을 통해 지난 사역을 성찰하는 배움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이드로와 같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십보라와 같은 지혜로운 아내를, 그리고 아론과 같은 훌륭한 동역자님들을 통해 새 힘을 주셨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어 봅니다. 비록 모세와 같지는 않지만 부르신 그분의 뜻에 따라 제게 허락하신 은유함으로 시작합니다.

지금은 현장에서 나오셔서 한국에 정착하신 선배 선교사님께서 “선교사들도 한국 성도들의 삶을 경험해 보고 느껴봐야 해.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얼마나 열심히 살고 계시는지, 몇천 원을 벌기 위해 애쓰는지. 그리고 바빠 움직이는 한국 사회를 체험해 봐야 선교지와 다른 한국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맞아 홍요한 선교사는 한국에서 배달앱을 통해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 주문한 고객에게 신속하게 음식을 배달하는 일을 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나 눈, 번지수에 대한 착오 등으로 인해 배달이 지연되거나, 시간에 쫓겨 신호와 주·정차 위반 등을 하게 될 때의 심적 갈등과 긴장감 그리고 자칫하면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위의 사고들로 인해 쉽지 않은 삶의 현장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한국 사회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 선교사는 안식년 중 훈련이 끝나고 무엇을 할지에 대해 고민하던 중 퀼트가 떠올랐습니다. 퀼트는 이슬람 민속 문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패치워크로 옷을 누벼 입는 '바이팔' 들을 보면서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여겨졌습니다. 이미 재봉 기술교육은 세네갈에 많이 퍼져있고 남자들이 그 분야에 제법 많이 진출하여 직업으로 삼고 있어서 이쪽 분야에서 여성들의 일자리는 다양하지도 않고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조혼을 하거나 일을 하는 여자들을 위해 손바느질을 선택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기초라도 배워가야겠다는 생각에 퀼트에 집중하여 시간을 단축하면서 배웠습니다. 바느질을 하려니 50대인 지라 눈이 침침하고 많은 재정도 필요했지만 등록하자마자 재정을 채워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바느질이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가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데에 사용되길 바랍니다.

세네갈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는데 널브러져 있는 물건들을 보며 잠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선교사가 된 뒤로 짐을 싸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선교사의 삶은 단 순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세네갈에 간 후 한동안 짐들은 먹을 것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워낙 없는 것이 많은 아프리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은 식량보다 사역 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기 사역을 나가기 위해 준비한 짐은 저희가 준비한 것보다 동역자분들이 마음을 담아주신 물품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책, 퀼트 패키지, 뜨개질 재료, 선크림, 마스크팩, 화장품, 한글 교재, 비타민과 영양제, 비상약품과 마스크, 그 외에도 다양한 것을 여러 모양으로 협력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짐들을 보며 이제는 저희만의 짐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선교에 대한 열정과 사랑, 그리고 동역의 기쁨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 자녀는 한국에서 비대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위해 부산 외할머니댁에서 군대 가기 전까지 지내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대하는 아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자녀는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잘 적응하고 지혜를 주셔서 독일어 습득을 잘하며 축구에 탁월함을 주시길, 마음을 지키고 강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아들이 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센터를 잘 이양받으며 P 선교사님의 센터 사역 마무리를 잘 돕도록
- 새로운 지역 Y에서 잘 적응하고 잘 정착하도록
- 두 자녀가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아들이 되도록

케냐

김현우 · 우주희

R 지역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모든 동역자님께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전합니다.

케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는데도 위생 관리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늘고 있어 무증상 환자와 감염 여부를 진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사역하는 두 분의 한국인 선교사님들도 양성판정을 받고 2주일 정도 입원 치료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는 소식을 접하며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누구에게나 쉽게 전파될 수 있으므로 개인 스스로가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서도 식량 보급, 사역자 가정 지붕 보수공사, 목회자 가정 지원, 소그룹 정기 모임, DTC(Disciple Training Center)의 지붕공사를 멈추지 않고 바쁘게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예상하지 않았던 숙소 건축까지 진행하게 되어 비용과 기간이 너무 많이 초과하는 바람에 탈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해도 재정은 턱없이 부족하고, 부실한 목재가 배달되고, 노동자들은 눈만 잠시 돌리면 놀고 있고, 벽돌을 쌓거나 바닥 시멘트를 바른 후 다시 부수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쉽지 않은 숙소 건축공사 과정을 통해 우리의 노력과 열심, 재정과 계획, 기술력 있는 노동자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과 함께 저희를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곳이다 보니 점심과 간식을 잘 먹이고 잘 가르치려고 하는데 부모님들은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가르쳐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가 다른 유치원으로 옮겼는데 많이 가르치는 학교에 보내고 싶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 유치원은 새벽 6시에 등원을 해서 오후 4시 30분까지 공부를 시킨다고 합니다. 부모도 아이도 모두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센터 숙소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남자아이 4명이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전기와 수도가 없고, 4~5명이 웅크려 잘 만큼 좁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명은 염소 우리 옆에서 형과 함께 지내는 데 위생 상태가 매우 나쁩니다. 다른 한 명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없고 폭력적입니다. 일시적 도움은 큰 의미가 없기에 그룹홈(기숙사)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며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을 보살펴 줄 청소년 사역에 은사가 있는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른과 교회학교 아이들로 나누어 두 번의 대면 예배를 시작하였는데 어른 예배에서는 예배 후 설교내용을 가지고 그룹별 나눔과 발표를 통하여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개학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일자리가 없는 부모들이 많다 보니 학비를 내지 못해 학교에서 쫓겨난 4명의 아동이 학비를 지원해 주기를 바라며 교회로 찾아오는 일도 있어 지혜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해안가 북동쪽의 R은 9년 전 저희가 첫 사역을 시작한 무슬림 지역입니다. K 지역에서 3년 가까이 사역을 하던 중 큰 테러로 60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위험한 지역으로 아직은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주시기에 그 땅을 사역지에서 제외한다면 주님 앞에 죄송한 생각이 들어 기도하며 조금씩 접촉하려고 합니다. R 지역에 한 달에 두 번 현지 사역자와 졸업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을 보내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거리도 멀고 환경도 열악하여 쉽지 않지만, 임시 처소를 조그맣게 이미 지었으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니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실 것으로 믿으며 기도함으로 전진하려 합니다. 동역자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도제목
- 그룹홈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 청소년 사역에 달란트가 있는 사역자와 유치원 교사를 보내주시도록
  - R 지역에 교회가 개척되고 복음이 심어지도록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계신 여러분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저희는 한창 건기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과 높은 습도에 견디기 힘든 환경이지만 가끔 불어주는 서늘한 바람이 어찌나 감사한지요. 이제 곧 시원한 비를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곳의 코로나19 상황을 정확히 아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들 추측할 뿐이지만 그리 심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저 평상시와 같이 생활하면서 안전 규칙을 잘 지키고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B 지역을 오갈 수 있는 차량을 샀습니다. 할렐루야! 시기도 그렇고 상황이 상황인 만큼 한국 물가의 두 배인 이곳에서 이 시기에 가능할까 싶었는데 역시 주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당신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싣고 코트디부아르 중심에 있는 B 지역에 교회 개척을 위해 다녀왔습니다. 대학 근처에 모임을 위한 공간을 임대할 계획을 세우고 그곳의 가장 오래된 교회의 목사님과 비전을 공유하는 미팅도 했습니다. B 지역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평화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뜻하신 주님의 일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E 교회는 더욱 부흥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B 교회 개척에 집중하기 위해 토요일 지역 전도에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E 교회의 모든 일은 현지 목사님께 맡겼는데 예배가 경건하면서도 뜨겁게 드러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2년 단기로 온 선교사님을 소개하기 위해 주일예배에 참석했는데 교회 의자를 더 준비해야 할 만큼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아이들은 자체적으로 교회 뒷마당에 간이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습이 참 감사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새로 오신 선교사님이 언어와 문화에 잘 적응하고 함께 귀한 협력을 하여 꽃피우고 열매 맺는 일의 동역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이 큐티방인 천사의 빵집에는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S 초등학교 아이들과 지역 아이들 250여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입니다. 지역의 가난한 아이들은 학교에 다녀본 경험도 없으나 다 헤어진 책가방이 어디서 났는지 낡은 가방을 메고 뜨거운 태양 아래 S 초등학교의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종소리와 함께 뛰어 들어옵니다. 모두 자기 자리를 찾기에 바쁩니다. 한 아이는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동생을 업고 출석을 합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찾아온 아이들을 때리며 데려갔던 한 무슬림 엄마는 지금은 오히려 아이를 데려다 놓고 일을 보러 가기도 합니다. 물론 간식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무슬림의 이러한 행동은 저희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고 부드럽게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저희의 기도와 바람은 오직 이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다른 아이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들의 마음에 깊게 뿌리 내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큐티방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큐티 모임도 인원이 늘었습니다. 초기에는 A 대학교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C 대학교의 학생 두 명도 함께합니다. 새로 온 두 명의 형제 M과 J는 경제학과 공학을 전공하며 감리교회를 다녔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간단한 게임으로 마음을 열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제목을 두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간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활짝 열리고 모임 중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 기도제목
- B 지역의 교회 개척을 위해 준비해주신 사람들을 만나도록
  - 큐티방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 삶이 변하고 일꾼들로 성장하도록
  - 큐티방을 섬기는 교사와 스태프들이 축복받으며 사명을 찾는 자들이 되도록
-

샬롬! 동역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 덕분에 출국 준비부터 현지 정착까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선교지가 새롭게 결정된 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두셨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당장 제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기에 낙심도 하고 출국을 주저했습니다. 어느 날, 한 설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을 듣는데 ‘만족스러운 준비를 바라다가는 영영 못 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준비해 두셨다는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주저함과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결단하고 감사 기도를 한 후, 선교본부와 조율하여 2월 중순으로 출국일을 정했습니다. 에티오피아까지 13시간, 다시 코트디부아르까지 6시간으로 거의 온종일 비행기를 탄 셈입니다. 하지만 이 거리는 제가 망설였던 시간에 비하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착한 숙소에는 에어컨을 비롯해 침대, 소파, 책상, 수납장까지 저의 필요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김빌립·임비희 선교사님께서 숙소와 필요한 여러 가지를 미리 준비해주셔서 순적하게 이곳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야 할 항목에 들어있던 것들이 다 있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주신 선교사님 두 분께 또한 감사했습니다.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에 감사하고, 출국을 망설였던 저의 부족한 믿음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야 했습니다.

E 교회에서 첫 주일예배를 드렸습니다. 아프리카에서의 예배는 찬양과 기도로 1시간, 설교 1시간, 그리고 광고 30분으로 기본 2~3시간입니다. 이들의 삶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예배 시간의 광고는 중요하다고 합니다. 설교가 끝나고 3명의 새신자 소개

시간에 한 자매가 기도를 받던 중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기도 가운데 약한 영이 드러난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던 나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과 구원의 은혜를 아프리카 땅의 많은 영혼도 알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임빰빰 선교사님이 사역 중인 천사의 빵집(어린이큐티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S 초등학교로 향하는 길목에서 아이들이 선교사님을 발견하면 반갑게 “마담 킴! 마담 킴!”하고 외칩니다. 바닥에 쓰레기가 많고 길이 험해서 사람이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나 싶은 이 지역의 아이들을 안아주고 반기며 얼굴을 쓰다듬어 주는 임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다가오는 아이들을 축복해주는 예수님과 낮은 곳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큐티방은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는 지역의 아이들도 와서 찬양을 부르고 성경 말씀을 큰 소리로 따라 말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좁은 교실이 북적북적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발표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기뻐했습니다. 큐티가 끝나고 나면 빵과 음료를 나누어 줍니다. 간식을 받으러 오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귀로 듣고,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기어져서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뿌리내리고 열매 맺게 되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저는 S 초등학교에서 화요일마다 5~6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관계를 잘 형성해서 이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무엇보다 프랑스어에 능숙해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이들 가운데 예비하신 아이들과 함께 소그룹 성경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성경 모임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심고,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와 코트디부아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 기도제목
- 현지 문화에 잘 적응하고 프랑스어 공부하는데 지혜를 주시도록
  - 아이들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고 언어를 잘하게 되어 소그룹 성경모임이 이루어지도록
  - 김빌립-임빰빰 선교사님 가정과 주 안에서 화목하도록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께 문안드립니다.

올해 초에 장로교 현지 교단에서 연합으로 바닷가에서 세례식을 했는데 7명의 세례 받을 지체들(청년 4명 외)과 가족, 성도들 15명이 버스를 대절해 함께 올라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세례받은 귀한 지체들이 모두 주님의 은혜 안에 복된 삶을 살며 주님의 제자들로 성숙해 가도록 기도드립니다. 바닷가가 있는 D 지역을 거의 가본 적이 없는 지체들과 함께 시내를 구경하고 음식점에 들어가 맛있는 식사를 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모두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세례를 통해 은혜 베푸시고 넘치는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T 교회의 헌당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교단 리더십들과 여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교회 리더십들과 바닷가 무슬림 마을들의 복음화를 위해 비전을 나누게 하시고 함께 협력하도록 인도해주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J 전도사와 교회를 통해 주변 지역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넘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교단장님께 종족의 유일한 전도사인 H를 특별히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렸는데 그 후 교단에서 H 전도사의 2년 동안의 학비와 공부하는 동안 7명 가족의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결정이 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던 H 전도사의 학비로 또 다른 전도사를 지원해 줄 수 있어 감사합니다. 교단 리더십들과 성도들 모두 교회 건축을 후원해 주신 한국 성도님들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E 교회 건축이 완공되었습니다. 좋은 날씨를 주셔서 순적하게 대우기가 오기 전에 마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 처소에서 드리던 예배를 부활 주일부터 새로 건축된 교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교회 건축을 위해 중보해주시고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 교회가 바닷가 무슬림 마을들을 복음화에 쓰실 주님의 제자들이 계속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금은 청년 리더십 양육 센터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하며 함께 성경 공부하고 전도 훈련할 장소입니다.

우물이 없는 지역에 연이어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해 펌프로 끌어올려 물 탱크에 저장해 수압을 이용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E 지역과 주변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금기 없는 생수가 넘쳐흘러 학생들과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사용함으로 육체가 건강하고, 영으로는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접점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K 지역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바닷가 무슬림 마을이고 교회가 없습니다. 모스크만 두 개가 있고 중학교 종교 시간에 이슬람 반만 진행되는 무슬림이 강한 지역입니다. 지체들과 이 지역을 계속 방문하며 복음의 토양을 기경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이번에 중학교에 우물을 파는 사역을 진행함과 동시에 지역 지도자들에게 교회 부지를 구입하는 것과 R 전도사 가족이 들어가 살도록 허락받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교회와 성도님들과 함께 아름답게 동역하게 하셔서 이 땅의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R 전도사 가족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U 지역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K 지역에서 8킬로 정도 떨어진 바닷가 무슬림 마을이며 이곳에도 교회가 없습니다. D 선교사가 하반기에 U 지역으로 파송될 예정인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며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 기도제목
- E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도록
  - 신학생들이 바닷가 무슬림 지역 복음화에 같은 비전을 품고 연합하며 충성되도록
  - K와 U에 파송되는 R과 D가 잘 준비하고,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도록
-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베드로전서 1:16) 코로나19로 모든 상황이 바뀐 일 년, 감사하게도 많은 것을 목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거룩함이 장소의 의미였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관계적인 의미로 어떻게 거룩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것인지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강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다르게 ‘영적인 친밀함’을 우리의 삶과 일터에서 추구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깊은 친밀감을 창조주와 누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기도 편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2월에 코로나19 양성이나왔지만, 그 당시 큰 증상 없이 잘 회복되었습니다. 2021년이 되면서 저희 가정에는 새로운 사역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선 육체적으로는 6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보건 사역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건을 뛰어넘어 교육, 문화 등 훨씬 다양한 사역들을 현지인들과 하는 놀라운 기회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코이카의 지원이 중단되었는데도 말입니다. 특별히 야학과 시골 지역 여학생 기숙사 지원 사역, 그리고 저소득층 여성 직업훈련 센터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일하고 있는 아프리카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 영역에만 머물면서 사역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추구해 왔던 총체적 접근이 실질적으로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구했던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사역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사역자들이 줄고 재정적으로 부족한데다 정부의 감시와 행정적 제한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들어가 크리스천 외국인으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사역한다는 것은 큰 도전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신앙적 태도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꽃을 피우시는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도전을 하게 하시고 길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창세기 50:20) 2021년이 되어 그분 앞에서 간절히 간구하였던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하는 믿음의 현지 공동체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말씀 1년 1독을 계획하고 제자화 훈련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월에 저희 현지인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자매가 그동안 임신이 되지 않아서 기도하였는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적 공동체의 성장은 물론이고, 어려운 가운데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시골 여자 기숙사 지원과 저희가 사는 주위 가난한 지역에 대학 입시 과목을 포함한 방과후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여성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천 마스크, 면 생리대, 가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S국에서는 도시 빈민 지역에 의료지원을 위한 클리닉과 청소년 센터를 세우기 위해 사전작업으로 지속적인 무료의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양이 부족한 아동들에게 기초음식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현지인들과 함께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한 능력과 동역자분들의 기도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복음을 위해 사역의 총체적 접근이 잘 이루어지도록
- 현지 공동체의 말씀 1년 1독과 제자화 훈련이 잘 진행되도록
- 시골 여자 기숙사, 방과후 프로젝트, 저소득층 여성, 무료 진료, 아동 기초음식 지원이 잘되도록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J 족이 밀집해 사는 곳으로 이사하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이 교회 소유라서 담당자와 집 문제를 의논해야 하는데, 서로 오해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의사소통을 잘하여 집 문제가 잘 해결되며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현재 두 명의 선생님께 현지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 선생님과과는 찬송가로 언어를 배우는데 선생님께서 찬송가에 나오는 ‘빛’을 설명하시면서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간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현지 아이들과 사람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저를 놀리기도 하고 언어가 잘되지 않아서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 설명을 들으면서 저에게 있던 어둠과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문제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금 말씀과 기도밖에 없음을 보며 도전과 영적 전쟁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가야 함을 다짐했습니다.

언어 기간 6개월을 마치면 파트 사역을 해야 하는데 사역의 방향을 알게 하시고 장기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현지어로 된 성경이 곧 출판됩니다. 번역된 성경이 읽히고 선포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길에 작은 부분이라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 교회의 담당자와 집 문제를 잘 해결하며 좋은 관계를 맺도록
- 언어의 지혜가 부어져 현지어를 잘 배우고 현지인 친구들을 사귀도록
- 사역의 방향을 알게 하시고 장기사역을 준비하며 함께할 동역자를 주시도록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안식년을 갖기 위해 출발했던 에티오피아를 다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자비량 선교를 위한 구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직업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간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해 주지 않는 한 미국에서의 학업을 마치는 대로 잠시 한국에 방문한 후 아이들의 새 학기가 시작되는 8월에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한 작은 믿음의 결단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아 선교사는 에티오피아에 단기 방문을 하면서 연구 활동을 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여정이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노아 선교사는 그동안 재미 한국인 의사들과 온라인상에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했던 진료와 종합 검진 등을 위해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는 대면 수업이 재개되어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첫째 아이는 아직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는데 인생의 큰 전환기를 맞이할 삼 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 기도제목
- 안식년을 마친 후 에티오피아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 가족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도록
  - 자녀들이 인생의 전환기를 잘 맞이하고 준비하도록

세네갈

정직한 · 정결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차량이 허락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최근 세네갈 곳곳에서 시위가 번지게 되면서 슈퍼마켓과 주유소, 방송국 등이 시위대의 습격을 받아 피해가 속출하는 곳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 입구 도로 한 가운데에 타이어를 쌓아 태우고 돌맹이를 던지려는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생각에 잠깁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선동에 이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하며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져옵니다. 함께 사역하였던 NGO 단체의 존경하는 지부장님께서 주님 품에 안기셨고, 또한 지인의 5살 아들이 사고로 주님 품에 안겼다는 소식은 저에게 죽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가까운 지인들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코로나19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소망의 복음이 끊이지 않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흙 속에 파묻혀있는 보물을 찾듯이 당장은 보이지 않던 귀한 영혼을 찾기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식적으로 저희 사역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기에 조심스럽게 지내며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쁜 사역의 일정으로 프랑스어 습득의 시간을 가지지 못했기에 언어 학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시험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를 맺으며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제목

-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전해져 변화되도록
- 프랑스어를 잘 습득하여 언어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 사역할 때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 가나

김루이스  
강한나

### BEE 사역자들과 등록한 학생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 가나 주요 도시와 서아프리카 불어권 국가에서 BEE 사역이 시작되도록
- 코트디부아르에서 1·2세대에 의해 BEE 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 T 국의 첫 제자훈련 그룹에 은혜가 풍성히 임하도록
- 불어 번역자를 찾았는데 교회지도자 과정 학습서가 속히 출판되도록
-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신속히 이루어져 연기된 세미나가 재개되도록
- 동역자들과 가족을 지켜주시고 선교사 가정이 성령 충만하도록
- 생활에 필요한 재정과 학비가 은혜롭게 채워지도록

## 감비아

보아스  
나오미

### 무슬림들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 성인 공동체와 어린이 예배가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 태권도와 공부방에 오는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 무슬림들이 주님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믿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 어린이 P가 발 재건 수술을 받는데 수술 일정, 재정, 모든 상황이 잘 이루어지도록
- 함께 사역할 팀이 세워지도록
- 선교사 부부가 건강하며 한국에 있는 자녀가 주님의 사랑과 섭리를 경험하도록

## 남수단

정피터  
손사라

### 지역개발과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도록

-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도록
- 난민촌 양계장에 들어온 병아리 550마리가 잘 살아서 자립의 희망이 되도록
- 지역개발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난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가 개척되도록

## 말라위

박일구  
신인순

### NGO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 진행 중인 농장 안에 주택 공사가 잘 완공되며 박일구 선교사에게 지혜가 부어지도록
- 토요복음학교의 교사와 학생 모두 주님을 알아가며 말씀 속에서 감사가 나오도록
- 크리스천 대통령을 중심으로 부정부패가 사라지며 국민을 위한 정부로 세워지도록
- 코로나19가 사라지고 경제가 회복되도록

## 모로코

김갈렙  
차한나

### 현지 협력 교회 내의 갈등이 해결되도록

- 안식년 동안 차한나 선교사가 어머니와의 시간을 잘 보내도록
- 차한나 선교사의 오른쪽 어깨 통증 치료가 잘되어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 8월의 현장 복귀를 위한 준비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 협력하고 있는 현지 M 교회 내에 협소한 처소 문제로 갈등이 생겼는데 서로를 이해하면서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 모로코

이보라

### 문화센터 운영과 거주증 심사가 잘 진행되도록

-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 문화센터에 예비된 수강생들이 오며 센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 거주증 심사가 잘 통과되어 비자를 순전히 받도록

## 세네갈

아이작  
사만다

### 코로나19로부터 보호되고 빛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 소망을 회복하며 각자에게 허락하신 빛이 임한다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붙잡도록
- 선교사 가정의 믿음과 기도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보호가 있도록
- 마을과 아프리카 대륙이 코로나19로부터 보호되도록

## 에티오피아

윤브루하누  
이블렌

### 내전과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 연방 정부군과 주 정부군과의 내전에서 인명 손실이 최소화되고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 내전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 안 되고 있는데 모두 안전하게 위기를 넘기도록

## 케냐

갈렙 신  
쥬슈아 흥

### 사역에 필요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코로나19에 안전하도록

- 사역에 필요한 차량이 마련되도록
- 많은 책자와 행정 소요를 감당할 사무실과 행정직원이 채워지도록
- 코로나19가 급증하고 있는데 교회 가족 모두 건강하고 영적으로는 성숙하도록
- 결혼세미나를 수강하는 선교사님들이 먼저 부부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며 선교사님들을 위한 BEE 사역의 마중물이 되도록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세 자녀가 학업의 부담을 이기며 진로를 잘 준비하도록

## 콩고

김사무엘  
에스더

### 건설관리 프로젝트에 돕는 자를 붙여주시도록

- 새로운 직장에서 아프리카 지역 건설관리 프로젝트 수주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 주님의 지혜로 잘 준비하도록
- 김사무엘 선교사 어머니의 심근경색이 낫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도록
- 자녀들이 가정 예배와 주일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 탄자니아

이영재  
최영미

### 세례받은 성도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 세례받은 23명의 성도가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 부흥하고 있는 성인 예배의 교회 리더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서로를 잘 섬기도록
- A 전도사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사랑과 기도로 잘 인도하고 양육하도록
- 58명의 유치원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암송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 마을의 한센병 환우 50명에게 매달 식량을 지원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가운데에도 건강을 잃지 않고 속히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도록
- 지하수를 개발해 준 14곳의 마을, 학교, 병원, 교도소에서 순회 복음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 튀니지

박사라

### Sh의 가족이 구원받으며 센터가 잘 활용되도록

- 현지인 Sh의 어머니의 넓적다리뼈에 금이 갔는데 낫도록
- Sh의 부모님과 6명의 자녀 중 일부만 주님을 믿는데 가족이 모두 구원받도록
- 센터가 모임, 교제, 양육, 훈련, 기도, 연합의 공간으로 역할을 하도록
-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 튀니지

이성령  
김단비

### 센터 오픈 준비가 잘되도록

- J, Sa, Sh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하는 믿음을 갖도록
- Sh 어머니의 신장과 쓸개에서 돌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수술 없이 약물치료가 잘 이루어지도록
- 비즈니스 회사 주소 이전 후 비자 획득, 아랍어 공부, 주일예배 준비, 센터 오픈 준비가 잘 이루어지도록





온누리에서 ON편지

**유라시아  
미주  
오세아니아**

러시아 K·M 선교사

학생·청년 사역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인도해주시기를

시간은 흘러갑니다. 평생 학생사역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기도하던 17년 전과는 많은 것이 변하였고 또 변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과 나이 차이가 나면서 생각과 사고방식이 많이 다를음을 느낍니다. 러시아 학생들에게는 저희가 외국인이라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대화를 곧잘 나누곤 했는데, 이것마저도 어려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최근에는 ‘내가 얼마나 더 학생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현장사역을 지속해야 할지 아니면 현장사역을 지원하는 사역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학생과 청년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M 선교사는 봄학기를 맞아 노트북을 백업하던 중에 한동안 손대지 않던 논문 폴더를 열어보았습니다. 이 러저러한 이유로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참고서적이나 자료들을 분류하면서 삶에서도 집중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



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의 성장을 돕는 나를 향한 소명은 어떤 것일까? 논문을 쓰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은 아닐 텐데,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하며 실력을 갖추어나가려고 합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체력이 받쳐주도록 기도해주시시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을 갖지 못하다가 봄학기가 시작되면서 대면 모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며 손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소극적이던 학생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합니다. 두 주에 한 번 모이자고 제안했더니 매주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왜들 이렇게 변했지?’ 싶었는데, 팀 간사님과 학생 단기선교사들의 헌신이 영향을 많이 주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9년 러시아에 와서 처음 경험한 곳인 I 도시에 다녀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정착하던 11년 전에는 설렘도 두려움도 느낄 여유가 없었는데, 이번 방문 때는 뭘지 모르게 마음속 깊이 간질간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었습니다. 4박 5일 방문 기간에 러시아에 대해 가르쳐주신 선생님, 말썹꾸러기였던 제자(벌써 자녀가 두 명입니다), 함께 사역하던 현지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바이칼 호수, 시내의 카페, 강가를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사역적 목적이 있었기에 일정이 빠듯하긴 했지만,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여전히 사역적 필요가 있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지난 2월부터 매 주일 저녁에 현지 목사님들과 식사 교제를 하고 찬양 및 기도 모임을 합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네댓 명이 모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소박한 식사를 마치고 찬양하고 기도를 할 때면 “이곳이 좋사오니”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개인적인 것들을 나누면서 잠시 사역자라는 직책을 내려놓고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매주 만나는데도 웃음이 끊이지 않고 이야깃거리가 마르지 않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선교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교단체를 접하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훈련을 받을 수 없어 아쉬워하는 청년들입니다. 이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그리고 선교를 배우고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지 제자 중에 리더를 하겠다고 자청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러시아 청년이 이러한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라 많이 놀랐습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매일 단체 채팅방에 큐티 내용과 기도제목을 올리는데, 친구들이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 기도제목

- 현지 제자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행하여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 선교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고 준비되도록
- 향후 사역의 방향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를 수 있도록

## 러시아

## 김알렉산드르

사역의 걸음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안녕하세요! 제 사역에 관해 여러분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2월 6일에 러시아에 도착했고, 2월 14일부터 임마누엘이라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B 도시 근처에 있는 A라는 작은 도시에 있습니다. 저희는 주일예배, 주일 어린이 사역, 목요 기도 모임, 토요 청소년 사역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 기도제목

- 선하고 효과적으로 사역하는 목사가 되도록
- 임마누엘 교회가 건강하고 축복받은 교회가 되며 재정이 채워지도록
- 사역을 하기 위한 효과적인 팀을 만들도록
- 법률 제한 속에서 전도하는 방법을 찾도록
- 하나님께서 충실한 미디어 사역 팀원들을 보내주시기를
- 소그룹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리더를 보내주시기를

이곳은 현재 집단면역을 거치고 안정기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학교를 중심으로 일일 확진자가 200명 정도 나오고 있으나,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갖지는 않는 듯 합니다. AZ 백신이 수입되고 있지만 아직 접종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가 코로나19 구제로 모인 모임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명이던 것이 8명으로 늘었고, 매주 월례회로 모여 기도하며 구제 대상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섬기는 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폐 손상이 심한 60대 고려인, 자신의 삶도 어려운데 S 지역에서 구제 사역을 하시는 아주머니, 공동체 중에서 지병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여러 가정들, 코로나19로 어머니를 잃은 정신지체장애인 여성 그리고 한부모 가정의 여성 가정 세 명 등입니다.

귀납적 연구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지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네 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야고보서, 갈라디아서를 마쳤고 로마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지어로 된 프리젠테이션 자료(ppt)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 사역이 잘 진행되어 소외된 지방의 현지 제자들이 진리로 자유와 새로움을 입게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저희 세계 학교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두 배 늘었고, 좋은 선생님들도 여러 명 오셨습니다. 교사는 현지인이 90%인데 학생은 한국인이 70%입니다. 건물 임대비가 비싸서 학비 부담이 생기고 이로 인해 형편이 어려운 사역자들과 현지인 자녀들이 학교에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건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인 학생 수가 늘고 건축을 위한 재정이 마련되도록 기도해주시시오.

기도제목

- 구제 사역이 단순히 현금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가난한 이들과 동행하고 그들의 삶과 필요에 관심하며 나눔과 돌봄을 실천하게 되도록
- 귀납적 연구 모임에서 만드는 시청각 자료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잘 만들어지고 필요한 이들에게 잘 전해져서 진리로 자유케 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 세계 학교의 건축 재정이 마련되고 현지인 학생이 늘도록

## 우즈베키스탄 ▶ 이다윗 · 험시바

H 병원을 하나님의 예배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최근 이곳에선 다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적은 숫자이지만 올해 3월부터 확진자 수가 늘어 방역 강화 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행정력 미비와 의료환경 취약으로 집단 감염 사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H 병원의 경우 고열과 인후통이 있는 의료진이 있어 시에서 허가한 코로나19 검사 전문병원을 찾아갔으나 검사를 받지 못했고, 귀가한 후 어떤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자연치유로 회복되었습니다. 환자들 대부분이 자연치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현재까지 고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병가를 내고 자연치유로 회복한 직원이 저희를 포함하여 60% 정도 됩니다. H 병원뿐 아니라 일반 기관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예배로 시작하는 H 병원의 아침 햇살이 점차 밝고 따스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 조금씩 마음의 귀를 열고 피드백을 나누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울려 퍼도치길 더 기도하게 됩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테이블 위에 십자가 그림과 함께 시편 말씀을 프린트해 붙여둔 간호사의 모습을 보며, 또 성경공부 모임을 통해 삶이 변하고 주일에 예배공동체를 찾아가는 직원의 모습을 보며 주께서 이들을 만져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직원회의 때 나브루즈(춘분을 축하하는 축제) 명절을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보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웃들에게 오쉬(기름밥)와 논(빵)을 나눠주고 이동 진료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좋은 생각인 듯하여 지난 3월 19일에는 인근 시각 장애인 마을을 찾아가 나브루즈 맞

이 행사를 했습니다. 평소 근무 태도가 좋지 않던 직원까지도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섬기고 모두 새롭게 하나 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사회 취약층을 치료하고 예배공동체를 세워간다는 설립목적에 맞는 병원으로 성장해가도록 ‘약’ 문제를 놓고 기도해왔는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되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매년 의료봉사팀(시온여성병원, 이화여대병원, 고신병원, 미치과 등)이 봉사활동 후 남은 약을 두고 가셔서 그동안 걱정 없이 약을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약을 받지 못하고 있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타슈켄트에 있는 어떤 분이 약을 기증하고 싶다는 연락을 주셔서 곧바로 올라가 확인해보니, 한국 유명 제약회사의 지사 부사장인 분이 H 병원 소식을 접하고 정기적으로 약을 기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희의 노력도 능력도 아닌 일들이 많으니 그저 은혜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심장병을 앓던 샤희나는 작년 12월에 8시간에 걸친 2차 수술을 잘 받았고 지금은 회복 중입니다. 심장병 수술 중에서도 어려운 경우라서 의사도 부담을 많이 느꼈고, 1차 수술 후 샤희나의 컨디션을 지켜보며 2차 수술을 받기까지 1년 2개월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고 경과가 좋아 얼마나 감사한지요. 샤희나의 꿈은 아픈 아이들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샤희나와 그 가정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

- 아침 예배와 성경공부를 통하여 많은 직원들이 진리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 심장병 수술을 받은 샤희나가 잘 회복되고 그 가정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 H 법인과 협력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귀한 열매로 이어지길
- 날마다 십자가만 바라보며 저희 자신은 죽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 연로하신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두 자녀에게 신실한 믿음 주시기를

## 우즈베키스탄 ▶ 윤요셉 · 신마리아

주 안에서 만남과 교제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온누리교회의 모든 분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신지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항상 마음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온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두렵고 힘들었지만,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을 다른 시각으로 전환하고 배우는 기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작년 10월 격리해제 후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한국보다는 규제와 관리가 약해 염려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별 무리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는 소속 단체의 교육센터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와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K-POP 열풍과 함께 한국어가 가져다주는 인생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 배우려는 학생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아이들에게 맞게 기초단계부터 다양한 부분을 가르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아이들은 더 크게 꿈꾸고 성장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하고, 아이들의 가정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 예수를 알게 되고 삶의 영역들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시길 주 안에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천국소망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부르시고 사용하심에 감사드리며 기도로 저희와 함께해주시는 모든 동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기도제목

- 수업을 통해 좋은 만남과 교제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 맡겨진 컴퓨터와 한국어 수업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감당하도록
-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도록

<p><b>러시아</b></p> <p>김조수아 장사라</p>	<p><b>건강하고 성령 충만하여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모두 성령 충만하여 잘 생활하며, 비자 연장이 순조롭도록</li> <li>·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감당할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섬길 수 있도록</li> <li>· 선교사 학교가 안전하게 잘 진행되도록</li> </ul>
<p><b>카자흐스탄</b></p> <p>김신영</p>	<p><b>사역에 기름 부음이 있도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UMC 센터의 개원 예배가 은혜롭게 잘 드러지고 사역에 기름 부음이 있도록</li> <li>· 어머니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무릎 통증과 천식이 나오시기를</li> <li>·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강건하도록</li> </ul>
<p><b>카자흐스탄</b></p> <p>장드보라</p>	<p><b>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예배와 모임이 활발해지도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장에 있는 U족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강건하며 그곳에 계속 부흥이 일어나도록</li> <li>· AUMC 센터를 많은 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li> <li>·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과 가정에 말씀의 선한 영향력과 삶을 나눌 수 있도록</li> <li>· A 지역에 증가하는 코로나19 감염이 진정되고 예배와 모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li> </ul>
<p><b>아제르바이잔</b></p> <p>조수산나</p>	<p><b>만나는 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에 있던 네팔 친구들이 거의 떠났지만 또 다른 친구들이 오면서 모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새로 온 친구들도 복음을 제대로 듣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li> <li>·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었지만 외출 제한이 없어 학교에 주 1회 나가고 있는데, 만남이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li> </ul>
<p><b>타지키스탄</b></p> <p>차요셉 방라헬</p>	<p><b>취약계층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전해지도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인 한부모 가정의 여성과 아프간 난민 가정에 육신의 필요뿐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전달될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li> <li>· 타지키스탄의 육로 국경이 열려서 주변국을 왕래하며,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물가가 안정되고 열악한 경제 상황이 하루속히 호전되도록</li> </ul>
<p><b>우즈베키스탄</b></p> <p>스타니슬라브 엘레나</p>	<p><b>교회와 중독센터의 사람들이 강건하도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회와 사역이 주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도록</li> <li>· 중독센터가 치유와 복음 증거의 장소가 되도록</li> <li>· 가족이 건강하고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도록</li> </ul>

카자흐  
스탄

토마스 · 세라

바울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교지에 잘 정착할 수 있기를

A 지역에 온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마당과 텃밭이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아는 분의 집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용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필요한 기간 만큼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자주 이사해야 하는 불편은 없을 듯합니다. 이곳에 도착하여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고 정착하느



라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때마침 한국으로 들어가는 분이 계셔서 집을 정리하며 내놓은 물건들을 저렴하게 받았는데, 저희 형편으론 구입하기 힘든 좋은 물건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A 도시 변두리에 자리하고 있는데 시내보다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매우 친절해 보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귀며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 지금은 집에서 격리 중입니다. 학교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친구를 통해 감염된 것 같은데, 아직 특별한 증상은 없습니다. 함께 검사를 받은 아내는 다행히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 몰라서 가족 모두가 다음 주까지는 격리를 하고 다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몇몇 학생과 교사들도 감염이 되었다고 하고, 지난주부터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되면 집에서 격리하며 특별한 치료 없이 말라리아약과 비타민 등을 복용하며 견디는데, 증상이 심하면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다행히 저희는 특별한 증상이 없고 위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주변의 사역자들이 필요한 약과 음식들을 공급해주시고 있는데 미안할 정도의 많은 도움과 배려를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영주권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4~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영주권이 나오면 10년 장기 체류가 가능한데, 1인당 1만 달러를 은행에 예치하

면 큰 조건 없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많이 관대해졌고 비용도 많이 줄어든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대행업체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대부분 준비하였고 현재는 번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담당 기관에 1차 접수를 해야 하는데, 최근 몇몇 분의 영주권 발급이 거절되었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 간혹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그저 저희에게 해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숙해진 한국을 떠나 다시 낯선 땅으로 들어가면서 ‘처음도 아닌데...’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강요하며 애써 두려움과 걱정을 외면한 것 같습니다. 출국 준비에서 입국까지 쉽지 않았던 과정들이었지만, 지금 다시 돌아해보면 저의 믿음 없음과 그와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바울이 가졌던 일체의 비결을 이제 이곳에서 좀 더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해봅니다.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제목

- 아들이 코로나19 자가격리에서 무사히 해제되고 가족 모두 건강하도록
- 영주권 발급과 관련한 모든 일들이 순탄히 마쳐지기를
- 바울의 믿음과 비결로 은혜 가운데 잘 정착할 수 있게 되기를

이 땅에 온 지 2년이 되어갑니다. 앞으로의 사역 방향과 비자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며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학생비자로 1년 더 국립대에 신청하였는데, 부학장이 인근 국가에 갔다 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달리 인근 국가에서 들어오는 비자는 주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출입국 시 검사도 해야 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차례 부탁을 하고 3월 첫 주에 마지막으로 찾아가 부탁해보았지만 역시 동일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막막한 심정으로 담당 직원을 만나러 가는 길에 한 여직원을 만나 저희의 상황을 나누게 되었는데, 자신이 부학장과 얘기해보겠다며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 여직원은 인근 국가로 나가지 않고 비자 서류를 준비해도 된다는 답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고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기도하며 마음이 어려웠는데 한 번에 해결해주신 것입니다. 비자로 인해 너무 마음이 어려울 때 이사야 41장 10~11절 말씀을 주셨음에도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저희를 보며 우리의 연합함과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말씀이 힘과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기적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2월 말부터 M 교회는 분리 개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협력하는 세 가정의 주일예배는 같이 드리고, 한 가정은 형제들 몇명과 함께 수요예배를 분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리더십도 키워가고 분리 개척의 깃을 줄여가며 각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지난 2월 저희집에서 자매들만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단기선교를 다녀온 믿음이 확실한 자매, 이제 믿음을 고백하고 나오기 시작한 자매, 아직 믿음이 없는 M 자매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분과 저, 이렇게 5명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같이 1박을 하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자매들이 성장하고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저희집 마당에도 봄이 오면서 아이들은 자전거도 타고 마당에서 소풍 놀이도 하며 돌이서 잘 놀고 학교생활도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보내진 아이들의 성탄절 선물과 식재료를 이번 2월에 받았습니다. 긴 시간과 기다림 끝에 받은 선물로 아이들이 엄청 좋아했고,

다 떨어졌던 식자재들을 받을 수 있어 저도 아주 기뻐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아이들이 이곳에서 기뻐하며 살아갈길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요즘 실감합니다. 같이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는 M 자매는 자신이 알고 있는 무슬림과 성경 이야기의 다른 부분을 질문하며 어려워하기도 하고, 때론 자신이 무슬림임을 강조하기도 하며 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함께하는 날까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 진리를 깨닫길 소망합니다. M 자매의 어머니가 발목이 아프고 건강이 안 좋아 침을 놓아드리고 있고, 유치원으로 침 사역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또 인근지역을 다니며 노방전도와 가정방문도 하였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영접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또한 아이가 아픈 가정을 만나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기생충이 많아 다리가 마르고 걷지 못하기도 하여, 저희에게 몇 개 남은 구충제를 먹고 침도 놓아주었습니다. 아이의 건강이 회복되고 교제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주실 주님의 열매를 소망합니다. 금방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지지치 않도록 기도해주시시오.

#### 기도제목

- 새롭게 교제하는 가정과 침 사역을 통해 만나게 된 이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 믿음이 생기도록
- 바쁜 사역 가운데 가족 모두 건강하고, 저희가 겸손하게 섬기는 자 되도록
- M 교회의 분리 개척이 잘 이루어져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 언어 훈련과정과 테스트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영국의 코로나19 상황이 급진적으로 좋아져 오랫동안 문을 닫았던 호프하우스를 열고 4월 12일부터 영어교실과 무슬림 여인들 모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기약 없이 문을 여닫으며 불안했던 작년과 달리 이제는 ‘시작’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4월 13일부터 라마단이 시작되어 무슬림 여인들의 참석이 아직 저조하기는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기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호프 하우스 내외를 단장하고, 이슬람 최대 명절 이드이가 지나면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미드를 제외한 I국 사람들의 망명 신청이 통과되어 다른 도시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훈련된 사람들이 떠나면 다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사역의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실망, 낙담, 부담, 영적 피곤함 등을 어느 순간 깨끗이 제거하시고 다시 새로운 힘과 기대감을 부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가장 힘든 시기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위로하게 하셨고, 복음으로 훈련시켜 이들의 다음 과정을 준비케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I어권 사람들이 선호하는 런던이나 큰 도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사역을 크게 확장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이 아직은 이곳에 있음을 알기에 이곳에서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저의 부족한 부분을 더욱 훈련하고 이 땅의 외로운 난민들과 망명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통역을 맡았던 마흐닷이 다른 도시로 옮기는 때에 마침 교회에 나온 Mo가 I어권 성경공부의 통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정부 혜택을 못 받고 노숙자처럼 지내던 Mo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더이상 희망이 없다 느낄 때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망명 신청 과정 동안 매주 35파운드씩 교회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지내길 권유하는 동료들이 있어 이곳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I국을 떠난 후 한 번도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 그가 이제는 교회의 섬김과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

---

직은 성경적 표현과 언어에 서툴지만 로즈의 도움으로 나아지고 있으며 본인도 무언가를 할 수 있고 교회와 민족에 도움이 되는 것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샤론이 호프하우스 봉사에 자원하였습니다. 사우디에서 인도인 목회를 하던 아버지와 함께 18년을 지냈고 남편 또한 목회자 자녀라 이슬람에 대한 이해와 마음이 남다른데다, 또한 짐(Jim)이 필립목사님, 저와 I어권 성경공부를 함께 이끌게 되어 제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로즈는 신장이 많이 좋아졌고 사역에도 잘 적응하였습니다. 봉쇄 기간 6주 동안 로즈와 함께 금요일마다 성도님들이 만든 케이크와 직접 쓴 카드를 주변에 전하며 안부를 묻고 기도 해주었습니다. 부활절에는 호프하우스 무슬림 여인 3명이 참석하여 함께 찬양했으며 부활절 이후 시작한 I어권 새신자 8주 과정에도 9명이 참석하였고, 사라가 월요 성경 모임에 참석하기로 하여 로즈와 번갈아가며 아이들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정부로부터 집을 배정받은 후상의 심방을 위해 기도하던 중, 어느 분이 며칠 전 현금해주신 30파운드가 기억나 생필품과 쌀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터키에서 온라인으로 성경공부에 참석하는 I국인 로헬라가 몇 달간 월급을 못 받고 월세가 밀려 집을 비워야 해 기도하던 중 저를 중보하는 어느 소그룹에서 필요한 재정을 보내주셔서, 로헬라의 집에서 I국인 5명이 성경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제 입술을 열어 알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미리, 때로는 정확한 때에 필요를 채우십니다. 각 사람의 섬김을 통해 영적 열매가 많이 맺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통해 매 순간 주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

#### 기도제목

- 호프하우스 사역에 새로운 봉사자들을 보내주시며 매니저가 채용되기를
- 사라가 라마단 기간에 꿈과 환상으로 주님을 만나며 월요 모임 참석을 통해 진리의 말씀에 거하여 이슬람의 거짓 영에서 자유하기를
- 필립 목사님이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조속한 치료를 받으며, 암이 아니기를
- 저희 팀의 S와 T 선교사님의 딸 R이 무슬림 남자친구를 만나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결혼하기로 하였는데, 주께서 R의 결혼을 막아주시고 그 인생에 깊이 개입하시기를
- Mo가 말씀 가운데 잘 훈련되고 교회의 사랑과 섬김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기를
- 이란어권 새신자반 I와 A가 말씀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 브린와 펠라가 자녀들을 교회 어린이 교실에 보내주시기를

## 독일

## 루디아

이곳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성령 충만하도록

안녕하세요. 루디아입니다. 저는 독일에 잘 도착하여 2주간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계시는 선생님의 도움으로 유심칩을 구매하여 안부 인사를 드립니다.

이곳 날씨는 많이 춥습니다. 난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지만 난방비가 비싸서 현지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내려다 보니 실내온도도 많이 낮은 편입니다.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이곳 날씨와 시차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두 주간 주어진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단독 대면하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참 많은 걱정과 불안이 있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 그동안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돌아보고 정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님도 제 의지와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이제는 격려와 응원을 해주십니다. 자가격리를 하는 시간 이후에 어떤 사역과 어떤 훈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 기도제목

- 독일의 날씨와 시차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 잘 적응해갈 수 있도록
- 모든 훈련의 시간 속에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 고국에 있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 프랑스

다비드  
전경미

### 생명새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열매로 충만하도록

- 생명새교회와 하나님의 질서로 평화롭고 연합하며 용서로 충만하기를
- 세네갈인 보카와 알제리인 아쎬이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세워지도록
- 다비드 선교사가 잠을 잘 자고 힘을 되찾으며, 전경미 선교사가 수술로 인한 물리치료를 잘 받고, 두 사람 모두 영육이 강건하도록
- 그동안 부재로 인하여 지불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 프랑스 정부가 법적으로 이슬람교를 통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개신교를 여러 방법으로 통제하는데, 정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 캐나다

이바울  
송유순

### 원주민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 원주민 신학생들을 보호하시고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도록
- 원주민 청소년들을 지켜주시도록
- 자녀들이 차세대 사역자로 준비되도록
- 이 선교사의 허리·왼쪽 팔·무릎이 회복되고, 송 선교사의 오른쪽 팔의 통증을 치료되도록

## 니카라과

바리  
김수연

### 교직원과 학생들 그리고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 니카라과에 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 여러 바이러스로부터 교직원과 학생들을 지켜주시기를
- 교사들이 학생들을 주의 사랑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 첫째 자녀의 영국 출국 과정이 안전하고, 둘째 자녀의 대학 입학 과정이 순조롭기를

## 과테말라

한흥태  
한필연

### 현지인 리더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성숙하도록

- BEE 제자훈련으로 12명 중 7명이 현지인 리더로 잘 세워져가고 있는데, 7명이 차례로 주 1회 전도하여 선교센터에서 교제할 때 소그룹 모임이 잘 정착하고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도록
- 선교센터 주위의 주민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불가리아 ▶ 박사무엘 · 에녹**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께서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그동안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이곳 날씨는 봄비가 내리다가 갑자기 추워지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였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빠른 감염 속도와 열악한 병원 시설로 인해 사망률도 증가하고 있어 불가리아 정부와 리더들이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정부는 강력한 비상 봉쇄령과 함께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급히 전환하였고, 현지 교회들도 예배와 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월 초부터 현장 예배와 모임으로 인해 열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다시 몸을 낮출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작년 현지 리더십 가정으로 영입된 M과 D의 가정이 한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의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많이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연초에 새로 오신 선교사님 가정도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안정되게 정착하고 계십니다. 집도 순적히 구하셨고, 서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다섯 살 딸아이의 유치원 문제가 해결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을 맡아온 부부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 교회의 다른 사역을 섬기게 되면서 저희 부부가 그 사역을 잠시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양육하는 동안 주님께서 준비하신 청년·청소년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주십시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불가리아의 상황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가 있기를
- 비상사태 기간에 진행되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 현지 리더십 가정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길
- 주 안에서 청소년과 청년 리더들이 준비되길
- 박사무엘 선교사의 복통과 에녹 선교사의 이석증이 치유되고, 지쳐있는 영육이 강건해지도록
- 새로 H시에 오신 선교사님 가정의 남은 문제들이 잘 해결되도록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일하기로 할 때는 팬데믹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집에서 일한 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가끔 사무실에 갈 일이 생겨 들르면 텅 빈 그곳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얼마 전 델러스에서 세 시간 떨어진 칼리지 스테이션에서 1년 만에 대면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 90명이 열심히 경청하였습니다. 성경이 없는 종족들을 위한 기도 프로젝트를 소개하자 31명이 기도를 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젊은이들의 헌신을 보는 기쁨이 큼니다. 이런 사역의 열매는 여러분의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난 몇 달 사이에 제가 아는 위클리프 선교사님 중 델러스에 사시던 네 분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한 분은 자연사하셨고, 세 분은 코로나19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붙인 네 분의 별명은 전도자, 성경 교사, 밤 부영이, 중고차 전문가입니다. 전도자 선교사님은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하셨고, 밤 부영이 선교사님은 저녁 늦은 시간이나 토요일에도 종종 사무실에서 일하셨습니다. 성경 교사 선교사님은 성경을 열정적으로 가르치셨지요. 중고차 전문가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27년 사역하고 델러스로 오신 분입니다. 새 차를 살 여력이 없는 선교사들을 위해 중고차를 구입하여 손보신 후에 좋은 가격으로 선교사들에게 파셨습니다. 제가 1월에 성경 교사 선교사님이 계신 아파트로 옮겼는데, 복도에서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 제가 옮겼다는 얘기를 듣고 찾았노라고 하신 게 마지막 말씀이 되었습니다. 제가 천국에 도착하는 날 그 선교사님은 또 저를 찾았노라며 반갑게 맞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갑시다.”(히브리서 12:1)

코로나19 팬데믹을 당하여 눈물로 회개하며 종식을 위해 기도해왔지만 올해도 상황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에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수많은 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고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2월에는 너무나 큰 충격과 아픔을 경험하였습니다. 함께 사역하던 은혜 자매님과 일표 형제님의 세 살 된 아들 로이가 사고로 인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로이의 환송 예배 후 공동체 전체가 위로하는 시간에, 믿음으로 견고한 두 사람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견고히 붙드는 고백을 할 때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더 깊이 사랑하며, 더 부드럽고 더 깨끗하고 더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고 격려했습니다. 지금도 그 가족의 슬픔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지만 저희가 잘 도울 것입니다. 일표 형제님의 큰아버님이 로이 환송예배에 오셨는데, 우리 공동체가 사도행전 2장의 공동체처럼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세 살배기 아이 둘이 놀다가 사고가 난 것이었기 때문에 경찰과 사회복지사들이 와서 며칠 동안 조사했는데, 저희를 보고 안전하고 사랑이 많은 공동체라며 순수 사고로 결말을 내려주어 감사했습니다.

저는 몇 달 전 건강이 안 좋아져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국에 있을 당시 심장이 조이는 느낌과 왼쪽 팔과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는 게 지속되어 심전도와 피검사 등을 했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서 다시 정밀 검사를 하라는 권유가 있었는데, 한국에 가서 빨리 치료를 받고 오는 게 좋겠다는 디렉터 피터의 의견이 있어, 지난 3월 16일 한국에 왔습니다. 가능한 한 치료를 받고 빨리 사역지로 돌아가고 싶지만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도미니카 공화국

### 최광규 · 주선자

한도고등학교에서 선하고 의로운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코로나19 사태로 여전히 힘들고 불편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 국가 리더십들은 연일 언론을 통해 국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하지만 별다른 묘수가 없어 보입니다.

저희 부부는 여러분의 기도와 지원 덕분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도 초·중·고등학교는 구글 클래스, 줌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정부에서는 교사들에게 우선적으로 백신 주사를 놓아주고 있습니다. 곧 대면 수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속히 학교가 정상화되고, 이 학교 사역을 통해 좋은 리더들이 배출되도록 기도해주시시오.

저희가 개척하여 섬기는 가나안교회는 지난 3월 7일에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회 제한 조치로 많은 교인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지난 30년간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성도들이 주님 나라에 가면 주께서 크게 보상하시리라 믿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후원해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들 역시 주님께서 큰 상으로 보상하실 줄 믿습니다.



#### 기도제목

- 한도 초·중·고등학교가 속히 정상화되고, 학교 사역을 통해 좋은 리더들이 배출되도록
- 선교사 부부가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멕시코 박성주 · 노영이

ITP 신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 2월 15일에 선교지인 멕시코 뿌에블라 선교센터로 돌아왔습니다. 선교지도착 후 2주간 많은 일들이 정리되었고, 귀한 현지인 동역자들과 재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역자들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비전에 대해 나누고, 작지만 또렷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사역을 시작할 때 해결 불가능한 문제라 여겨졌던 부동산 등기는 마리아라는 신실한 동역자의 도움으로 모든 법적 조치가 일사천리로 해결되었습니다. 2020년 1월 마지막 단계인 세금까지 모두 납부하고 최종 문서를 받으려는 찰나에 코로나19 제재로 인해 부동산 등록 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선교지에 도착 후 만난 실무자는, 그동안 관공서의 업무는 계속 중단되어있는 상태였고 업무가 다시 시작되면 최종 문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등기가 지연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기다리기만 하면 오래된 숙제가 해결된다는 말은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선교센터 등기가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마리아 변호사와는 관계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선교센터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지난해 8월 그녀가 저희에게 “다시는 한국인 선교사를 돕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선교지의 문제와 함께 자신도 상처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자매의 결정은 너무나 강경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선교지로 돌아와 자매를 만나 서로 위로하고 대화하면서 우리는 다시 서로 신뢰하는 좋은 친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 자매가 선물한 과일 바구니는 많은 것을 표현해주고 있었습니다. 대화하면서 그동안 표현하지 못한 서로에 대



---

한 고마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쁜 일은 선교지에 서 깨지기 쉬운 현지인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연합’의 축복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마리아 변호사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2월이면 이곳의 단기 거주 비자를 연장해야 합니다. 선교지에 돌아오자마자 인터넷으로 비자 연장을 신청했고 며칠 후 이민국에 가서 미리 준비해간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2년 연장 비자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공공 기관을 상대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이제 비자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곳에 돌아와 보물섬의 보물지도를 그리듯 비전을 그려봅니다. 보물지도가 낙서가 될지 하나님의 비전이 될지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ITP 신학교에 들어온 21명의 신입생 대부분이 오지에서 선교하는 AMIEL이라는 멕시코 선교단체를 통해 입학한 이들입니다. 선임교수인 라울 목사님과의 대화 가운데 저희 신학교가 오지의 사역자들과 한국과 미국의 지역 교회들 사이에서 ‘선교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비전을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저희 부부가 이곳 동역자들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해나갈 계획입니다.

---

#### 기도제목

- 학생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그 가정들을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주시고 특별히 선교사 가정에도 건강을 허락하여주시길
- ITP 신학교 29명의 학생이 성실함과 열정을 갖고 수업에 임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경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하여주시길
- ITP 신학교의 사역이 멕시코 현지 선교단체와 연결되고 사역하는 사역자들과도 직접 관계를 맺게 하셔서 감사한데, 이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면 겸손과 기도로 준비되게 하여주시길
- 4월에 군에 입대한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고3이 된 둘째도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미래의 일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기를

## 도미니카 공화국 ▶ 박성민 · 정희진

변화된 상황에 더 많은 기도와 믿음으로 대처하도록

코로나19 상황으로 변화된 선교상황은 새로운 선교적 감각과 형태 및 태도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도와 용기와 믿음의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기쁨의 샘 유치원은 특별 들봄 교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 교실은 코로나19로 인한 선교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운영방식입니다. 유치원에서 주 1회 일대일 학습과 주중 가정 학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13명이 등



록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정에서만 머물며 무료한 시간을 보냈던 아이들이 유치원 특별 교실에 와서 학습에 기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교사의 수업을 참관하며 배워서 자녀들에게 가정 학습을 지도하는 역할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뿐인 만남이지만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학부모들이 만족하고 있어서 저희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기쁨의 샘 교회의 올해 표어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호세아 6:3)”입니다. 주중 대면 모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 7월 중순부터 매일 아침 말씀 묵상 오디오와 성경 통독 및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한 문항과 찬양을 채팅방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적용하고 있는 말씀 사역의 방식입니다. 장년 주일 대면 예배는 진행되고 있지만, 어린이 교회 학교는 아직 실행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온 교회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은 교회가 첫 세례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후보자 4명(장년 1명, 청소년 3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세례교육과 문답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가까운 바닷가에서 세례

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라는 주님 지상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뜻깊은 날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식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세례를 받는 자들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세워져가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도제목

- 도미니카공화국의 코로나19 상황이 백신接種의 진행과 함께 안정화되도록
- 기쁨의 샘 유치원의 특별 돌봄 교실이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며 주님의 기쁨과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도록
- 기쁨의 샘 교회의 영적 부흥과 장년 및 청소년 그룹의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 가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역하고, 대학 졸업한 큰딸의 취업과 고2 둘째 자녀의 학업 위에 주님의 인도와 은혜가 임하도록

# 모든 걸 예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지 순 진

(부천캠퍼스 사랑공동체, <ON편지> 디자인 그룹장)



**저는 하나님께 나중 온 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남편은 결혼 후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두란노에서 나온 기독교 관련 책을 항상 곁에 두고 읽었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를 다녀야 하지 않을까?” 결혼 5~6년차 정도 되었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심지어 교회를 불신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말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그러자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에 등록을 하려고 했으나 번번이 막혀 제대로 등록도 하지 못하게 되자, 저희는 큰 착각에 빠져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돌아오는 저희만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최선인 줄 알았는데, 역시 혼자만의 신앙생활은 한계가 있었기에 결국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재촉하지 않으시고 제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예배가 끝날 즈음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써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남편과 우스갯소리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 그런 때가 오면 참 좋겠다.” 라는 말을 늘 했습니다. ‘누가 교회 일을 시켜준다면 바로 해야지!’ 하면서요. 교회에서 저는 먼지 같은 작은 존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누구보다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던 저에게 드디어 그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더멋진세상’과 2000선교본부에서 재능기부자를 모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저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서 ‘야근도 많이 하고, 시간도 없는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핑계에 핑계를 더했습니다. 결단해서 작성하는 그 시간이 왜 그렇게 더디 가던지, 기회가 왔는데 스스로 망설이느라 정작 신청서를 내지 못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한참을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건 아니구나. 주님이 내가 그렇게 바라던 기회를 주신 것일 텐데……모든 걸 주님께 맡겨보자.’ 하는 마음으로 뒤늦게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얼마 후 <ON편지> 사역자님께 연락을 받고 <ON편지> 디자인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시간을 기다려주시고, 제 마음이 준비되고 예비되도록 만져주셨습니다. 선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던 저에게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받아 디자인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볼 때마다 그곳에서의 사역이 얼마나 힘이 든지 알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니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통해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호 마감 때의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밤샘 작업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때가 다반사였으니까요. 그렇게 거의 두 달을 폐인처럼 지낼 때, 같이 일하는 친구가 <ON편지> 마감하는 걸 보더니 심각하게 한마디 합니다. “교회에 재능이 갑자기 없어졌다고 하면 안 돼?” 그 순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이 주신 큰 축복이고 은혜인데, 재능이 없어지다니……’ 생각만 해도 아득하고 무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능히 해낼 능력을 주실 텐데 말이죠.

다크서클이 턱밑까지 내려와도 내게 능력 주실 주님을 굳게 믿으며, 이번 달 <ON편지>마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질병중인 선교사

한라	동북아	녹내장 치료 중
E 선교사	몽골	유방암 치료 후 회복 중
이준수	일본	간암 수술 후 회복 중
김인경	일본	허리디스크와 왼쪽 어깨 힘줄 파열로 치료 중
김유니게	인도네시아	췌장암 항암 치료 중
소리엘/소리샘	인도네시아	소리샘 - 유방암 수술 후 회복 중
		자녀 지수 - 소아당뇨로 혈당조절 및 체력회복
김사야/최마리아	캄보디아	자녀 해원 - 땀기열로 인한 코마상태
브리스길라	캄보디아	디스크 치료 중
심재욱/장선애	파푸아뉴기니	심재욱 - 이명, 가슴 통증
		장선애 - 당뇨, 척추 협착증
장은혜	스리랑카	섬광증 치료 중
에젤	아랍에미리트	보그트고야나기 하라다병 치료 중
박겸손	레바논	귀 이소골 수술 후 염증이 생겨 항생제 치료 중
새노래	요르단	위염 치료 중
김정희	온누리M미션	우측 악하선 침샘 제거 수술 후 후유증
최반석	온누리M미션	안면근육 떨림 증상
이생명/이샘물	본부	자녀 예준 - 미토콘드리아 근병증
박영환	본부	뇌출혈 치료 및 다리 근육 통증 치료 중



**2000선교본부**

올해 주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선교사역과 랜선 아웃리치 등의 새로운 개념의 사역이 교회의 모든 공동체와 사역팀에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두란노  
해외선교회**

새롭게 2분의 사역 장로, 3곳의 현장 권역리더(Regional Coordinator, TIM Japan, 소아시아 중앙아 권역, 서남아지역)와 5곳의 전략적팀 리더(오사카, 이치가와, 롬복, 암만)들이 화평케하는 자로 하나님이 주신 명철과 지혜로 섬기실 수 있도록

**온누리 M미션**

각 나라 지체들이 자국어로 사복음서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절 이후부터 추석 때까지 사복음서 쓰기를 시작했는데 말씀의 단맛의 기쁨을 더욱 부여주시고 완주할 수 있는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도록

**Acts29  
비전빌리지**

본국 선교사 훈련(H2H 12기, H2K 4기)이 7월과 8월에 국내와 해외에서 동시에 비대면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훈련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셔서 총만한 은혜와 기쁨이 있도록

**더멋진세상**

올해 24개국에 펼쳐지는 더멋진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지연되고 있어 어려운 취약계층(어린이, 여성)이 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각 나라의 정치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지고 코로나19가 진정되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얀마 북부 산간지역 기숙사 사업)

**BEE KOREA**

안식년으로 귀국하신 선교사님들이 영적, 육적 안식을 통해 온전히 회복되며 다음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을 얻고,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며 후방에 있는 BEE 가족들과 기도의 끈을 단단히 하여 사역에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SWIM**

중동선교의 작은 재생산(원격 양육/일대일) 프로젝트를 통해 비대면 시대에 선교사 상호간의 협력과 원격 양육으로 창의적인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 ON편지 안내 및 활용법

본 ON편지의 기도 제목은 최근 도착한 선교사의 기도편지를 우선으로 편집하여 신게 됩니다.

이 편지에는 보안이 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절대로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지 말아 주시고, 버리실 때는 분쇄하여 버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요일에 따라 기도하기

ON편지는 1주일(월~토)을 기준으로 각 요일에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님들이 일상에서 일주일을 기준으로 요일에 따라 규칙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 선교지역을 6개 권역으로 구분

선교지역은 크게 6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ON편지 지면에 따라 기도하시면 한 주에 한 지역의 모든 선교사님을 위해 중보하실 수 있습니다.



## 특정지역을 마음에 품고 기도

매주 특정한 한 지역을 마음에 품고 반복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고, 몇몇 지역, 혹은 전 지역을 한 주씩 돌아가며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매일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주일에는 특별히 교회의 선교기관과 질병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중보기도로 함께하기

개인기도 뿐 아니라, 순모임 및 중보기도모임에서 ON편지로 함께 기도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선교사를 위한 기도의 자리, 온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함께 기도해주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 ON편지팀 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오후 2:00 / 목요일 오전 10:00



전화번호 02-3215-3616 (2000선교본부 대표전화)  
02-3215-3212, 3250 (ON편지팀 직통전화)

주소 04428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52 3층  
온누리교회 2000선교 ON편지팀

이메일 onnuri2000.su@gmail.com

\*선교헌금 문의 및 선교관련 문의사항은 2000선교 본부로 직접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 온누리에서 ON편지



선교지의 소식과 기도제목을 전해 드리는 온편지,  
매주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전해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온누리에서 온 편지**를 구독하시거나 QR코드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매주 선교사님들의 영상편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2000선교본부 온편지팀 온라인그룹 02-3215-3212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시편 67:1~3

